

국립국어원 2009-01-3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23-14

##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 ▣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홍 기 옥(경북대학교)
- ▣ 조사 지역 : 경상남도
- ▣ 조사 항목 : 임신·출산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홍기옥



## 제 1 부

## 사업 개요

제1장 연구개요 .....	3
1. 조사 개요 .....	3
1.1. 민족생활어의 개념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6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사항	
2. 조사 지침 .....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9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4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	16
1. 조사 계획 .....	16
2. 조사 보고 .....	17
2.1. 제보자_17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9	
2.2.1. 조사 장소	2.2.2. 조사 내용
2.2.3. 조사 결과물	

##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생애 구술 .....	25
1. 이점이 생애구술(함안) .....	25
1.1. 유년 시절- “쪼개 배울 때 육이오 나가지고”_25	
1.2. 결혼- “서른 셋에 혼자 돼 갖고 므시매 둘 보고 살았어.”_29	
1.3. 출산- “죽은 아 놓민서 혼 났어.”_36	
1.4. “저거 안 아프고 명 질게 살았으면 좋겠어.”_39	
2. 이용순(영양) .....	44
2.1. 유년 시절- “아버지가 일본 사람 밑에 일 안 할라고 객지에 땡기며 살았어.”_44	
2.2. 결혼- “술집에 고만 우리 사돈하세 이켰단다.”_50	
2.3. 출산- “젓꽃지가 안 나와 참말로 죽일 거를 억지로 살렸어.”_57	
2.4. “세상 좀 어려운 기 있어도 내가 고마 이해하고 용서하면 편해.”_61	
제4장 조사된 어휘 .....	65
1.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	65
1.1. 기자 대상_65	
1.2. 기자 행위_66	
2. 임신, 출산 준비물 .....	67
2.1. 아이를 위한 준비물_67	
2.1.1. 이란저고리(배넛저고리)	2.1.2. 기주개(기저귀)
2.1.3. 애기이불, 어울대(포대기)	
2.2. 임산부를 위한 준비물_70	
2.3.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	2.3.1. 가위와 실
2.3.2. 덩기와 소구리(등겨와 소쿠리)	
2.3.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_70	
3. 임신, 출산 관련 금기 .....	72
3.1. 출산 전 금기_72	
3.1.1. 음식 금기	3.1.2. 행위 금기
3.2. 출산 후 금기_75	

3.2.1. 음식 금기	3.2.2. 행위 금기	
<b>4. 임신, 출산 관련 속설</b> .....		<b>77</b>
4.1.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_78		
4.1.1. 임부 배의 모양	4.1.2. 아이의 위치	
4.1.3. 임부의 행동	4.1.4. 기타	
4.2. 유산에 관한 속설_80		
4.2.1. 유산을 막기 위한 속설	4.2.2. 유산을 위한 속설	
4.3. 기타 속설_81		
4.3.1. 임부의 출산을 돕는 방법		
4.3.2.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한 방법		
4.3.3. 동생 임신을 예측하는 방법		
4.3.4. 기타		
<b>5. 임신, 출산 과정</b> .....		<b>83</b>
5.1. 임신 관련 과정_84		
5.1.1. 임신	5.1.2. 입덧(입덧)	
5.1.3. 태몽	5.1.4. 기타	
5.2. 출산 관련 과정_86		
5.2.1. 이슬비치다	5.2.2. 아가 빠치다	
5.2.3. 머리받이 터지다	5.2.4. 앓들다, 틀다	
5.2.5. 아 놓다, 아 받다, 아 나오다		
5.2.6. 땃줄 끊다	5.2.7. 태 나오다	
5.2.8. 목욕시키다	5.2.9. 훗배 아프다	
<b>6. 출산 후 행위 및 의식</b> .....		<b>91</b>
6.1. 산모 관련 행위_91		
6.1.1. 산후조리	6.1.2. 젖 관리	
6.2. 신생아 관련 행위_95		
6.2.1. 삼일 부정	6.2.2. 배속에 똥 누이기	
6.3. 금줄 치기_96		
6.3.1. 금줄 명칭	6.3.2. 금줄 종류	
6.3.3. 금줄 처리		
6.4. 태 처리 하기_97		
6.5. 배꼽 관리 하기_98		
6.6. 출산 후 의식_98		
6.6.1. 삼날, 초칠, 두칠, 삼칠	6.6.2. 백일	
6.6.3. 돌		

7. 기타 .....	101
7.1. 신생아 관련 어휘_101	
7.1.1. 호칭	7.1.2. 신체 관련 어휘
7.2. 임산부 관련 어휘_103	

##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	107
참고문헌 .....	110
부    록 .....	111
찾아보기 .....	155

## 제 1 부

#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 제 1 장 연구개요

### 1. 조사 개요

#### 1.1. 민족생활어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민족생활어란 생활과 언어에 민족이란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민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선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실제 삶과 연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집단 혹은 민족의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가 형성·발전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사고 체계, 문화 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미 만들어진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한 민족이 살아 온 삶의 모습, 사고체계,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민족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활어의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의 재발견과 조사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 민족문화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문화도 포함된다.
-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한민족 구성원에 의하여 연구 변용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한민족이 우리 강역 안에서 이룩한 문화 외에도 외국으로 일시 진출하거나 항구적

으로 이주하여 이룩한 문화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선사시대의 생활양상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자연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에 의하여 이용되고 의미를 부여한 자취가 있을 때는 한국 민족문화로 다룬다.
- 현대 문화의 양상은 전통 문화와의 연관이 파악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국 민족문화이다.
- 민족문화는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아홉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앞으로 수행할 이 사업의 조사 대상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Sapir Whorf 가설,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에 보면 언어구조나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많은 언어 형식을 창조한다. 사용자가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눈, 얼음, 바람을 아주 세분된, 수십 개의 말로 표현한다. 필리핀 민도르의 하우누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500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한다. 실제 공인된 공식 도감의 분류보다 400여 종이 더 많다.

어떤 언어 사용자의 죽음은 그가 가진 독특한 생활어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 전통에서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강신표, 인제대).

이러한 관점은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누구를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이 관점을 토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란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란 바로 그러한 한국 민족문화 모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어휘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 민족 내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생활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음운

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 의미, 용례, 담화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합당한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어휘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언어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기존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관념의 형성,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새말이나 기존 의미의 변화, 문화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휘이므로 어휘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어의 음성, 어휘, 의미, 용례, 담론,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민족생활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와 한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유지, 발전 되어온 국어의 어휘, 의미, 용례, 소통양식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정리, 보관,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한다.

한 민족의 삶 속에 내재한 생생한 생활어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올바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소멸·쇠퇴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창출됨에 따라 국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전통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민족생활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용례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탈근대 혹은 지식·정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민족생활어의 조사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고령자일 경우가 많다. 민족생활어 조사의 긴급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를 살면서 일상의 온갖 생활어를 생생히 사용해 왔던 고령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생활어를 긴급하게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참으로 귀중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노년세대들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그들의 자존감도 회복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어도 조사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당대의 고령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생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한국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1.3.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의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 1.3.1. 조사의 의의

- 행위자(제보자) 관점에서 이해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 조사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의식적 행위와 실제적 행위 모두 포착하고 규명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탐색조사(Pilot Study)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참여관찰, 인터뷰,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담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고, 이것은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조사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과 융통성이다.

####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사례가 지닌 역사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적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

사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례가 지닌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2. 조사 지침

조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의생활·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토속어(입말 구술 자료)를 채록하기 위한 기층생활어 조사와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업관련어 조사로 나뉜다.

- 기층생활어 조사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 채록
- 직업관련어 조사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과 연관된 생활환경, 제례의식, 민간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 채록<sup>1)</sup>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층생활어 조사는 앞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표준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어휘와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그 외 기존의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층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 항목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격화된 조사방식으로 생활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질문지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방법론을 활용하며, 구술체 자료(입말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수집한다. 아래와 같은 분야의 어휘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질문 조사방식으로 조사·수집 정리한다.  
 가) 입말 구술 자료 : 일생의례, 생업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세시풍속, 민속놀이, 질병과 민간요법, 특수 직업 어휘농업, 어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  
 나) 어휘 자료 : 민족 고유 전통문화 어휘, 직업어 자료

## 2.1. 현장 조사 지침

###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토속생활어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같은 대상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만약 조사된 어휘가 전형적인 특징(의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어휘 항목으로 선정하고, 음운론적 변종들은 어휘 항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의 용례는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명칭은 질문지의 그림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영하여 제출한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들은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어휘는 인간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를 찾아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조사 분야 중에서 지리적 변종이 예상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 선정
- 지리적 변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지역 선정

###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물에 관한 생활어를 잘 아는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체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어 조사는 조사 대상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을 따르되, 조사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한다.
- 직업 관련 제보자의 경우 조사 대상 직업을 10년 이상 지속한,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관록 있는 제보자를 선정한다. 단 조상 때부터 동일 직업을 가지고 이어온 제보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주변에 동일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어 구별을 위해 또 다른 제보자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ㅡ]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키’이면 ‘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기’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기’이면 ‘기’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시’가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랍 → 사랍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 2.3. 올림말 선정 지침

###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ㄱ’과 ‘ㄴ’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써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ㅕ>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혜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ㄴ’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ㄴ’>ㅓ’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밭), 뽕다(뽕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ㅓ’>ㅗ’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ㅗ’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벙이다(배우다)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ㅓ>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ㅓ : 구석>구삭, 흘청>홀창, 배개청>배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깁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ㅕ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씨(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ㄹ. ㄴ>리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피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ㄻ. 리>괴 : 괴기>계기, 괴비>계비(식물), 외우다>에우다, 피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ㅂ. ㄱ>기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둑>귓둑,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ㅅ. 내>시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꺾>피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ㄱ. ㅂ>기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첩(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ㅂ. ㄱ>ㅎ : 아곱>아흡, 뚝>뚛,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⑰ ‘-’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⑲ ‘ㄹ’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플~소블(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물개~모래, 생강~새

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1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푹(병푹), 팍나(밤낫),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2 어간말 자음 ‘ㄱ, ㅈ,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옷(옷), 빛(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3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건다), 짊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2.4. 뜻풀이 지침

###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중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등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중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 1. 조사 계획

언어는 참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개별이 속한 사회의 특징 뿐 아니라 문화까지 고스란히 언어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역사성에 의해 새로운 언어가 끊임없이 생기고 많은 언어가 사라지는 일은 어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언어의 소멸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그것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 따라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조사와 정리는 시급한 일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련 분야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문가를 위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일반인에게도 분야별 어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모두 각각의 삶을 살고 있지만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일인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까지 겪게 되는 일을 민속학에서는 일생의례라 한다.<sup>2)</sup> 그 일생의례의 시작은 부모의 기자를 포함하는 임신, 출산이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임신·출산’ 문제 또한 인류의 존속, 민족의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누구에게 배워 습득한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체득한 지식인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임신, 출산의 문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말과 표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추정 할 수 있다. 출산 문화의 변화로 임신, 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어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는 임신, 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어를 조사, 수집, 정리할 것이다. 임신, 출산에 관한 생활어 조사에서는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등에 관해 조사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생활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어휘

2)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1, 밀알, 1994, 149~150쪽 참조.

일생의례가 부모의 기자에서부터 죽은 후 제사까지를 의미한다면 ‘통과의례’는 일생을 주기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과하면서 마디가 되는 곳에서 행하는 의례이므로 태어나기 전의 기자의례와 죽은 후의 제례는 통과의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통과의례라는 말 속에는 일생동안 치르는 의례뿐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드나들 때 지키는 의례나 정월부터 선달까지 주기적으로 행하는 세시의례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도의 여러 제보자를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어휘 수집하여,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 목록화를 위한 조사이다.

## 2. 조사 보고

### 2.1. 제보자

경상도에서의 임신, 출산에 관한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제보자는 경상북도(영양, 봉화, 대구) 3명, 경상남도(함안, 의령, 부산) 3명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경남의 제보자 중 조설좌는 어계 조려의 종부이며, 이점이 는 어계 조려 작은집 종부이다. 의령의 한정순은 말하길 좋아하고, 생활어 조사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어 제보자로 손색이 없었다. 종갓집 제보자를 선정해 반가와 민가의 임신, 출산 풍속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3명 모두 각각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 제보자였다.

경북의 제보자 3명 또한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제보자이다.

연번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임신 출산	조설좌	여	80	경남 함안 군북면	어계 조려 종부
2		이점이	여	71	경남 함안 군북면	어계 조려 작은집
3		한정순	여	72	경남 의령 공류면	
4		금경랑	여	81	경북 봉화 물야면	
		이용순	여	82	경북 영양 영양읍	
		금경자	여	67	대구 동구 신천동	



[사진 1] 조설좌(함안)

- 조설좌 (80, 어계조려의 종부)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함안에서 성장, 생활하시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유복자를 낳아 키우셨다.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사진 2] 이점이(함안)

• 이점이(71, 어제 조려의 작은집).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함안에서 성장.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부산에서 잠깐 생활하다 다시 함안으로 와 생활하고 계시다. 40대에 남편과 사별하였고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종가의 음식 관련 일을 대부분 맡아서 하고 계시다.



[사진 3] 한정순(의령)



[사진 4] 이용순(영양)



[사진 5] 금경랑(봉화)



[사진 6] 금경자(대구)

• 한정순(72)  
할머니는 의령에서 태어나서 의령에서 평생 살아 온 토박이로 시집와서 양조장을 하고 계신다. 할아버지 살아계실 동안만 술도가를 하시겠다는 할머니, 지금은 막내 아드님이 술도가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작은 체구로 평생을 일꾼들과 집안사람들 먹거리를 도맡아 하신 할머니께 경남 평야지역의 떡 관해 조사하였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있다.

- 금경량(81)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계속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 토박이다.
- 이용순(82)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영양으로 시집가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슬하에 1남을 키우셨다.
- 금경자(67)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영양으로 시집을 가서 생활하시다가 대구로 나오셨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셨다.

##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09년 5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민족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는 6월 말까지 진행하여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관련 어휘를 조사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정리하였다. 이는 이후 현장 조사를 위한 관련 문헌을 정리하는데 참고하였다. 현장 조사는 7월 초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는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조사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참고 문헌 정리한 내용을 제보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하위 분류의 어휘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제보자들의 생생한 삶이 묻어난 어휘도 수집할 수 있었다.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정리 기간 : 2009년 5월 29일~2009년 11월 26일

	조사 일정	비고
1	문헌조사 (5월 29일~6월 30일)	
2	조설좌의 생애구술, 이점이의 생애구술 (7월 18일)	함안
3	조설좌, 이점이 임신·출산 관련 어휘 조사 (7월 20일 - 22일)	함안
4	한정순의 임신·출산 관련 어휘 조사 (7월 19일)	의령
5	금경량, 이용순, 금경자와 예비 만남 (7월 20일)	봉화
6	금경량, 이용순, 금경자의 임신·출산 관련 어휘 조사 (7월 24일)	봉화
7	이용순 생애구술 (7월 25일)	봉화
8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7월 26일~11월26일)	

### 2.2.1. 조사 장소

임신·출산에 관한 조사는 대부분 제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조설좌, 이점이의 조사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592번지 소재의 어계 생가에서 하였으며, 한정순은 경남 의령군 공류면 압곡리 소재의 자택에서 하였다. 경북의 제보자들은 봉화의 금경량의 집인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210번지에서 조사하였다. 금경량과 금경자는 자매지간이고, 이용순은 금경량과 친구 사이이다. 그래서 금경량의 집인 봉화에서 조사를 하였다.

### 2.2.2. 조사 내용

경상도의 임신·출산에 관한 조사에서는 임신을 위한 기자 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기타 항목으로 신생아 관련 어휘, 임산부 관련 어휘 조사 등의 범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 항목
임신을 위한 기자 의례	기자 대상, 기자 행위
임신·출산의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임산부를 위한 준비물,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출산 전 금기(음식금기, 행위금기), 출산 후 금기(음식금기, 행위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유산에 관한 속설, 기타 속설
임신·출산 과정	임신 관련 과정(임신, 입덧, 태몽), 출산 관련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산모 관련 행위(산후 조리, 젖 관리), 신생아 관련 행위, 금줄치기, 태 처리 하기, 배꼽 관리 하기, 출산 후 의식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호칭, 신체 관련 어휘), 임산부 관련 어휘

### 2.2.3. 조사 결과물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임신을 위한 기자 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및 기타 항목으로 신생아 관련 어휘, 임산부 관련 어휘 조사 등의 범주로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

관련 설명을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저장하고, 이를 transcrib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고 문장 단위로 나누어 저장하였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경상도의 임신·출산에 관한 생활어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임신·출산		429	301	7/7 <sup>3)</sup>	*429	7	3

3) 총 전사 시간은 152분임.



## 제 2 부

---

## 연 구 내 용

제 3 장 생애 구술

제 4 장 조사된 어휘



## 제 3 장 생애 구술

### 1. 이점이 생애구술(함안)

#### 1.1. 유년 시절- “쫓개 배울 때 육이오 나가지고”

@ 예. 지금부터 어르신한테 여쭙볼게요.

# 아유.

@ 어르신 성함 좀 말씀해주세요.

# 예. 이점이.

@ 어.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 생년월일은 이월 이십팔일.

@ 몇 년도 생.

# 어. 삼구년.

@ 삼십구년?

# 예. 삼구.

@ 아. 그면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 칠십둘.

@ 칠십들이요?

# 어. 칠십둘인데 만을 치모 칠. 하나지.

@ 예. 그러면 어르신 띠는 어떻게 되시는?

# 어. 범띠.

@ 아. 좋은 띠가.

# 아유. 범띠. 여자 범띠 좋을 거 어딤어.

@ 아하하. 옛날에야 그런 말씀 하셨지만. 뭐.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 저 이반성서 태어났지. 여. 진주. 이반성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

@ 아. 거기 태어나서 결혼. 결혼하셔서 이쪽에 오신 거예요?

# 예. 결혼 해가지고 함안 저서 이로왔지.

@ 예.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살고. 어르신 살고 있는 주소.

# 여계. 함안군. 군부면. 원북리. 오구이번지.

@ 예. 어르신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 우리는 여이. 저거 이쪼 시택에 형제간은.

@ 시택 말고 원래 친가. 예.

# 아. 친정에. 친정에는 딸 서이 아들 하나.

@ 아. 막내가 아드님이세요?

# 예.

@ 아. 그 아들 날라고. 하하.

# 엄마가 좀 애를 썼지.

@ 어르신은 거서 몇째데요?

# 거서 첫째.

@ 첫째예요? 아. 만딸이구나.

# 예. 첫째 딸.

@ 응. 부모님. 그. 그러면은 부모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 부모님 고향은 내나 진준데 사복면.

@ 예.

# 사복면.

@ 아. 직업은 어떤 일을 하셨. 어떤 일을 하셨어요?

# 농사. 농사. 농사를 했었지.

@ 각시. 결혼하시기 전에 고향에서는.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고 놀으셨어요?

# 저. 주로 뭐 소꿉장난이지. 뭐. 거 담보락 밑에 쪽 놀면서 저 풀이파리 뜯어가 각시 멍글고. 허. 또 저. 저 비단가리 그 꿰갓고. 그래 그릇이라 콤시로 거 달아가 차곡차곡 엮치고 흙 가지고 놀면서 그거 갖고 밥이라카믄서 먹자 카고 그래가 갖고 놀았지 뭐.

@ 예. 소꿉놀이 말고는 뭐. 다른 거 있으세요?

# 소꿉놀이 말고는 뭐. 좀 커서는 인자 엄마 도운다고. 이 미영잡고 질쌘하는 그기지.

@ 예예. 질쌘. 아.

# 삼 짜고. 이제 삼 짜고 나른 이 또바 널어가지고. 이 먼저 사전을 한 본 봤는데 이 삼 뽑는 이 톱. 톱 이기. 톱자 이기. 보통 이 톱잡을 마이 쓰지. 피옴 이 톱자 쓰는 거는 좀 어렵더라. 이런데 아즉 우리가 텔레비로 여럿이 앉아서 놀면서 보면서 이렇게서. 피옴 드는 이 톱자가 참 어렵더라고 이카믄서. 사전을 찾아보니깐 노아. 이 삼뽑는 톱. 그기 피옴자 그러더라.

@ 응. 그래서 각시 시절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하셨구요?

# 각시 여.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거 저 진주로 근데 사업을 좀 하고 있었어.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이 실패되고 나서는. 우리 여 고향이라고 찾아와가지

고 여가 아저씨가 몸이 좀 안 좋았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 므시매만 둘이 들꼬 그래 사다가 참 뭐 아버지 집에 뭐 그래가 있지. 지금.

@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집안일을 뭐 음식이나 요리나. 아. 음식이나. 다른 일을 좀 하셨어요?

#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따라서 뭐 조금씩 뭐 해먹는기지. 다른거는 별로.

@ 맏딸인데도 그런 거 안시키셨구나.

# 예예. 주로 뭐 농사일. 그거 나가서 그거 마이 하고. 소 먹이고.

@ 아. 소도 기르셨어요?

# 예. 친정에 소를 먹이기네 저 산에가서 소 먹이갓고 오고. 애기 보라카고. 동생들 있으니까 주로 그론 거 시킨다고 뭐 엄마들이 음식같은 거는 많이 하고.

@ 카른 공부는 학교. 뭐.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 초등학교 머 다니다 말다가.

@ 그쵸. 그때는.

# 예. 그때는 애기 보러 크고 이라모.

@ 맞아. 맞아 일이 많으니까.

# 예. 육이오 사변 나뻐제.

@ 몇 살 때 육이오 사변 나셨어요?

# 아. 열세 살에 육이오 사변 났고. 또 여덟살 무서 학교 드가가 일본굴. 그 쪼갬 배 응께 팔월 십오일 해방이 저뻐는기라. 우리 그 일하기 배울 때 해따이상 도고도고 고 고시. 그거 배았거덩. 그거 배우는데. 해방 저뻐다고. 해방 저잉기네 일본글은 몬하구로 하고 한글 배워. 예. 한글로 배아서 열 세 살에 육이오가 나뻐거든. 육이오 나가지고 가마 고마 뭐 애들 뭐 학교 가그로 하는기야. 애는 보고 뭐.

@ 맞아. 일하라고.

# 일하라고. 마. 그래 학교 졸업은 나중에 하러 갔지. 선생이 오라상계. 학교 졸업 하러 가가지고 거 이반성 정수 국민학교가 있어. 정수 국민학교가. 여계로 지금 거리로 치는 그트믄 한 십리거리 되제. 이래 되는데. 걸어서 다 땀겨어. 비가 오나 눈이오나 걸어서 다녔는데 그 학교가 지금 피집이 되고 엄꺼든. 없는데 거기 학교가 우리가 이 십일회 졸업이라고.

@ 아. 그래도 졸업장. 졸업. 졸업도 하셨네요.

# 하하. 졸업.

@ 다른 어르신들 졸업도 못 하고 졸업장도 못 받았던데.

# 어.

## 1.2. 결혼- “서른 셋에 혼자 돼 갖고 므시매 둘 보고 살았어.”

@ 아. 그러면 결혼을 언제. 몇 살에 하셨어요?

# 시무살 무서.

@ 아. 그것도 늦게 하신 편 아니에요?

# 좀 늦지.

@ 그쵸.

# 예. 고때 세대치는 좀 늦지. 나던 청이라 췌으이. 나던 청이라 캐사서.

@ 아. 그 뭐 전쟁때메 이런거 왔다갔다 한다고 그런 거는 아니.

#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고. 응.

@ 그. 남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여 조가. 조선.

@ 아. 같은 조. 고향이라 그러셨으니깐.

# 나는 저래. 이가고 여는 조가고. 조가.

@ 아. 그니깐 몇 살 차이 나시는데요. 어르신은.

# 시살.

@ 세 살 차이 나셨어요?

# 어. 세 살 차.

@ 거 누가 중매를 하셔서.

# 요 마을에. 요 마을에 있는 할매가 이. 점밭이 할머니라. 그래 저 너매 넘나들이 되면서 그래 인자 참 중매를 해가지고 이쪽. 이쪽 난중 알고 보니 이쪽 부모가 없어. 그래농께 결혼 서거든 뭐니 이런 집안사람이. 거 마 결혼 그래 참 그것도 연분인가 결혼했더라고. 하하.

@ 그러면은 결혼 하시기 전에 할아버지 얼굴 한 번 보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 시댁에 어른은. 도저히 모르지. 아무도 몰라. 모르고.

@ 카면 중매. 뭐 중매 매파 왔다갔다 하고 바로 연에 날 잡고 이러셨어.

# 예. 콩나물도 뭐 남으끼 날잡아. 하하하.

@ 그 당시는 예물 같은 거 다르게 준비 해가셨어요?

# 예물도 뭐 그런 거 없고. 거 인자 우리는 신랑한테 반지 하나 받고 우리 쪽에서는 그때 양복 한창 할 때거든. 양복 해주며 뭐 참 마 결혼하마 양복 한 벌 얻어입을끼라고 막 생각하고 우리는 양복 한 벌 해준 거 뿌이 없고 여쪽에서는 반지 하나. 고기 인제 서로 교환이지.

@ 아. 그러면은 혼례를 지낼 때 뭐 결혼식장에서 하셨어요? 아님 전통혼례로?

# 아니야. 우리는 구식으로. 우리 그때는 이 식장도 없었고 그런거 없었어요. 없었 때 문에 마당에서 이 흘기상 채려 놓고 그 마당에서 참 뭐 식을. 뭐 어른들이 모여갖고 식을 올리고 그렇지.

@ 응. 그날 첫날밤이나 이런거 기억나세요. 어르신?

# 흥흥. 무시 기억날꼬.

@ 그면 신랑 얼굴은 언제 처음 보셨어요?

# 신랑 얼굴은 저날 저녁에 봤지만은. 다른 건 아니고. 마 삼광제꺼만 한다고. 요즘에는. 요즘 야기는 이 각시. 신랑이 각시 마 어떻게 하는가 그거 구경할라꼬. 문을 막 때 제쳐놓고 주물상인가 뭐든 요새. 요새 치마 술상이라. 저녁에 먹으라꼬. 술상을 들라 놓고 마 저거라서 부 묵고 그래 인자. 저쭈 옛날에 가매술이 소. 삶아젖는 술이 있었다 카이. 여 방에 있었는데. 거기 마마 구경한다고 몇이 섰는가 술이 흘렁 빠져뻗어. 술이 흘렁 빠져놓응게네 신랑 하는 소리가 까뜩하마 술에 불마 때우마 여 다 니라앗겠다 이 라는기라.

@ 예예. 맞아. 하하.

# 그래 내 저저 뭐래 했는고. 그건 기억안나긋고 뭐 혼설하면서 각시 아무 소리 하지 마는기다 이러쿰더라고.

@ 예.

# 그거는 기억이. 아무 소리 안하는 기라고. 허허허허.

@ 첫 번째 딱 봤을 때 인상이 어떠셨어요?

# 뭐. 지 연분이 될라고 그러턴가. 뭐 쾌안티.

@ 다행이다. 그쵸?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고. 이. 뭐 할머니가 참 젊었을 때 인물이 고우셨을 것 같은데요.

# 아유. 몰라예. 얼만큼. 뭐 별 말하는 것도 없고 마 무던하이 그래 마 지냈습니더.

@ 그러면 시어른은 한 번도 못봤겠네요?

# 예. 시어른은 마. 도저히 못 봤지.

@ 그러면 친척 분만 많이 오신거예요. 아님 신랑만?

# 친척분. 요집에도 우리 큰집이라.

@ 아. 그렇구나.

# 예. 여도 재종가라. 요새 아들치모 사촌지.

@ 그러네요. 사촌지간이다.

# 예예. 그래농게 그 아주매들이 그래.

@ 아. 그래갖고 이 집 일을 다 잘하시는.

# 허허.

@ 그러시구나. 그럼 결혼할 때 옛날에 활옷같은 거 이런 것도 입고 그러셨네요?

# 예. 활옷입고 쪽두리. 여. 아록아록 요즘에는 뭐. 애들이나 뭐 연극 하든 여 뭐 앞에 쓸 때.

@ 예. 맞아. 쪽두리 같은 거 쓰죠.

# 예. 쪽두리. 그것도 씨고 그래 안했습니까.

@ 응. 결혼식때 먹는 떡같은 거 이런 것도 있나요?

# 결혼식 때 뭐 별시. 뭐 특이한 거는 없고 주로 뭐 인절미.

@ 응.

# 인절미.

@ 응. 잠깐만 끝께요.

@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살림은 바로 이 동네 차리신 거 아이. 아까 전에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 어. 요동네 채리가지고. 한 여게서 육개월 있다가. 육개월 있다가 진주로 갔다고.

@ 거서 사업하셨어요.

# 거서 인재 사업하다가. 우리 이 과자 맵그는 거. 거 사업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뻐다고.

@ 그니깐 그 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그때 처음으로.

# 예.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 여 하다가 사업 실패를. 왜글노 카모 요 아저씨가 군에 안갔다고. 군에 안가놓게네 요즘으로 치마 숨어서 지낸. 어. 기피가 되가지고 주민등록 그거를 고마 떠뻐다고. 공중을 떠뻐논기네 참 몸을 피해야 되어.

@ 그러셨구나.

# 피해서 땡기고 이려고 살아가. 저 부산에 가가지고도 좀 있었어. 거 가가지고 한 일년 있었나. 일년 있다가 거서 도저히 유지를 못해서 시골로 다부 내려가.

@ 뭐. 군에 안가시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나요.

# 군에 그래 안 갈라 카테예.

@ 가기. 그냥 가기 싫어서.

# 예. 가기 싫어서. 그때만 해도 군에 갔다카모 전사를 마이 당했거덩.

@ 맞아. 맞아.

# 외동아들잉께 이래놓게네. 이거 집안에서 더 안 보낼라코고. 이래 갖고 안 가고. 인제 우에 누부가 서이거든. 누부가 서이고 밑에 남동생은 하나 뒀능게네. 누부들도 고마 안보낼라카고 이러잖아. 그렇게 결국 안가고 말았는. 참 시골 여 안즉됐는데. 여와서도 우리 논은 아무것도 없고 너므 논은 서너마지기 농사짓다가. 거 요즘에는 채는 그트른 별 병도 아인데 참 담석증이 걸리가이고. 그래갖고 마.

@ 맞아. 요즘에 별것도 아닌데.

# 별것도 아이고 이래캐산데. 그래 참 고생을 하다가 대구 동산병원에 가니까 그 시기가 늦다 코문서 안 좋다 하는기라. 간 그녕 지포가 되가. 한쪽 간은 뭉 거삭이 되가 수술을 몬대쨌다 카문서. 그질로 고생을 하다가 나도 얼마 안 되서 돌아가셨어. 서른 여섯에 갔어. 총, 요시 같으면 총각이 결혼도 안했.

@ 어머 정말요?

# 나는 서른 서이고.

@ 어머 그러네요. 세 살 차이. 어머 세상에.

# 서른 여섯에 그래 참 고상. 무시매 둘이만 보고 참 그냥 살고 있어.

@ 그면 결혼하셔서 십삼년정도 사셨다 그죠?

# 예.

@ 아유. 세상에. 정말 창창할 때. 어르신도 그렇코.

# 그래가 마 나는. 남으 일이라카마 안해본 거는 없어.

@ 그러시겠다.

# 그 애 둘이 길릴라 켄기네 아무것도 내기라고 없으니깐 뭐 너므 품밭아라도 해야. 애들 초등학교라도 시키야 되고. 그래. 애들이 참 뭐 전에는. 요즘에는 다 정부 참 좋은일로 해상계네 회비도 없고 이런. 전에는 초등학교도 회비가 있었거든. 다무 몇이라도. 회비가 있고 이러이 품밭이 해가지고 글로 몇자 적어주믄서 선생 갖다 줘라. 선생 님 주고 나모 담에 내 돈 받으마 갖다 주꾸마. 보내 주꾸마. 그래 그 선생이. 선생 내 지금도 고맙다 카이. 초등학교 시자서 중학교 까지 자기 봉급을 제하고. 제해주고 돈을 주믄 받고 돈 안 주믄 못 받기도 이려고 살아.

@ 아유 감사하다 그죠.

# 예. 그 선생 보마 지금도 내가 마음이 아파.

@ 그렇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선생님이 어디 계셔. 그것도 뭐 아들님 복이긴 복이다. 그죠. 좋은 선생님 만나시고 이러면. 응. 그럼 시집살이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 시집살이 한 것도 없어요. 어른들이 없으이.

@ 그 누나 세 분은.

# 누나들 세 분 뭐 있어도. 전부 남의 집에. 뭐.

@ 벌써 시집가고 있어요.

# 예. 시집가고 해노니께.

@ 거 같이 생활한 시댁식구 없었겠다. 그죠?

# 예. 없었어.

@ 그럼 음식이나 이런 거 누구한테.

# 음식은 주로 고마 남으 보고 같이 하고 그기지.

@ 결혼해서 켈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거는.

# 살기가 인자 부족한 거기 인자 어렵지. 다른기사 뭐. 종갓집 뭐 음식하는기고 뭐시고 전부 뭐 문중일은 내가 대충 들고 향기네 그런 거 어려운거 없어.

@ 어쨌든 남편 분 따라다니고 막. 그런 마음고생 이런 거 좀 많이 심하셨겠다. 어르신은. 그죠. 거 말로 다 못해서 그렇지.

# 하하. 그 표현을 다 할 수가 있는교.

@ 맞아. 맞아. 어르신 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한가지씩. 말로 다 못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막. 얘기하시더라. 자녀가 아까 전에 두 분이랑 하셨어요?

# 예.

@ 아드님이 두 분?

# 예.

@ 어. 몇 살 때 그러면.

# 우리 큰 거는 열두살 묵고. 작은거는 일곱 살. 그래 아바이. 그때 돌아가서.

@ 아. 그러면 그 남편분. 남. 살아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자녀도 더 많이 봐셨. 봤었겠었다. 그죠?

# 잘 모르겠어요 거는. 하하. 근데.

@ 그 당시 두 명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 많이 아이. 터울이 좀 너무 늘어졌지.

@ 그렇다. 예예. 왜 그렇게 또 늘어졌는가.

# 안 맵궁게 그렇죠. 하하.

### 1.3. 출산- “죽은 아 놓민서 혼 났어.”

@ 그렇지. 그렇지. 그게. 어르신. 아. 그럼 출산을 두 번 해보셨다 그죠? 중간에 또 잘못된 얘기가 있다거나. 그런.

# 근데 딸아 하나 낳가지고는 죽었지.

@ 아. 중간예요?

# 예. 죽은 애를 한 번 낳았어.

@ 아. 사산이 된건가?

# 예.

@ 어. 그렇구나. 캄 어뻘든 키우진 않았으니깐 크게 그러진 않았겠었다.

# 어. 거 애도 죽은 아 놓민서로 크게 혼이 났지 뭐.

@ 맞아. 낳으시면.

# 병원이 있나 뭐 있노. 그때는.

@ 맞아.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 애기들. 그 당시에는 농기 전에 준비를 어떤 걸 미리 준비하세요?

# 애기놓을때. 인자 식으로. 주로 인자 참 가위. 실꾸리. 왜 그라노 카모 가위는 대충 꿩을라 그라고. 실꾸리는 대충 꿩고나모 그 피 안나오구로 재맬라고 그래 인제 준비하고. 인자 뭐 요즘에는 참 기저귀고 뭐시고 가재대고 새비고. 그 전에는 그 뭐 아 따가지고 할라고 이개사 참 뭐 치매폭 그런 거 갖다놓고 있지. 뭐 있을꼬.

@ 미역 같은 것도 다 준비.

# 미역은 애기 낳야 인자 사러 가지.

@ 아. 미리 준비 안하는. 아.

# 응. 애기 낳야 사러 가고.

@ 애들 태어나면 젤 먼저 입히는 옷. 그 옷 같은 거는. 배냇저고리.

# 배냇저고리. 그거는 인제 미리 있지.

@ 손수 만드신 거예요?

# 손수 땀글어가 입혔지.

@ 어 그 어떤 천으로 만든. 그냥 집에 있는.

# 명베. 요즘에 치면 명베지. 명베를 가지고.

@ 아. 뭐 애들한테 여러벌 만드나요? 아니면은.

# 아이구. 그때는 그런 여러벌 땀글거 어딴노. 얇고 흰옷 뜯어가지고. 그래 땀글어가 지고 입히고.

@ 응.

# 그것도 똥 싸고 하모 또 우찌 기주개도 또 마. 알궂이 말아났고. 그 말라가지고 입히고.

@ 응. 그 뭐 태몽같은 거 꾸셨어요?

# 아. 저기 큰 아 설 때는 태몽 꾀봤지.

@ 어떤 거 꾸셨.

# 어떤 바위에 혹 가 물이 시퍼러이 되가 있더라고. 그래 인지 이 편풍을 딱 쳐냈더라고. 편풍을 이래 쳐냈는데. 그 편풍을 치워봉게 마 산슴도 있고 마 가득차게 있는데 시퍼란 깔치가. 이찌름만한기 깔치가 떡 물에 노니깐. 저 깔치가 니 가가라 이카더라고.

그래 가지가서. 집에 와서 그 해무도 되는가요. 카면서 이강계 몬 묵게 하더라고. 그기 태몽이라.

@ 깔지가 뭔데.

# 무시치 뭐. 요즘에는 이 생선. 생선 깔치.

@ 아 칼치.

# 응. 칼치.

@ 어. 아. 그게 그랬어. 어.

# 그렇게 꿈.

@ 카면 산후조리 같은거 어떻게. 뭐 많이 하지도 못했겠지.

# 산후조리 그 뭐 없이. 어른들 안계시제. 그래도 뭐 신랑이 염려해서 잘 해주더라고. 미역국 사다 국도 끓여주고. 한 일주일 넘게 뭐 있지. 그 산후조리.

@ 아 금줄 같은 거 치셨어요?

# 우리는 금구 그런 거 안쳤어.

@ 아. 그래도 아들. 그 당시에 아들 둘.

# 우리는 금구 그튼 그런거 잘 안 해.

@ 카면 산후조리 한 일주일 정도 하시면 다 됐는 거예요?

# 다 안 되지. 근데.

@ 삼칠일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 응. 보통 삼칠일 넘게 되지. 어른들 계시고 하모. 삼칠 넘기 딱 뜨사가. 우리는 뭐 배도 참 뭐. 몸에 끼가 있어도 그냥 뭐 얘기 놓고 나모 삼칠 거 비치거든. 이리 거 새도. 참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 그니깐. 누워 있지가 못하는.

# 못하는.

@ 예. 맞아 맞아. 애들 교육은 참 어렵게 시키셨다. 그죠? 어르신?

# 교육은 말도 못 하지.

@ 별의 별일 다. 아유 그. 그 나이에. 진짜 별 일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 별의별 다 하잖아. 참. 뭐. 안 해본 일이 없지.

@ 뭐 어떤 거 많. 오래 하셨어요? 남의 집 뭐 일.

# 남의 집에 일일. 또 고압선 시우는데 그리로 따라 다니면서.

@ 아 그런 일도 해보셨어요. 아.

# 그래가지고 한 번 이고 가모. 그 키로 여기 딱 달아가. 요새는 키로라. 달모 그에 인자 돈이 얼마다. 도장 받아가 내려오고. 그래 그것도 하루 몇 번 올내리고 다 하모. 그때만 내가. 지금 머리 밑에 이거로 하얏다. 지금 다리도 올캐.

@ 그렇다. 다리도 아까 전에 보니 그러시던데.

# 예. 살아나온 거는 참 마. 누 없이 옛날에는 없으니깐 고생아이래. 고생 그래.

#### 1.4. “저거 안 아프고 명 질게 살았으면 좋겠어.”

@ 맞아. 예. 캄 자제분은 어디. 어디에 계시는데요.

# 큰 아들은 서울에 있고.

@ 아. 서울에 계세요?

# 개는. 고생 개도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고생 말도 못 해. 중학교 졸업 못하고. 방학 때 어떤 사람이. 마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심부름이나 하고 마. 니 하고 저브른 고등학교 라도. 야간 고등학교 시키주꾸마 이래쿵 들어갔는기라. 가가지고 애가 얼마나 공부에 포부가 졌는지 나이 열여섯살 묵은기 나가갖고는 마 참. 서울바닥 그 어떤 바단교. 그

래 가가지고 한 거게서 이년을 고생하고 그 집에 있었어. 있다가 그 집에 인제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야간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하고. 대학도. 이년 인제 편. 이년하고 또 사년째 인제 가서 할라고 편입을 하가지고 거기서 사년제 졸업.

@ 아유 대단하다 그죠? 끝까지 그래 하셨으니깐.

# 그래갖고 거 저저 조흥은행 거 취직해가 있다가.

@ 어유. 좋은데 들어가셨다.

# 조흥은행 거 취직해가 있다가. 거 두 번이나 부도나가.

@ 맞아. 맞아. 합병되고 이랬어.

# 부도난 바람에 고마 나와 가지고 요즘에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쟁기고 지 사업하고.

@ 아 그러시구나.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 조그마하게. 똑 저 마루마 할랑가. 이런데. 비너로. 비너로 고마 이. 참 주머니 들어 오모 또 인자 카세트 끊어주고. 그래.

@ 어. 자주 내려오시진 못하겠다. 바쁘셔서. 그죠. 명절 때나 한 번씩.

# 거기도 마. 놀아도 거기 놀아야 되고.

@ 맞아요. 사. 사업.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이.

# 또 마 직원들 들이 갖고 하도 모하고. 저거 들어서. 매우 마. 손님 찾아오면 조금 가서 하고. 여게서 넘으 농사로 내가 서마지기를 짓거든. 너머 논을.

@ 응 많이 지으신다.

# 수고 지고가마. 그래 인제 쌀 갖고 부치주고. 그래가 지금 나름 유지를.

@ 일 년에 뭐 많이 쌀농사가 되세요?

# 아이.

@ 딱 먹고 나면. 딱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겠다.

# 응. 아 우리 식구 나눠 먹어. 저 시모 쥐뺨고.

@ 쌀 많이. 아. 맞아. 맞아.

# 시모로 삼십만원 나가뺨거든.

@ 아.

# 시모 장. 돈을 장만갖고 묘사 지내구로 쥐야되거든. 묘사다비. 그렇기네 딱 우리 두 집에 식구. 시 집 식구 나눠먹으면 딱 맞아. 내가 내 혼자 먹으니깐 양식이 적게 들지.

@ 그쵸. 맞아.

# 저 보이 애 둘씩 둘씩 따라가 있는데.

@ 아. 둘째 아드님 어디 계시는데.

# 둘째 거는 김해 장에 있어.

@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가까운 편인가요?

# 예. 거는 인자. 참 뭐 지사 때고 자주 오고. 저저 서울에 있는 거는 참. 설 명절에는 오지. 오지. 길도 모르고. 한 번 저거가 움직있다 카모 피곤해져. 애도 또 한창 공부시킬 시기제.

@ 카면 집에 혼자 계시면 안 적적하세요?

# 하하. 만날 그러니까네 놀러 노오뺨고. 놀로 노오고. 어데 일이 있어모 서로 도와서 같이 하고.

@ 맞아. 그 자제 분 키우실 때 젤 기억에 남았던. 기억에 남는 일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 주로 뭐라콤 그기 기억이 많이 남지. 뭐라고. 하하하.

@ 뭐 혹시 애들이 다친. 크게 다쳤다면가 그런건 없으셨는?

# 크기 다친 거 그런 건 없고. 뭐 애들 공부하라고 우리는 글사붙이 마이 했어. 저거가

스스로 하니. 큰 것도 어데 시험봤다 카모 걸리고. 작은 것도 참 시험을 오래 그새도 보모 시험을 잘 그래 이려고. 공부하라고 뭐래 샀진 안 해봤고. 넘어 농사라도 지으게네 일 좀 하라고. 우리는 커서 엄마 일 안한다. 그 소리 인제 하고. 우리는 절대 여 촌에 안 살기네네 일 안한다카면서. 몰라 너저 맘대로 해라. 저 산에 나무하러 가노모 그때는 주로 부엌에 집이 여갓고 밥해무거든. 그런데 나무하러 가노모. 나무 좀 갖고 가자 가서 뭐라 커먼 나무 좀 고마해라 고마해라. 히히. 우리 김해 있는 거는. 아유. 그래 한 번씩 머라 카든. 엄마는 불 적게 떼면 안 되나. 적게 떼면 방이 따시나. 그런말하고.

@ 하하. 그 뭐지. 환갑잔치는 하셨어요?

# 신랑이 일찍 돌아갔는데 환갑이 뭐꼬. 여자가 되가.

@ 아. 그렇다. 옛날에 진짜 어르신 그카시데요.

# 응. 남자가 안 하모 여자도 안한다 안하나.

@ 그렇구나. 그럼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드시고.

# 예. 예.

@ 응. 그럼 손주분은 아까 네명이라 그러셨어요?

# 예. 서울에 있는기 딸 하나. 아들하나. 거는 남매고 거 김해 장 여 있는 거는 아들만 돌이고.

@ 어. 어르신하고 똑같네요.

# 하하. 거는 아들만 돌이고.

@ 자손들한테 바라는 말. 뭐 다 어르신들은 다 비슷하지만. 바라는.

# 절대로 마. 내 안해준 거 내가 흘룽키 아들 몬 키아놔 거 며느리한테 바래 절대 안 되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기 놓고 살림 잘살아 주는 거만해도 내 감사하게 생각해. 지금. 제일 좋아. 절대 며느리한테 뭐 우짜노. 우짜노. 며늘아. 너저 지. 지사때가 되마 어머니 얼룽 가야되는데 뭐. 천천히 지사 모실 때 오이라. 같이 오이라. 아직 며늘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소리 안해봤다.

@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 나는 마 저거 안 아프고. 마 명 질고. 저거 아버지한테 디이서. 우짜든 명질이 마 자녀들 하고. 잘 사는 그런 거 안 바래.

@ 그냥 손주들도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

# 응.

@ 살며. 할머니도 인제. 많이 사셨지만. 더 살아야 되지만.

# 어이구.

@ 아하하.

# 더 살아. 마. 지금 죽으믄 딱 맞다. 지금 죽으믄.

@ 어른들. 만나 뵈면 다 그런. 정정할 때 내가 정정할 때 며칠만 이렇고. 앓고 이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시데. 그래 오래. 오래 질질 안 끌었으면 좋겠고. 다 자손들 생각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 맞다. 그라고 절대 참 몸 마 한 사나. 하나달 아파갖고 딱 갔으면 좋겠는. 그게 제일 소원이다. 가고 너무 안 아파뿌모 자녀들이 서우 느끼고.

@ 맞아.

# 참 지금도 참 서울에 있는 며느리. 아들 내가 다리가 안 성. 관절이 있고 항계. 서울 삼성병원에서 내가 진찰하고 가서 했거든. 그래 논끼네 약을 한시에 지 갖고 우체국으로 부치주지. 그래가.

@ 할머니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래야 손주들도 잘 되는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 손주들 지기미 뜻대로 잘된다.

@ 응. 예. 요기까지가 할머니 사셨는 거 그냥 뭐 이때 일평생 사셨는 거 다 얘기할라마 밤새서도 모자라겠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거 여쭙봤어요.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여쭙보는 거는 떡에 관련해서 여쭙볼꺼예요. 예. 떡을 어떻게 불러요. 아니면 떡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써요 뭐 이런 거 물. 물어볼텐데 고거 묻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요. 떡에 대해서.

## 2. 이용순(영양)

2.1. 유년 시절- “아버지가 일본 사람 밑에 일 안 할라고 객지에 댕기며 살았어.”

@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여쭙보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되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 이름이 고. 이용순이 아이가.

@ 나이가. 나이가.

# 나이는. 팔십 둘이. 하하.

@ 띠는요?

# 팔십둘이니끼네 용띠래.

@ 아. 좋은 해 태어나셨네요.

# 응.

@ 몇 시에 태어나시거나 뭐 이런 건 아직.

# 어어. 그거는. 뭐 몇 시에 태어난 거는 모르고. 우리가 일찍이 엄마를 기려버리노이니끼네. 고런 거 모르거든. 그래.

@ 아아.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 열한 살 때 돌아가셨나.

@ 아. 그러셨구나.

# 그런데. 그러이끼네. 그때 매. 는. 그때만 해도 뭐 오새매로 그렇게 마 아들 자잘스리 고런 거 어데 가르쳤나. 뭐 가르치도 안하.

@ 맞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 내가 예안 서촌. 예안. 예안 도산이 우리 고향인데. 서촌이 내가 예안 도산 맹 고 근처이라. 그건데도 사신동이라고. 명언은 녹전 명언이고. 녹전 명언. 사신동. 그 서촌

이라. 근데 그 동네 태어났는. 그 옛날에 그 이퇴계 선생 태났는. 이퇴계 선생이가 우리 조상이거든. 우리 이퇴계 선생. 자손이거든.

@ 아아. 이씨. 아아. 이씨니깐.

# 응. 그런데 그래 고향. 거 거서 태어났어.

@ 계속 거기서. 결혼하시기 전까지. 계속 거서 사신 거예요?

# 아이래. 거 태어나기는 거 태어났는데. 애길 짝에 데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게. 그때 말함 맹 선생. 질 했어. 근데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 일본사람 밑에 일 안 할라고. 그래 인제 참. 그 뭐 공직에 안 팔고 거가 그냥 선생. 선생 이름이 좋다고 선생. 직을 가지고 있었어. 선생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인제 저게. 그러이끼네 전부 객지에 땡기며 살았어. 그래.

@ 아. 그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겠다.

# 응. 많이 땡김 살아가지고. 한 군데 오래 뭐. 안 살고 여기저기 땡기며 살아.

@ 어. 그러면은 켈 많이 자란 지역이 어디예요? 오랫동안 생활했던 지역.

# 오랫동안 살았는 거는. 뭐 여가 좀 사고. 저가 좀 사고 했으이끼네 별로 한군데 오래 산 데가 별로 없제. 전부다. 별로.

@ 형. 형제는 몇 명 정도. 친정에.

# 형제는 우리가 구남매. 구남매데. 난 몰래. 다 모르는데. 옛날에는 나가지고 흥진 하다가 죽고. 뭐 자꾸 그래 죽었데. 죽으이끼네. 그래 내가 알기론 우리 사남매뿐이래. 우리 오빠가 둘이 있고. 우리 언니가 하나 있었고. 고래 사남매가 있었는데. 나기는 여럿이. 열남매라 그래. 그래도 대번 커다 죽고 이러이끼네.

@ 아. 맞다. 맞다.

# 그래 뭐. 자라기도 죽고 이려고. 그래 우리 오빠 둘이고 언니 하나이고 내가 막내이고. 내 알로도 둘이 낳지만은. 다 그래 못 크고 죽고. 그래 그러이끼네 살았는 걸로는 내가 막내이야. 막내이.

@ 아직도 형제분들은 다 살아계세요?

# 안 계셔. 우리 언니도. 한참 청춘에 나이 스. 서. 서른한 살에 돌아가셨어. 서른한 살에. 아들 둘 놔놓고 죽고. 우리 또 큰 오빠는 첫아들 하나 놔놓고 또. 또 죽고. 우리 언니도 아들 둘 놔놓고 그 저 끝에 낳는 아. 둘째 낳는 아가 세 살 먹었을 때 죽었나. 그 래 서. 서른 셋. 한 살에. 서른.

@ 아유. 젊었을 때. 그죠?

# 응. 서른한 살에 죽고. 그래. 나는. 그래 고 첫 애기 하나. 첫 아들 하나 놔가지고 가 돌 지내고 또 고마 아버지 없잖아.

@ 맞아.

# 육이오사변 만나가지고. 그래.

@ 그때가 몇 살이셨는데요?

# 스물한 살.

@ 아유. 못산다. 그죠.

# 하하. 응. 스물 한 살인데. 그래 참. 그래 참 이날까지 그래 살고.

@ 그면 결혼은 몇 살 때 사셨어요?

# 결혼은 열아홉 살에.

@ 그면 한 이년정도 사셨나?

# 어. 그래 열아홉 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어른들 밑에 그래 사이끼네. 뭐 오새 아들 연애한 태도 안 될껀데. 뭐. 하하.

@ 그죠. 맞아. 맞아. 일이년 사귀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뭐.

# 그래. 설음설음 하고 뭐. 뭐 얘기도 뭐 자근자근 안 해 본 일도 없고 그래. 그러이 끼네. 하하.

@ 어. 중신하셨어요? 중매결혼?

# 그렇지.

@ 옛날에는 많이 그랬으니깐.

#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 사람이 뭐. 뭐. 키가 큰. 큰 지 적은 지 뭐 어데가 어떤지. 뭐 문구멍으로라도 본 일이 없어. 하하.

@ 언제 처음 보셨어요?

# 어?

@ 캄 언제 처음 보셨어요?

# 그래. 결혼하고 처음 봤지.

@ 결혼 한. 한날.

#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전에는. 그개 문틈으로도 본 일이 없다 카이끼네. 하하.

@ 결혼한 날 침 봐. 보니까 어떻든가요?

# 어. 침. 결혼하던 날도 못 봤지 뭐. 그냥 그래 못봤고. 그랬는데. 뭐 그냥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남자들 뭐 이래 어설픈 거 보며. 저런 사람 모르고 만나면 저 우짜노 싶으디만 그렇진 안하더라고. 안하고. 안하고. 제주도 있었고 글도 좋았고. 똑똑했어. 똑똑했는데 그래 뭐 내 복이 과해 그런가. 고마. 참 그래. 그래 됐어.

@ 아.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 부모님들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 그래. 그렇게 예안 서촌이라니깐.

@ 계속 거기서 사셨구나.

# 아. 저게 우리 친정 고향이.

@ 예예.

# 예안 서촌. 예안 서촌. 처갓집 쪽이고.

@ 또 아버님은 계속 뭐 학교. 아. 학생들 가르쳤고.

# 응? 응응.

@ 엄마는?

# 엄마는 옛날에 뭐 질쌘하고 뭐. 옛날 여자 전부 질쌘 해가지고 갖다 팔아 뭐. 돈 그  
래. 저 질쌘. 질쌘하고 뭐 살림사고. 아들 키우고. 그렇지. 그렇지.

@ 카면 질쌘 해보셨어요?

# 우리는 질쌘 배울라고다 치아버렸어. 배울라고다가 고마 엄마 돌아가시뻘고 마마  
배우지도 못하고 질질 자꾸 또 이래. 아버지 따라 땡기다가 그래. 그래 열. 열아홉살  
되이끼네 고마 또 결혼시켜뿌고.

@ 어렸을 때 뭐 많이 하고 노셨어요? 어렸을 때 했는 놀이 같은 거.

# 우리. 우리 어릴 때는 판 거 없고. 뭐 가. 갖 나쁜 이거 친구들 뭐 이래 공구 받고  
그. 그게 놀이고 그래 아이쁜 집에 드가쁜 여름에 삼 삶고 겨울게는 명잡고. 하하. 예.  
예안 쪽에 질쌘이 씨거든. 질쌘이 씨거든.

@ 뭐 소꿉놀이 같은 거 안하셨어요?

# 소꿉놀이도 했제. 소꿉놀이도 그때는 마. 그제 일곱 살. 뭐 여덟 살 요때는 돌도 좀  
이. 납작한 거 있으면. 그런 거 마카 주 모다가. 그때 뭐 장난감도 있나. 전부 그런 거  
뭐 살금자리 깨진 거. 하하하. 그런 거 쥐가지고 요런 거 모다 놓고. 뭐 그래. 노. 놀고  
그랬지.

@ 그때는 고무줄놀이 이런 건 안했.

# 고무줄놀이도 했어. 어. 그. 그때 일본식 그때는 뭐. 이찌가라니. 뽕. 그런 거.

@ 맞아. 맞아. 아. 그럼 학교는 다. 다녀보셨어요 뭐.

# 학. 학. 학교는 못 다녔지 뭐. 학교는 못 다녔고. 그래 고때부터 엄마 없. 안계시니끼  
네 밥해먹고. 뭐 살림 빨래. 빨래했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없으이간에 내가 밥을  
해먹고 그랬어.

@ 언니가 많이 했겠다.

# 언니가 그게 한 분 뿐인데. 하모 그때 벌써 출가했다 카이끼네. 내보다 나이가.

@ 아. 차이가.

# 나이 차이가 많지. 나는 막내이고.

@ 중간에도 있었고 뭐 이.

# 어. 맞아. 그래 내 막내이고 우리 언니 있고. 그 중간에도 뭐 몇이 죽어 그렇지. 있고. 있다 카이끼네. 나 차이가 많았지.

@ 그면 집안일 되게 많이 하셨겠어요.

# 그러이끼네. 그러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뭐 그러고 빨래도 시키고. 그때는. 요새는 빨기만 하든 마르든 기양 갖다 입잖아. 그때는 전부 풀해가지고 씨가지고. 풀을 해가지고 이 한복도 따가지고 마카 씨가지고 풀해가지고. 또 뭐 또 다듬이돌에 두드리던지 뭐 밟던지 이래 해가지고 옷을 또 다시 꾸매 맨들어 입어. 옷을.

@ 아. 꾸며가. 그래 또 입.

# 응. 다시. 저고리 글은 거 다시 꾸매 맨들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 계시이 한복을 다시 안 입으니까네. 양복 입지만은 내 옷은 내가 그래 씨가 내가 꾸매. 내가 만들어 입고.

@ 어. 그면 어렸을 때. 그러면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만약에 달거리 하고 이러면은 그걸 다 아셨어요? 그 혼자 다 알아서. 포만한 나이에.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뭐 그래 사는 거. 하는 거. 이.

@ 그 여자들 달달이. 달거리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 아.

@ 그런 거는 누가 가르켜 주지도 않았을 께네. 아. 아빠하고 오빠하고 이래 있는.

# 응. 달거리도 나는 열아홉살에 결혼했는데 그거 모르고 결혼했다 카이.

@ 어머. 진짜요?

# 응. 그거 몰랐어. 그거 모르고 결혼했는데. 스무살 들어가지고 그 있더라.

@ 그때는 그렇게 늦게 하는가보다.

# 응. 아이. 그때도 일찍 하는 사람 있는데 난 그렇게 늦더라고.

@ 달거리 하자마자 바로 애기가 생겼겠다. 그쵸. 그러이 스물한 살에 애기.

# 그래. 몇. 몇 번 안하고 애기 생겼으이. 달거리.

## 2.2. 결혼- “술집에 고마 우리 사돈하세 이켰단다.”

@ 그렇다. 어. 그러면 결혼을 아까 전에 열아홉. 열아홉 살 때. 중매를 누가 하셨어요?

# 중매는. 우리 친정 아버지하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친구간이랬어. 친구간인데 인제 우리 아버지가 그 집에 놀러. 친구 집에 놀러가이끼네 그 집 아들이 아가 참 소면스럽고 아가 참 얌전터래. 그래가지고 그래. 보이 아가 저게 꽤 괜찮다. 이래 싶었단다. 그래 그래자 인제 술 친구래노니 한 자리 앉디 글도 짓고 시아버지 또 글이 좋았거든. 옛날 그 한문이 좋았고. 우리 친정 아버지는 한문도 좋고 뭐 참말로.

@ 맞아.

# 여. 여계 참 이모 아자. 아시지만은 참 고루 배워가지고 저 아는 게 많았고. 그래. 그랬는데 그래 인제. 같이 글도 짓고 그래 이 술자리 앉아 술 한 잔 잡숫고 이랬데. 그래 술집에 고마 우리 사돈하세 이켰단다. 하하하하. 그래서 그래 되가지고 그래 했는데.

@ 그러면 특. 특별하게 뭐 시간 뭐 중. 중. 매파가 왔다갔다 이런 것도 없었겠다. 그쵸.

# 어. 없었어. 그래 우리 오빠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한테 그럼 부자간에라도 그런 의논도 해봐야 하는데 의논도 안하고 우리 아버지가 고마 혼자.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가 우리오빠가 동생을 내가 키워 놓으니까네 아버지가 저게 내 있는데 의논도 없이 그래 했다고.

@ 섭섭하면서. 맞다 어렸을 때부터 이래 키워는데.

# 그래. 그 집에 시누가 너이고. 시동상 하나 있고. 또 시어마이 시어바이 있고. 그래

살림살이는 뭐 없고. 그런데 보내면 골탕 맥일라고동 그런데 보낸다고.

@ 맞아. 맞아.

# 그래 우리 아버지는. 사우 될 아만 하나 보고.

@ 맞아. 맞아. 아이고. 그 사우 보고 보냈지만 이년 밖에. 아유 참내.

# 그래. 그랬다.

@ 그럼 그때는 뭐 결혼 예물 같은 거 있었어요?

# 있었지. 결혼 예물 있었지만은 우리들은 그래 할 형편이 못되가지고 예물도 모하고 그냥.

@ 반지 가락지도 안하셨어요?

# 그거는 결혼식날 인제 거 함 오는데. 함오는 데 뭐 그때는 비내. 비내하고 가락지하고 그거 그런 거. 옷태하고 그거만 왔지 뭐. 그때도 있는 사람이사 잘하잖아. 뭐.

@ 맞아. 응. 카면 혼례는 전통혼례 그런 식으로 했어요?

# 옛날식으로. 맹 그래.

@ 옛날식으로.

# 응. 맹 뭐 옛날식으로 하는 거 안 봤나. 혼례.

@ 예. 보긴 봤어요.

# 그래. 그래. 맹 그래했지.

@ 옛날에는 경남 쪽에 조사를 해보니깐. 결혼하고도 친정 쪽에서 한 일 년 살다가 남자 쪽에.

# 어. 옛날에는 잘한 사람은 전부다 묵신행이라고 삼년 묵는 사람도 있었어.

@ 어머. 삼년씩이나.

# 어어. 혼례 와 쳐가지고. 친정 놔두고 삼년 만에 데리고 갔어. 살림. 삼년 만에 신행

을 갔다 카이. 시집에.

@ 어. 왜 그렇게 하는가요? 어리니깐 그런가?

# 그때는. 뭐 응. 그때는 어리니깐 아이고. 부잣집엔 다 그랬어. 그래놓고 신행 묵으면 일꺼리가 많아. 신행 묵으면 신부 짝에서 여름살이를 베. 베를 가지고 막 여름옷을 시집 식구 옷을 싹 다 해보내야 되고. 또 겨울계면 겨울옷 해보내야 되고. 어. 그래고 또 문안지라고. 뭐 또 뭐 편하시냐고 또 막 써가지고 또 다 두루마리 해가지고 보내고.

@ 편지 같은 거 보내야 되고.

# 어. 그래 얼마나 그게 애렵고. 그랬어. 그래. 그래 옳기 참참. 차례 채리고 하는 사람은 그래 했어. 그랬지만 그때 우리 저럴 때만 해도 또 그래 한 이는 멍 했어. 했지만은 그것도 자기 형편에 따라가지고. 뭐. 내사 뭐 안부모도 없고 그런 사람도 그런 데로. 뭐. 그. 그래 당일. 혼례 치던 날에. 아즉에 혼례 쳤었으면 저녁때 갔지 뭐.

@ 어. 마음이 어떠셨어요?

# 마음도 뭐.

@ 집안에 살림을 그래. 하.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알아서 하실려면.

# 아. 그래 내가 갈 즉에는. 내가 갈 무려는. 우리 오빠가 결혼해가지고. 그때 왔어.

@ 아. 언니가 있었구나.

# 아이. 오빠. 오빠가. 언니는 아니고.

@ 그니깐. 시아. 올케 언니.

# 올케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똑같았어. 내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 그래도 좀 낫다. 마음이.

# 올케가 살림 사이끼네. 그렇고.

@ 그 혼례 했는 날. 그 날 기억나세요?

# 혼례 했는 날은. 내가.

@ 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 음력으로 그때는 음력책. 음력으로 사월. 사월 사일날인갑다. 사월 사일날 음력을 했지. 그래 열아홉살 때.

@ 응. 아침 일찍 혼례 치르는 거예요? 카면 옷을 예쁘게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 그래. 옛날에는 그짜서 인제 시집짜서 인제 빨간치매 파란 저고리 인제 옷태 해가 오잖아. 그래 그거 입고 혼례치고 그 옷 그대로 입고 그래 가만 그래 새덕질 하고 앉아있고 그랬지.

@ 어. 그러면은 그날 그 결혼식 할.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어떤 음식을 집에서 했어요?

# 그때는 저게. 오새는 뭐 결혼식 가면 뭐 예숙장 가 이랬지만은. 그때 집에서 하는 거는 떡 같은 거는 아했거든.

@ 아.

# 안하고 인제 뭐. 묵하고 뭐 두부하고 이런 거는 하고. 뭐 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이 잔채꾼들도 국수. 국수 한 그릇 씩. 국수 한 그릇 씩 놓고. 간장 놓고. 뭐 콩나물 무쳐가지고 놓고. 어. 그래고 인제 요런 묵기. 묵기접시라고 있어. 인자 고거. 고거다가 인제 뭐 저게. 콩치나 뭐. 뭐. 뭐. 그런 고기 이래 한 동가리 놓고. 뭐 두부 굽은 거는 한 동가리 놓고. 이런 전. 전부친 거 그거나 줌 놓고. 그거 가지래. 그. 그런거 줌 놓고 그래 마카 이 접시에. 그거 한 접시 놓고는 고마 국시 한. 한 그릇 하고. 간장 한 종지 하고. 하하.

@ 근데 떡같은 거는 안 해드셨는가.

# 예. 그때 잔치에 떡 안했어. 우리 경상도 풍습은.

@ 어머. 그렇구나.

# 근데 오새는 뭐.

@ 예. 떡 같은 거 다 올리잖아요. 예예예.

# 응. 우리 할 때 떡은. 잔치엔 떡은. 그래 감주하고 그때는 부조를. 부조를 전부 돈으로 안하고 전부 음식을 했거든. 그래 부조 들어 오는 게 전부 감주로 해가지고 한바지 이고 오고 그래아임 또 묵해가지고 또 한바떼기 퍼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전부 음식으로 다 했어.

@ 아. 그렇구나.

# 또 술. 막걸리 해가지고.

@ 아. 술 가져오고.

# 막걸리 해가지고. 다. 한 두어씩 이고 오고. 그래. 전부 그래. 감주하고. 그래 막걸리 하고. 뭐 묵하고 이런 거.

@ 그 떡을 안 하니깐 신기하네. 그죠.

# 떡을 안 해.

@ 결혼 후에 그 살림살이는 다 시댁어른하고 같이 사셨어요? 첨에는?

# 응. 그때는. 그때는 같이 산 이도 있고 두. 저 지차는 멍. 저 처음에는 멍. 한 어른들 가가지고 인제. 지차는. 말이는 안 내놓고 같이. 어른들 같이 살았지. 그래 나는 나간 일이 없고 같이 살았지.

@ 할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였어요?

# 누가?

@ 나이가?

# 나이가.

@ 남편하고.

# 아. 남편은 두 살 차이. 나. 나 열아홉 살이고 거 스물한 살.

@ 스물한 살. 어.

# 스물한 살 그럴 때 고등학교 땡기. 그때는 학살정치하(?). 고등학교.

@ 그러네요. 학교 다니는데 그래.

# 응. 공부 뭐 했었고.

@ 그러네요. 그때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응. 그러면 시집. 그때 시댁식구들이 몇 명이나 같이 사셨어요?

# 시댁식구. 시누가 너인데. 켈 맞이는 하나이. 하나이서 출가했고. 다. 다 있더라. 여 여 완 아는 이 모두. 바로 다음 시누거든. 여 있고 다 있었어. 그때.

@ 아.

# 시동생도 다 있었고.

@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 시동상. 시누 서이. 그래 있었어.

@ 아유. 가서 켈 먼저 시집살이 할 때 어려운 게 뭐였어요. 힘드신 거.

# 힘든 거 마. 그러이끼네 그때는 뭐 넉넉지도 안한 거.

@ 응. 아 힘드신 건 없으세요. 음식이나.

# 음식. 뭐나 밥해먹고 뭐 그냥 빨래 씻고 그런 거 하지. 전화 받고 하지.

@ 시집살이 따로 안하셨어요?

# 그게 시집살이지. 뭐 탄 게 있나.

@ 그 뭐 켈 힘들 거나 서러운 거나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 하하하.

@ 저는 뭐 진짜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래 딱 섞여가 있을라 카이까. 켈 처음에는 그게 켈 힘들던데요.

# 하하하.

@ 응. 뭐 특별히 뭐 그니깐 시누사이. 시누하고도 관계가 사이가. 안 좋거나.

# 시누하고 사이 안 좋은 그런 건 없었다. 응. 손아 시누는 철이 없으이 그런 갑다 하고 뭐. 어 그래 봐주고. 여기 이 이제 이모하고 내가 나이 동갑이거든. 저 오빠하고 두 살 차이래거든.

@ 그러네. 어.

# 그래 나이 동갑이라 말이야. 거 뭐 니 올케 내 올케 그래본 일 없고. 서로 그래. 의논 좋게 그래 살았지. 뭐 싸우고 이리진 안했다고.

@ 시어머니하고 관계는.

# 시어머님도 뭐 우에라 카든. 뭐 그대로 하이끼네. 뭐 우에라 내. 내가.

@ 이렇게 잘. 잘 하시니깐요. 별로 말씀 안하셔서. 그냥 한 번 하면 이래 다 알아서 하셨을 것 같애. 그죠?

# 그래.

@ 막 생각도 많이 하시고.

# 그래. 시어마이하고도 뭐 싸운 일 없고. 뭐 시누들하고도 뭐 갈군 일 없고. 그래 그래.

@ 시어머님이 그러면 언제쯤 돌아가셨어요?

#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적은 내가 육십. 육십. 내 생일. 육십 생일 지내고 열흘있다 돌아가셨나. 팔십 아홉에 돌아가셨다.

@ 그동안 계속 같이 사셨어요?

# 같이 살았지.

@ 남편은 그래 그카고 갔는데. 어.

# 내가 남편 없고 전부 시어머니 하고. 쪼맨한 방에 그래 같이 지냈다.

@ 아유. 정말 대단하셨. 대단하셨다.

# 그래 그때는 이래. 사변 후에 사마 뭐 있는 게 있나. 뭐. 아무것도 없으이. 그래 사는데 맨날 일하다가 들어오마 시어머니 발채 요래 들시고 고래 자고. 잠도 한 번 이래 뭐 따로 제대로 한 번 몬 자보고. 하하하하.

@ 어. 그 당시에는 재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

# 어. 있지. 재가한 사람이서. 우리나라 재가 한 사람이 많아. 많고. 별로 없어. 저게 안한 사람이.

@ 그거 근데 어떤 마음으로.

# 그래도 그때는. 그때만 해도 인제 우리가 참말로 그 유교사상이 있어가지고 마. 옛. 옛날에는 인제 재가했다 카든 친정에 못 갔거든. 그러이끼네 인제 그래 내가 그래 그냥 이래 사이끼네 친정 사촌이나 삼촌이나 뭐 오촌이나. 뭐 그런데 가면 막 대우를 해 주고 이랬지만은 하마 재가했다 카든은 오지마라는 거라. 오지마라 그기라. 그러이끼네 그래 또 내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 뼈를 타고 나가지고 그럴 수가 없지. 인제 이런 거 곁어 가지고 그래그래 살다 보니 살았는 거지. 하하하하.

@ 아유. 참. 아. 그러면 결혼하시고 한 번도 시집 안 가보셨어요?

# 결혼. 결혼한 후에?

@ 예. 친정에.

# 친정에?

@ 예. 결혼하고 나서.

# 결혼하고 나서 왜 한 번도 시집. 장모도 친정 안 가볼 수 있나. 그거 가. 가도. 당일 땡겨 오고 막역하이끼네. 뭐 하룻밤 자고 오고. 그런 거.

### 2.3. 출산- “젓꽃지가 안 나와 참말로 죽일 거를 억지로 살렸어.”

@ 아. 그러면은 왜 아까 전에도 뭐 좀 말씀하셨지만 그면 얘기는 몇 명이.

# 애기 첫 애기 하나 낳잖아.

@ 아들. 아들이고?

# 응.

@ 그게 스물한 살에 낳으셨어요?

# 응. 스물 한 살에 낳지.

@ 어. 뭐 이렇게 태몽 꿰는 거 기억나세요?

# 아. 태몽 꿰는 거는 뭐 별거 없고. 그냥 뭐 이 고지 꿈 꿰다 카는. 고지.

@ 고지가 뭔데요?

# 바가치. 옛날에는. 고지 숨귀 가지고 고지박 따가지고 다녔잖아. 그거로 인제 고지 박을 인제 열었는 거를 고 덩굴째로 이래 가져와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이거 고지를 딱. 한 개가 달랐는데. 덩굴째로 가져와가지고 이 고. 이 고지가 잘 익었나. 잘 췌나 안 췌나 봐라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 그래 내가 아이고 이 참 잘 췌네요. 이카면서 그 카고 그래 했는 거 그거뿐이래.

@ 아. 그카고 나서 뭐 얘기 가졌을 때 특별하게 먹고 싶었던 거 있었는.

# 없었어. 있어도 말. 먹고 싶단 말도 못하고.

@ 맞다.

# 또 없고. 뭐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이끼네 먹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먹고 싶기는 저게 욕미.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뭐 그런 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렇게 먹고 싶어도 뭐 그때사 뭐. 뭐 임신되가 그게 먹고싶은지 그거를 몰랐거든. 몰래가지고 뭐 먹고 싶단 소리도 안하고 내 혼자만. 그러게 왜 그렇게 왜이래 먹고 싶노. 그래 생각.

@ 입덧은 심하셨어요?

# 입덧도 심하진 안했지. 별로. 그거. 그저 보통. 뭐. 뭐 이래 김치같은 거 요 왜 냄새가 이. 이렇게. 이래 냄새가 시루노. 이라고 그래. 그랬지.

@ 출산 전에 준. 애. 애기 준비물이나 준비해 두신 거 있으셨어요?

# 애기 준비는 그때 뭐 없으이. 뭐.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지싶다.

@ 응.

# 난 뒤에 뭐. 했지 뭐.

@ 아기 옷 같은 거는 미리 준비하고.

# 옷 미리 안했다. 해놓은 거 없었다.

@ 어. 산후조리는요.

# 산후조리는 뭐 시어머님 있으이끼네 했고.

@ 응. 캄 며칠 누워계셨어요?

# 응?

@ 산후. 애기 놓고 며칠 누워계셨어요? 어른 계시면 오래 누워있지도 못하잖아요.

# 응. 그래도 손이. 해줄 사람 없는. 없는 사람 보담은 조리를 잘하고 했지. 해줄 사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찍이 나와야 되고 하지만은. 해줄 사람 있으이끼네 산후조리는 뭐 오래했지. 오래 해. 그래.

@ 애기 낳으면서 막 고생하신 거 없으세요?

# 고생 많이 했지. 뭐. 내 젖 때문에. 젖이 젖꼭지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 그거는 많이 빨리면 나온다 그러던데요?

# 그래. 그래 나중에 나왔어. 나왔는데 처음에 인제 그러고. 요새 매로 분유가 없으이끼네 그래그래 못 매겨가지고 그래가 애 무. 아 참말로 죽일 거를 억지로 살아.

@ 아이 그렇다. 지도 못 얻어먹고 맘껏 못 먹고.

# 그래. 젖은 다 흘러 내빠리고 아는 못 먹고.

@ 그때도 뭐 백일잔치 이런 거 하셨어요? 백일 났다고.

# 어. 잘한 이는 백일잔치 했지 뭐.

@ 어. 따로 집에서 안하셨어요?

# 백일잔치 뭐 특별하게 한 거도 없고.

@ 응. 돌잔치는.

# 돌잔치도 그때 뭐. 육이오 만나가지고 피란가고 하는데 돌잔치 할 여게 어딴노. 뭐 그거도 없고.

@ 아. 그때 육이오 때구나.

# 응. 육이오 만나가지고. 육이오 만나가 피란 나가고. 똑 벌이 난 놀이 하는 거 때로. 아 온 사람이.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어테로 가꼬. 우린 어테로 가꼬. 마 나서가지고 막. 사람이 막.

@ 아. 그러면은 그 결혼 했는 동네가 처음에 딱 시집 살아갔는 동네가 무슨 동네였어요?

# 동네가.

@ 시댁. 시댁이.

# 시댁이가. 저게. 거게가. 거가 강원도?

@ 응. 그 쪽까지 가셨어요?

# 강원도 거 뭐고.

@ 응. 그러면 피난을 어데까지 내려가셨는데요?

# 피난을 여 경북까지 나왔지. 저게 저 경북 영주. 영주꺼지. 나오고. 우리 뭐 여자들 이 뭐 아 딸렸고 멀리 가내나. 그꺼지 나오다가 고마 내 또 참 그거 뭐로. 아군이. 인 민군이 몰려 드가 아군이 쳐들어 오이끼네 고마. 그래.

@ 거서 머물러. 어. 그럼 거서 피난 내려올 때 뭐 가지고 내려온 게.

# 아무것도 못 가왔지.

@ 양식 같은 거.

#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아만 업고 와가지고 저저 친정집에 와가지고 얻어먹고. 그래. 그랬어.

@ 아. 아이고 참내. 그러면 자식. 그 자제분 키우면서 켈 힘들거나 어려웠던 거는 뭐 어떤 거 있는데요.

# 그래. 뭐 학교 시킬 때 켈 어려웠지. 어릴때사 뭐. 밥만 얻어 먹이면 되고 밥만 먹고 컸지만은. 그래 커가지고 학교 공부 할 때 되니깐 그게 어려웠지. 뭐. 그때는 오새는 여자들 할 일 있고 돈 별지만. 그때는 별이라고 없었어. 남으 삭바지. 삭바늘 시켰는. 바느질 시켰는 거도 그런 것도 잘 없거든. 자기도 하기 애려운데 누가 돈줘가마 남 삭바늘. 시캐는 사람도 없고. 식모 드릇는 사람도 없고. 그래. 그래 벌어 먹을 길이 없다. 없는 삶이. 그래 애먹었다.

#### 2.4. “세상 좀 어려운 기 있어도 내가 고마 이해하고 용서하면 편해.”

@ 그러면은 손주들이 몇 명이세요?

# 뭐가?

@ 손주.

# 내 손자? 손자 한 명이고 손녀 둘이고.

@ 아. 카면 또 증손자하고 막 많겠다 그죠?

# 어. 그 뭐 손자 손녀씩 다 하마 결혼해가지고 가들이 낳가지고. 손녀 둘이는 한 집에 아들하나 딸 하나고 남매씩이고. 우리 손자는 인제 아들하나 딸 하나. 참 딸부터 놓고 딸 하나 아들하나 낳고 끝애가 또 딸래미 하나 더 놓고 그래. 고 서이.

@ 나중 자손들한테 바라는 바가 뭐가 있으세요?

# 자손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저 뭐 저 신앙생활이나 잘 하고 뭐 그래 바르게 잘 사는 거. 그거지 뭐. 건강하게 그래 바르게 잘 살면 되는 거.

@ 다시 태어 나. 나시면 뭐 해보고 싶은 일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 다시 태어난다면 난 그런 생각 안하고. 난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는 그거 뿐이

래.

@ 아. 맞아. 거 가면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 저 천국이 있잖아. 우리는. 그래.

@ 응. 응.

# 그러이 이 세상을 좀 어려운기 있어도 섭섭한 게 있어도. 내가. 뭐 이래 사다 보든 뭐 이래 받잖는 게 있잖아. 그게 그래도. 내가 고마 이해하고 용서하든 고마 편해. 아무래도 그 뭐 싸우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러이끼네 내가 용서하고 다 뭐 어려운 거. 내가 들고 내 스스로 걱정 안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람 인물을 보는 기 아이고 니 중심을 바르나 안 바르나 중심을 보시거든. 그러이까 내가 뭐 용서하고 내가 속고 뭐라도 그래 살마.

@ 손해보면서.

# 어. 그래 내 중심을 보시마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뭐 억울하게 그래 안하거든. 아유 이 세상. 이 세상사 뭐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싶고 그러이끼네 만족이 없어.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대로 걱정이고 이 세상은 만족도 없고 어데라도 다 뭐 우에라도 닳고. 그러이끼네 뭐 이 세상 그저 그저 하루하루 이래 사는 거고. 다음 세상 천국 가고. 그게 그래. 그래. 그게 뿐이고 그래 그렇지.

@ 어디 편찮으신 데는 많이 없으세요?

# 편찮은. 참 아픈 데는 내가 그래도 뭐 다른 사람 대마.

@ 건강하신 편이세요.

# 응. 건강한 택이고. 혈압이 좀 높으. 높으다 그래가지고 혈압약 먹고. 나는 아파도 병원에 가본 일은 별로 없고. 전부 아주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을 다 고쳤어. 하느님께서 다 고쳐줬어. 기도원에 가면 다 고치. 기도원에 가 고치고. 다 고치고 그래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굶주릴 때 맥여 주시고 내가 살아오는 거 보든 하나님 은혜 아인게 하나도 없다 이카고. 하하하. 응. 그래 앞으로도 마.

@ 응. 그래도 마음이 편하시다 그죠?

# 응. 항상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살고 있어. 내가 남 보기에는 뭐 재산 물어 놓은 것도 없고. 없지만은 내 마음에 천국이다. 마음에 천국이다 이래 사이끼네 아무 남사시러운 것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래 이 세상. 참 저 낙원에 가면 그게 최고 영광이지 뭐 딴 거 뭐야.

@ 그 할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그러면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 전쟁에 나가 돌아가신 것 같으면서. 좀 보상이라도 타지만은 피난 간다고 육이오사변 때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다 카이끼네. 그러이끼네 들어온다고 사뭇 기다리니깐 안 들어오이끼네 죽었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 제사도 지내셨나요?

# 응. 어. 제사는 안 지내고. 우리가 교회 믿는 사람 제사 지내나. 우리 추도식 하고.

@ 예. 어.

# 응 추도식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뭐 죽었다 소식도 못 듣고 하이끼네 뭐. 그저 이 세상 사람 아인. 아이라고 생각 나면서도 살았다고 생각 안하고 뭐. 죽었다고도 못 믿고 살았다고도 못 믿고 그래 되지. 그래. 그래 그래 살아나왔는데. 고.

@ 그럼 저저 위쪽에 올라가서 사셨는. 살아 계셨는가?

# 그래. 딸이 하나 왔잖아.

@ 응. 아직까지 살아계신지.

# 아이구. 모르겠어. 우째 나도 모른다. 그래. 저거 아버지가 지지 나던 해 없. 없다 카이끼네. 지 나던 해 없으이끼네 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 지금 살아계셨으면 팔십다섯.

# 살았으면 팔십 너이쯤 됐겠다. 근데 뭐 안. 안 살았지. 뭐 지금 살았겠다.

@ 나이가 많으시. 그죠.

# 나도 많고 응. 안 살았겠지.

@ 응. 그래도 사는 거 이래 돌아 가셨는. 돌아. 돌아 보시면서도 마음이 편하시다니깐. 할머. 마음 이 뭐 크게 미련 남는 것도 없고 편하시다 그러니깐요. 그쵸?

# 응. 우리 나는다 아마 전부다 근심걱정이고 뭐고 아이고 하느님 아시지 마고 땀겨 뿌거든.

@ 응. 마음이 편하시니 좋다.

# 그래. 편안하게 사니까네 이제끔 이제끔 참 그래 그렇기 어려움 없이 살아.

@ 남은 여생 이렇게 바라는 게 있으세요?

# 바라는 기 그래 아들.

@ 아들 말고 본인 생각해서.

# 아 내가. 내가 남은 여생 내가 별로 바라는 게 없어.

@ 크게 그냥 안 편찮으시다가 조금.

# 응. 맞아. 그거 이래 사다가 밥 잘 먹고 고마 자다가 고마 이래 그래 가는기 편치. 아파가지고 본인 애먹고 후손 애 맥이고 이러는 거. 그렇지 안하다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 그게 켈 좀 자식에 맞춰. 어르신들이 다 바라는 거 같아요.

# 그렇죠.

@ 오래 건강히 사세요. 감사합니다.

## 제 4 장 조사된 어휘

### 1.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우리나라는 남계(男系)를 중심으로 가족제도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 남아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처럼 여성을 따라 다녔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아도 별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다. 이처럼 여성들의 삶에서 ‘아들 낳기’는 중요한 숙제거리였지만 아이의 성별을 임의로 고를 수 없는 문제였으므로 여성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 거기서 다양한 기자의례 풍속이 나타났다. ‘기자’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들 낳기를 기원함 또는 그런 풍속을 말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아들을 원하는 부인이 산천(山川)이나 신에게 빌거나 아들을 낳은 산모의 옷을 얻어 입는 일 따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임신에 대한 기자의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영험한 대상에게 비는 것’과 ‘아들을 잘 낳는 여성의 기운 빌기’ 등이 그것이다. 영험한 대상에게 비는 것을 ‘치성기자’라 하고, 아들 잘 낳는 여성의 기운을 비는 것은 ‘주술기자’에 포함된다.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에 관한 조사에서는 조사 어휘를 기자 대상과 기자 행위에 대한 어휘로 분류할 수 있었다.

#### 1.1. 기자 대상

여성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 찾은 영험한 기자 대상은 명산, 대천, 거암, 거목 등 자연물과 ‘지양’ 또는 ‘삼신’<sup>4)</sup>과 같은 가신(家神)<sup>5)</sup>이 있다. 여성들은 영험한 대상에게 정성을 다해 3일 기도, 7일 기도, 백일 기도, 또는 정해진 날에 기도를 드렸다.

4) 아기를 접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산신02(産神)·삼신령·신09(神) 「4」·제왕02(帝王). (표준국어대사전)

5) ‘가신’은 집을 지키며 집안의 운수를 좌우하는 신. 성주신, 터주신, 조상신, 삼신, 조왕신(寵王神), 문신, 엽신, 축신(廁神) 따위가 있다. ≡가택신(家宅神). (표준국어대사전)

- ⇒ {삼신할마이한테} 저 가 빌었쥬.
- ⇒ 빌기도 하. 빌. 빌어도 그. 옛날에 많이 안했더니. {산에 절에가 빌어가}.
- ⇒ {절에 기도하러} 많이 갔어. 백일. {백일 기도라고}.
- ⇒ {삼신. 삼신할마이라} 카면. 그래.
- ⇒ {삼신할마님} 우에든동 그저 보살펴 주시고 명주고 복주고 아무 허물없이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레.

제보자들은 기자의 대상을 ‘삼신’을 많이 얘기하였는데 ‘삼신’은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을 말한다. 이 삼신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삼신할머니’라는 말을 쓰는데 경상도에서는 ‘삼신할머니’를 ‘삼신할마이, 삼신할매, 삼신할마님’이라 표현을 하고 있었다. 삼신 이 외에도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정성을 다해 100일 기도를 많이 올렸다고 한다.

## 1.2. 기자 행위

기자 행위는 기자 대상에게 치성을 다하는 방법과 아들을 잘 낳는 여성의 기운 빌기에 관련된 행위가 있다. 기자 대상에게 치성을 다하는 방법에는 초하룻날에 상을 차려놓고 가신에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빌거나 시어머니가 대신 빌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이나 강 등 자연물을 찾아가 빌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 외에도 아들을 잘 낳는 여성의 속옷을 빌려 입고 다니거나 그 여성의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 아들을 잘 낳는 기운을 빌려는 행위를 하였다.

- ⇒ 저게 그릇처럼 {물 떠놓고 그래 빌었잖아}. 요래.
- ⇒ {음식 차려놓고도} 해요.
- ⇒ 피옷을. 그거를 자기가 입는데. 자기가 입어봤는 매로. 자기가 {그거 입고. 그 진자리 앉아가지고 미역국을 먹고}. 그. 그래라 카데. 그래고 하든 자기도. 아들을. 인자 아를 낳는다.

제보자들의 이야기처럼 기자 대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거나 물을 떠 놓고 빌기도 하고 아들을 금방 출산한 여성과 함께 산후 조리를 한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피옷 입고 진자리 앉아 미역국 먹다’는 아기를 가지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아들은 낳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산후조리를 하면 아기를 원하는 여성도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외에도 산모가 출산 시 입은 피옷을 빌려 입어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 ‘피옷’은 산모가 출산할 때 입는 옷으로 출산 시 아기가 나올 때 그리고 태반이 나올 때 피도 같이 나오는데 이 때 산모가 입은 옷에는 피가 묻는다. 그래서 피옷은 검은 치마나 쪽물 들인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 산모가 출산 시 입은 옷을 ‘피옷’이라 하는데 이는 출산 시 피가 묻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진자리’

는 ‘아이를 갖 낳은 그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를 낳는 자리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출산 자리는 땀이 많이 묻어 있어 진자리가 되는 것이다.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에 관해 조사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자 대상	기자 행위
삼신, 삼신할마이/ 삼신할마님/ 삼신할매, 부처님	백일기도 하다, 음식 차려놓다, 물 떠놓고 빌다, 피옷 입고 진자리 앉아 미역국 먹다, 피옷 빌려 입는다

## 2. 임신, 출산 준비물

임신을 하고 출산이 다가오면 출산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두는데 여기에는 아기를 위한 준비물과 임산부를 위한 준비물,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조사된 어휘에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어휘가 많이 나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어휘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 2.1. 아이를 위한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로 대표적인 것은 배냇저고리와 기저귀, 포대기 등이 있다. 이것을 지칭하는 어휘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조금씩 달랐으나 물질이 풍요롭지 않은 시기에 임신, 출산을 한 할머니들은 특별히 아기를 위한 물건을 준비하기 보다는 쓰던 물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2.1.1. 이란저고리(배냇저고리)

깃과 셔를 달지 않은 갓난아이의 옷을 ‘배냇저고리’라 한다. ‘깃저고리, 배내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보자들은 ‘배냇저고리, 저고리, 애기저고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경북의 제보자들은 배냇저고리를 ‘이란저고리’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 ⇒ 애기 옷은. 옷은 그전에 와 담안있나. 담. 담베라고 보풀보풀하이 폭신하이. 그거를 인자 사가지고 {애기저고리}. 무슨 {배냇저고리로}. 그래 만들어가 입했지.

- ⇒ {저고리}. 만들고.
- ⇒ 그냥 요래 두대개 싸서 뇌똥다가 삼일 만에 씻개 가지고 그래 {이란저고리} 했어.
- ⇒ 얇고 헛옷 뜯어가지고. 그래 맹글어가지고 입히고.

배넛저고리는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후 보풀이 일게 한 직물로 만들어 촉감이 부드러운데 경남의 제보자는 이를 ‘담, 담베’라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담’은 ‘짐승의 털을 물에 빨아 짓이겨 평평하고 두툼하게 만든 조각. 담요 따위의 재료로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보자는 부드럽고 폭신평신했던 용과 같은 면으로 된 천을 담베라 하였다. 보드라운 면으로 배넛저고리를 만들거나 따로 천을 준비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른들이 입던 얇고 헛 옷을 뜯어가지고 배넛저고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 2.1.2. 기주개(기저귀)

어린이의 똥오줌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리 사이에 채우는 물건을 ‘기저귀’라 하는데 천이나 종이로 만든다. 제보자들은 기저귀라는 어휘와 함께 ‘기저구, 기주개, 기저기’라는 경상방언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경북의 제보자들은 ‘기저구, 기주기’라는 어휘를 사용하였고, 경남의 제보자들은 기저귀와 함께 ‘기주개’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 ⇒ 준비 해놓는 게. 아 기저귀. 뭐 저저저. {기저귀도} 알긋은 헛 옷 떨어진거 그런 거가 기저귀 했지. 저거 저. 어데 가재 그런 거가 딱 해야. 참 그거라.
- ⇒ 그런 흔히 뭐 {기저기} 글은 거 준비하고. 이거 나쁜 입힐. 뭐.
- ⇒ 옛날에사 뭐 {기저구} 있나 뭐. 우리 아들 키울 땐 {기저구} 없으니까. 그저 닦아가지고.
- ⇒ 그것도 똥 싸고 하모 또 우찌 {기주개도} 또 마. 알긋이 말아났고. 그 말라가지고 입히고.
- ⇒ {천기저귀는} 옛날에 앞 고무줄. 매가지고 그렇게 저거 치웠다.
- ⇒ 그래가 이 차는 기나 있다. 차는 것도 엄으이 {삼베 기저귀}. 삼베 안했나. 삼베 그거 하. 하고 했는데.

기저귀는 부드러운 면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없던 시절에는 헛 옷 떨어진 것으로 준비했으며 이나마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바로 바로 돌려 가며 사용하였다고 한다. 기저귀는 고무줄을 이용해 ‘앞 고무줄을 매 가지고 치웠다(채웠다)’고 한다. 따라서 기저귀는 ‘기저귀 치우다(채우다), 기저귀 차다’ 형식의 연어로 많이 표현하였다.

‘기저귀’의 경남방언에는 ‘계주기, 기저기, 기절기, 기조기, 기주개, 기지기, 기지리, 사빠, 사파, 사뚜디기, 살깃, 지저기’ 등의 어형이 있다.(방언검색프로그램)

### 2.1.3. 애기이불, 어울대(포대기)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을 포대기라고 하는데 이는 아이가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쓴다. 포대기의 모양은 요즈음 것처럼 직사각형의 네모 천에 위쪽 귀퉁이에 긴 끈이 두 개 달린 모양이 있고, 더운 여름에 쓰는 형태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네모 천에 네 쪽 귀퉁이에 모두 긴 끈이 달린 형태가 있다. 포대기에 관련된 어형은 지역별로 달랐으며,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하위 범주의 어휘가 조사되었다.

- ⇒ 으응. 여는 전부 {애기이불이라} 그래. 포대기라 안 그러고 애기이불. 요즘은 포대기 끼린다 카고.
- ⇒ 아. 그거는 {이불}.
- ⇒ 애기 이불. 또 저저 아 {어울대}라고 {어울대}.
- ⇒ 그냥 요래 {두대개} 싸서 놔뒀다가 삼일 만에 씻개 가지고 그래 이란저고리 했어.
- ⇒ 미리 옷 놔놓기 전에 {두대개}. 여름하는 사람 별로 없어.
- ⇒ 그기 옛날에는 띠라 띠. 옛날에는 넉덕하게 해놔는 거 {띠라} 했잖아.
- ⇒ 그개 {애기띠라}.
- ⇒ 애기 {띠개}.
- ⇒ 그건 인자 안에. 안에다 솜을 놔가지고 그래 인제 이거 매는 매는 꼬네끼를 둘러 꼬네끼를 해가지고. 그래 매가 업고 땡기고.
- ⇒ 그거는 인자 베를 갖다가 베 이래 한 개가. 베 이래 안 있을제. 요만치 여다가 이래 이래 되면 인자 문지른다. 이래 베서 아 등드리 데일만치 끈트리 문드리거든. 문지르거든 여것하고 요것하고 짜매고 요것하고 요것하고 짜매고. 또록하이. 고래 거다 짜매가. 고거는 고거해가 {어울대고}.

경남에서는 포대기를 ‘애기이불, 이불, 어울대’라고 한다. 애기이불은 요즘 포대기와 형태가 같은 것으로 ‘이불’이라 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이것을 간소화시킨 ‘어울대’가 있다.

어울대는 여름 포대기를 다르게 이르는 말로 아기 몸에 닿는 천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업을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귀퉁이에 긴 끈을 달아 아기를 업고 아래, 위로 묶어 아기를 업었다. 경남 의령에서는 겨울에 쓰는 포대기를 이불이라 하였고, 여름에 쓰는 것은 어울대라고 하였다. 제보자는 ‘업을 때는 쓰는 것’이라서 ‘어불대, 어울대’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어울대’는 ‘/업-/+/-을-/+/대/’ 구조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경북에서는 아기를 업는 포대기를 ‘두대개, 두디기, 띠, 애기띠, 띠개’로 부르고 있었는데 겨울에는 ‘두대개, 두디기’를 여름에는 ‘띠, 띠개, 애기띠’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애기띠는 경남의 어울대와 같은 모양이다.

포대기는 경상도에서는 ‘끼리다, 끼린다’라는 동사와 연어 구조를 취하고 있어 ‘포대기로 엮다’를 ‘두대기 끼린다’라고 표현한다.

## 2.2. 임신부를 위한 준비물

임산부를 위한 대표적인 준비물에는 ‘피옷’이 있다. ‘피옷’은 산모가 출산할 때 입는 옷으로 출산 시 아기가 나올 때 그리고 태반이 나올 때 피도 같이 나오는데 이 때 산모가 입은 옷에는 피가 묻는다. 그래서 피옷은 검은 치마나 쪽물 들인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 산모가 출산 시 입는 옷을 ‘피옷’이라 하는데 이는 출산 시 피가 묻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 ⇒ {피옷을}. 그거를 자기가 입는데. 자기가 입어봤는 때로. 자기가 그거 입고. 그 진자리 앉아가지고 미역국을 먹고. 그. 그래라 카데. 그래고 하른 자기도. 아들을. 인자 아를 낳는다.
- ⇒ {쌀하고 미역하고는}. 인자 고 낳기 전에 꼭 준비해 놔야 돼. 고래 준비해놨다가 애기를 낳으면 저 국밥을 미역을 끓이야 되거든. 미역을 준비.
- ⇒ {미역은} 옛날에는 큰 대각 있었거든. 지금은 대각 그기 없지만 큰 대각 점도록 한 번 사고. 사가지고 오면은 한 나무로 사오면은 칠. 칠. 다가도록 일곱칠 다가도록 그거로 끓이가 묵는다./ {미역은} 애기 낳야 인자 사러 가지.

‘피옷’은 임신부를 위한 출산 준비물이기도 하지만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아들을 출산한 여성에게 빌려 입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산모를 위한 준비물은 미역, 쌀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바로 쌀과 미역을 가지고 산모가 먹을 국밥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산모가 출산 할 때 삼신상을 차려 윗목에 놓아두고 삼신에게 아이를 순산하기를 기원하는데 이 때 삼신상에 차리는 것이 미역과 쌀이었다고 한다. 삼신상에 올린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먹는 국밥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 2.3.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가위, 실, 소구리, 덩기 등이 있다. 가위와 실은 아이의 탯줄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고, 소구리, 덩기는 출산 후 나오는 태반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실로 자른 부위를 묶는다. 그리고 조금 후 자궁에서 태반이 나오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덩기(등겨)를 넣은 소구리(소쿠리)에 담아 3일 간 보관하였다가 처리하였다고 한다.

### 2.3.1. 가위와 실

가위는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로 날이 있는 두 개의 쇠를 교차시켜 가운데 사복을 박고,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여 자른다. 실은

고치, 털, 솜, 삼 따위나 화학 원료를 써서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것으로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하는 데 쓴다. 단위로 타래, 통구리, 꾸리, 토리, 올, 님, 테, 가락, 오리, 바람 따위를 쓴다.

- ⇒ 어떻게 낳을 때 그때는. 전베 준비를 하지. {가위하고} {실하고}. 이 텃줄 꿰들라고. 딱 고 준비해놓고. 그래 인자 낳는다.
- ⇒ 인자 식으로. 주로 인자 참 {가위. 실꾸리}. 왜 그라노 카모 가위는 대충 꿰들라 그라고. 실꾸리는 대충 꿰고나모 그 피 안나오구로 재맬라고 그래 인제 준비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위로 텃줄을 자르고 실로 자른 부분을 묶지만 조사에서 ‘귀한 자식은 연장 안 댄다’고 하여 가위로 텃줄을 자르지 않고 아이 아버지가 이빨로 텃줄을 자른다고 한다. 가위 외에도 낫으로 자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가위’의 경남방언에는 ‘가세, 가이, 가사, 가새, 가새기, 가스개, 가시, 가시계, 가시께, 가에, 강애작, 파알’ 등의 어형이 있다.(방언검색프로그램)

제보자는 ‘실’을 ‘실꾸리’라는 방언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고 ‘실꾸리로 재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실로 잡아매다’의 경남방언이다.

방언검색프로그램에는 ‘실꾸리’가 ‘실’의 전남방언으로 나와 있지만 경남의 제보자들도 ‘실구리, 실꾸리’ 어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수록된 ‘실꾸리’는 실꾸러미를 이르는 말로 ‘실’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2.3.2. 덩기와 소구리(등겨와 소쿠리)

출산 후 태반이 나오면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보관 후 버린다고 한다. 보관하는 방법은 곡식을 벗겨낸 등겨를 소쿠리에 담아서 그 안에 태반을 묻어 두었다가 강에 버리거나 불에 태웠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렸다가 가루를 만들어 약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 ⇒ 낳은 태는 인자 {소구리에다가 덩기}. 나룻덩기. 껍질덩기 안있어. 덩기로 갖다가 거다가 담아 놓고 그 안에다 딱. 물데요.

‘덩기’는 등겨의 경남방언으로 벼, 보리, 조 따위의 곡식을 찧어 벗겨 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상의 임신, 출산 준비물 관련 어휘를 표로 만들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 항목	
아이를 위한 준비물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애기저고리, 저고리, 이란저고리
	기저귀	기저귀, 기저구, 기저기, 기주개
	포대기	경북
경남		애기이불, 이불, 어울대
임산부를 위한 준비물	피옷, 쌀, 미역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	가위, 실/ 실꾸리	
	등기(등겨), 소구리(소쿠리)	

### 3. 임신, 출산 관련 금기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지켜야할 여러 금기 사항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에 관한 생활어에는 금기에 관한 말이 많았고 금기는 출산 전 금기, 출산 후 금기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음식 관련 금기와 행위 관련 금기로 나눌 수 있다.

임신, 출산에 관한 금기 사항은 허준의 ‘언해태산집요(1608)’에도 나오고 있다<sup>6)</sup>.

#### 3.1. 출산 전 금기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 전 까지 지켜야 할 금기 사항에 관한 것이다. 임신을 한 여성은 그 이전 보다는 행동에서 조심을 많이 하는데 이는 자신은 물론 뱃속에 태아를 보호하고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한 태교의 일부였다. 출산 전 금기 사항은 음식 금기와 행위 금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3.1.1. 음식 금기

임신을 하면 먹는 것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태아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태아에게 더 영양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산모는 금기 사항

6) 부인대전에 이르기를 자식 뱃 후에 태(뱃속 아이)를 죽인 곳을 가장 피하고, 집을 고치는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 또한 금기하라. 경에 이르기를 칼을 쓰면 아이의 얼굴에 반드시 뱃 상처가 있고, 흙을 쓰면 아이의 구멍이 막혀 나고, 다른 사람을 치면(타격하면) 아이의 얼굴빛이 푸른색으로 난다. 또 끈으로 묶으면 아이가 오그라져서 나오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이르기를 말고기, 나귀고기, 개고기, 토끼고기, 양의 간, 새고기, 자라고기, 달걀, 오리알, 비늘 없는 물고기, 게, 생강의 싹, 파, 마늘, 울무, 보리기름, 비름, 도인, 마른 생강, 호초를 먹이지 말라.

부인대전에 이르기를 자식 뱃 계집이 옷도 너무 덥게 입지 말고, 밤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며, 술도 가장 취하게 먹지 말고, 탕약을 마음대로 먹지 말고, 이부자리를 마음대로 말며, 무거운 것을 들고, 높은 곳 오르며, 험한 곳 건너기를 말며, 오래 누워 자기 말며, 때때로 거닐고, 아이 낳을 달에 머리 감지 말라. <언해태산집요, 허준, 1608>

을 임신 기간 동안 철저히 지켰다.

- ⇒ 오리알로 무면은 아 손 붙는다 카고. 이래이래 한테 붙어버리. 이래 붙더라고요. 이래 문 사람이 붙더라. 그래. 붙기도 하고. 찡이 저런 거로 집으로. 옛날에는 저 지금. 식육점 하는 거로 그 전에는 백정 놈이라 쫓거든.
- ⇒ 오리. 오리고기 먹으면 애 손발이 이래이래 오리 맨치.
- ⇒ 상가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 ⇒ 제사. 제사도 너므 제사는 잘 안 묵고 막 저거 제사는 묵고.
- ⇒ 제사음식은 가져 왔는 것도 먹지. 안 먹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데요.
- ⇒ 남으 해도 별로 먹고 싶지. 남으. 남으꺼가 별로 먹고 싶더라 나는.

임신 기간 음식금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금기에는 오리에 관련된 금기가 많았다. 오리 고기나 오리 알을 먹으면 오리를 닮아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가 붙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임부가 오리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다. 이는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면서도 요즘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금기 사항이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엄마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아이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특히나 생김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금기 중 하나이다.

또한 부정 타는 음식은 먹지 않았는데 상가집 음식이나 제사집 음식은 먹지 않았다. 임부가 상가집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타서 임부가 아프거나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먹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임부가 상가나 제사에 가는 것도 금하였다.

그리고 임부는 남의 음식도 먹지 말라고 금하였다. 남이 것을 훔쳐서도 안 되고 허락 없이 남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데 이는 태교의 하나로 뱃속의 아이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3.1.2. 행위 금기

임신을 하면 임부는 행동에서도 많은 금기 사항이 생긴다. 행동에 관한 금기는 뱃속의 아이를 열 달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과 엄마의 행동이 태아의 생김새나 품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다.

- ⇒ 말 잎가리 넣노면 열두 달만에 나온다 그러고.
- ⇒ 상가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잘 가지도 안 했고.
- ⇒ 임신하기 전에 뭐 짐승 같은 거 잡으마 거 인자 벌 받아가지고 자식이 나는 게 그 나쁜 게 난다고 그래 못하게 했지
- ⇒ 초상난 데 그런 데 가지마라고 부정하다고.

- ⇒ 담도 뛰넘지 마라 칸다.
- ⇒ 돌담 이래 해노면 울타리 구멍에도 빠지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담도 뛰넘지 마라.
- ⇒ 쌀하고 미역하고는. 인자 고 낱기 전에 꼭 준비해 놔야 돼. 고래 준비해놨다가 애기를 낳으면 저 국밥을 미역을 끓이야 되거든. 미역을 준비.
- ⇒ 챙이 저런 거로 집으로. 옛날에는 저 지금. 식육점 하는 거로 그 전에는 백정 놈이라 캣거든.

#### 1) 말 잎가리 넣노면 열두 달만에 나온다

‘말 잎가리 넣노면 열두 달만에 나온다’는 임신 중 행위 금기로 임부가 말이 먹는 짚을 만지거나 마구간에 짚을 넣어주면 아기가 열두 달 만에 나오므로 짚을 만지지 말라는 금기이다. 짚을 만지지 말라는 금기는 짚이라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임신을 하면 집안일, 농사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는 임부가 일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하는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다고 한다.

#### 2) 챙이 집으로 백정놈 나온다

임신 중에 임부가 키를 잡으면 백정을 낳는다라는 말이다. 그 근거는 모르나 임신 중에 임부가 키를 잡으면 자식이 백정과 같은 천한 사람이 되므로 키를 만지지 말라는 금기이다. ‘챙이’는 ‘키?’의 경남방언이다. 임부의 행위 금기에는 집안일, 농사일에 관련된 금기가 있는데 이는 산모로 하여금 집안일을 덜 하라는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다고 한다.

#### 3) 초상집, 상갓집에 가지 마라

임신 중에 임부나 가족이 상가나 제사에 가면 아기가 임부가 부정을 탈 수 있으므로 상가에 가지말라는 금기이다. 상가나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상가나 초상집 음식도 금하였다.

#### 4) 짐승 잡으면 벌 받는다

임신 중에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생명을 해치면 아기가 임부가 부정을 탈 수 있으므로 임부는 물론 가족들도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금기이다.

#### 5) 담 뛰 넘지 마라

임신 중에 임부가 담을 뛰어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임부가 아기를 유산할 수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기이다. 이는 열 달 동안 뱃속의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금기이다.

#### 6) 울타리 구멍에 빠지지 마라

임신 중에 임부가 울타리 구멍에 빠지면 임부가 아기를 유산할 수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기이다. 이는 열 달 동안 뱃속의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

7) 곡식 따위를 까불러 죽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키버들이나 대를 납작하게 쪼개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긋하게 엮어 만든다.

나온 금기이다. ‘구영’은 ‘구멍’의 경남방언이다.

#### 7) 미역은 지달에 사놓아야 된다

출산을 위한 준비물인 미역은 미리 사두지 말고 아기가 태어나는 달에 사 놓는다. 미역을 미리 사두면 귀신이 시샘해서 태아가 부정 탈 수 있으니 아기가 태어나는 달에 사야 한다는 금기이다. ‘지달에 사다’는 ‘태어나는 제 달에 사다’라는 의미이다.

### 3.2. 출산 후 금기

임부가 출산을 하고 나더라도 얼마 동안은 지켜야할 금기가 있다. 출산 후 금기도 출산 전 금기와 마찬가지로 임부와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미가 강하고 또한 산후 임신부의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려는 목적에서의 금기가 많이 있다.

#### 3.2.1. 음식 금기

산모는 출산 후에도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가려야 하는 것도 있었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산모가 딱딱한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이가 상하므로 딱딱한 것이나 차가운 것을 먹지마라는 금기가 많았다. 제보자들은 출산 후에는 출산의 고통으로 이를 포함해서 온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이다. 이나 잇몸도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이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이 후에 이가 망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가 빠진 여성이 많았다고 한다.

출산 전과 마찬가지로 3일 간, 7일 간 상갓집 음식이나 제사 음식은 피했다. 특히 출산 후 3일 동안은 ‘삼일 부정’이라고 해서 가족들도 상갓집 음식을 먹거나 제사 음식을 먹고 집에 오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삼일 부정은 아기가 태어나면 3일 동안은 연약한 아이가 건강을 잃거나 죽는 따위의 부정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이르는 말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3일 간 부정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산모가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금했다. 산모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매운 기운이 젖으로 가 모유를 먹는 아이가 젖을 작 안 먹거나 젖을 먹여도 매워서 울거나 아이가 설사를 하는 등 탈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산모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동안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아이에게 먹기 편한 젖, 좋은 젖을 먹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 딱딱한 거 묵으면 이 다 나간다.

- ⇒ 매븐거 먹으면 아가 울고.
- ⇒ 찹은 것도 묵으면 안된다.
- ⇒ 아 놓고도 상가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 ⇒ 제사. 제사도 너므 제사는 잘 안 묵고 막 저거 제사는 묵고.

### 3.2.2. 행위 금기

#### 1) 귀한 자손 연장 대 끊지 마라

출산 후 행위 금기 중 하나로 아기가 태어나면 땃줄을 끊어야 하는데 귀한 자식을 얻었을 경우에는 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귀한 자손이 태어났을 경우 가위나 낫 등의 쇠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땃줄을 끊지 않고 아기 아버지라 이빨로 끊었다고 한다.

#### 2) 초상난 데 가지마라, 상가에 안 간다

출산 후 행위 금기 중 하나로 출산 후에도 상가나 제삿집에 가는 것을 금했다. 산모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상가나 제삿집에 가면 부정을 탈 수 있는데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3일 동안은 엄격히 지켰다고 한다. 이는 ‘삼일 부정’을 막기 위함인데 그만큼 새로 태어난 생명을 외부의 여러 기운으로부터 지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키려고 주변의 사람이 노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족 중 누구라도 이 금기를 어기면 아기가 이유도 없이 계속 울거나 아프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제보자는 주변의 사람이 삼일 부정을 지키지 않아서 아이가 갑자기 병어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가족이나 산모가 삼일 부정 기간에 행동을 조심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 그 옛날에 그랬다. 귀한 자손 연장 대 끊지 마라 그랬잖아.
- ⇒ 삼일부정이 그제 쥘 무서운 기래. 삼일. 삼일을 저게 뭐야. 어데 나쁜데 갔다 와도 안 되고 어데 초상집 그튼데 갔다오면은. 부정 타가지고. 애 먹는다.
- ⇒ 그래 짐 이 집에 맡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 크. 아 초칠도 안 갔는데 세상에 금방 집에 어마이가 어데 저게 뭐로. 초상집이라던가. 어데 뭐 가. 어데 가. 그래고 세상에 들어왔더란다. 그래가 고 고마 아가 그래 그 병이 저가 아가 버버리아이가. 버버리 된. 그래가 어마이 그래 이 야기를 하면서.
- ⇒ 초상난 데 그런 데 가지마라고 부정하다고.
- ⇒ 상가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잘 가지도 안 했고.

이상으로 임신, 출산에 관련된 금기를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다시 하위 분류인 음식 금기와 행위 금기로 나누었다. 관련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조사 항목
출산 전 금기	음식 금기	오리알로 무면 아 손 붙는다 제사 음식 안 먹는다 오리고기 먹으면 손발이 오리처럼 된다 남으 해 먹으면 안 된다 너므 제사 잘 안 묵고 저거 제사는 묵는다
	행위 금기	챙이 집으로 백정놈 나온다 말 앞가리 놓으면 열두달만에 나온다 초상집에 가지마라, 상갓집에 가지 마라 짐승 잡으면 벌 받는다 담 뛰넘지마라 올타리 구멍에 빠지지마라 미역은 지달에 사놓아야 된다
출산 후 금기	음식 금기	매븐거 먹지 마라 잡은 것도 묵으면 안 된다. 상가집 음식 먹지 마라 제사음식 먹지 마라 딱딱한 거 묵으면 이 다 나간다.
	행위 금기	귀한 자손 연장 대 끊지 마라 삼일부정이 제일 무섭다 남편도 너므 상가집 가모 안 된다 초상난 데 가지 마라 상갓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가지도 마라

#### 4. 임신, 출산 관련 속설

임신, 출산에 관련된 속설도 많이 조사되었는데 임부를 보고 태아의 성별을 가늠하는 속설이 가장 많았으며, 유산에 관련된 속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산모의 배 모양을 보고 태아 성별을 구별하는 속설이 많았는데 딸은 배 모양이 바가지를 얹어놓은 것처럼 볼록 튀어 나왔고 아들은 배 모양이 평퍼짐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산에 관련된 속설은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로 나눌 수 있었다.

## 4.1.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임신을 하면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열 달 동안 궁금한 일이다. 특히 아들 낳기를 원하는 임부일 경우에는 한 시가 급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속설 중에는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이 가장 많았다.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험담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산모의 배 모양을 보거나 산모의 행동을 보고 유추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산모의 배 모양을 보고 성별을 추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아의 성별에 관한 이야기는 언해태산집요(허준, 1608)에서도 나와 있는데<sup>8)</sup> 아래의 속설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 4.1.1. 임부 배의 모양

성별에 관한 속설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부 배의 모양을 보고 태아의 성별을 가늠하는 것이다. 임부 배 모양이 바가지를 얹어 놓은 것처럼 볼록하고, 커다랗게 부풀어 배만 툭 튀어 나온 것처럼 보이면 딸이고, 배 모양이 평평잡하고 배 부분이 특별히 표 나지 않고 두리두리하면 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딸을 가지면 배 부분이 바가지를 얹어놓은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 나왔으므로 치마를 입어도 커다랗게 부풀어 표시가 많이 났다. 하지만 아들을 가지면 배 모양이 딸에 비해 배가 많이 튀어 나오지 않고 평평잡해서 치마를 입으면 배 나온 것이 잘 표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 ⇒ 바가지 얹어논 거는 딸이고. 좀 평평하면 아들이고 그렇다. 사람.
- ⇒ 뒤에 치마가 쫄롬 하모 딸이고 축 처지모 으스마.
- ⇒ 치마자리가. 치맛자락을 보고 뒤에. 뒤에 인제 커다란게 부풀모 딸이고 축 처지고 뒤에 막. 아들.
- ⇒ 저거 옛날 어른들은 딸이른 배만 툭 튀어 나오고.
- ⇒ 아들이면 허리가 두리두리 하고.
- ⇒ 아들은 모양이 사람도 막 두리두리 하이 아래위가 없는 글은 기. 그래.

### 4.1.2. 아이의 위치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딸은 엄마 배꼽 바로 아래에 있어서 임부의 배에서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임부들이 숨쉬거나 행동하기가 아

8) 백경에 이르기를 계집이 잉태하였거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만지게 해서 배가 잔 얹은 듯하면 사나이이고, 팔 굽은 곳같이 험하면 계집이라. 자식 뱀 계집이 뒷간에 들 때에, 남편이 뒤에서 빨리 부르면 왼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은 사나이이고, 오른쪽으로 머리 돌리는 것은 계집이라. 고급의갑에 이르기를 겨집이 자식 배어서 왼 젖에 망울이 있으면 사나이이고, 오른쪽에 망울이 있으면 계집이라 <언해태산집요, 허준, 1608>

들에 비해 조금 수월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의 가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딸보다는 숨쉬기도 힘들고 행동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제보자들은 ‘아들이며 디다(아들이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이의 위치 때문이다.

- ⇒ 아들은 조금 디기 이래 요. 디기 요 다지면 울로 올릿뿌고. 이 딸은 조금 나직하이 붙는.
- ⇒ 우리가 인자 낳고나서 싹 이거로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아들인께 좀 디더라. 딸은 쪼게 낫더라.
- ⇒ 가슴 밑에 딱 맺채면 아들이고. 여 밑에 여기 알로 이래카모.
- ⇒ 응, 아들이면 여 치이. 치이. 치 올라채고.

#### 4.1.3. 임부의 행동

임부의 행동을 보고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임부가 앞서 가는데 뒤에서 임부를 불러 임부가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딸이라고 한다. 이런 추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임부의 행동에 관한 것은 이 밖에도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아들이고,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딸이라고 하는 속설도 있다.

- ⇒ 임신되가 걸어가는 걸 뒤에서 누가 부르잖아. 부르모 원고개를 이래 돌다 보모 그게 아들이라데.

#### 4.1.4. 기타

임부의 배꼽을 눌러 보고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배꼽을 눌러 배꼽이 쑥 들어가고 배꼽 아래에 만져지는 것이 없으면 아들이고, 배꼽을 눌러도 단단해서 잘 들어가지 않으면 딸이라고 한다. 이는 내용 중 태아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아들은 엄마 가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배꼽 부분을 눌렀을 때 잘 들어가지만 딸은 엄마 배꼽 아래에 위치해 있으므로 배꼽 밑이 단단하게 받치는 것이다.

또한 출산을 알리는 이슬의 색을 보고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슬이 붉은 색이면 아들이고, 흰 색이면 딸이라고 한다.

- ⇒ 아들은 이거 배꼽이 늙어 있어도 배꼽이 쑥 드가고 여기 배가 여기 잘. 딸은 꼭 여기 머리가 여 받친다.
- ⇒ 머리가 요래 땡땡하게 받아. 둘 누우모 눌루문 배꼽이 쑥 드간다 카데. 난 그래 난 그래 짐작했어. 알아. 배꼽이 쑥 드가. 아들은.
- ⇒ 한 삼일 전에 이슬 비취가지고 그게 이슬이가 붉은은 아들이고 흰 건 딸이라 한 이도 있고.

이밖에도 태아의 성별에 관한 속설에는 임신선, 유두색깔에 관한 것도 있다. 여성이 임

신을 하면 배꼽 아래에 임신선이 생기는데 이 임신선이 진하고 일자 모양으로 쭉 이어지면 아들이고, 딸은 아들에 비해 임신선이 진하지 않고 일자 선이 아니라 중간에 선이 끊어진다고 한다.

## 4.2. 유산에 관한 속설

임신, 출산에 관한 속설 중에는 유산에 관한 속설도 조사되었다. 유산에 관한 속설은 유산 방지책이 많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유산을 위한 속설도 있었다.

### 4.2.1. 유산을 막기 위한 속설

#### 1) 은가락지 삶은 물 먹기

임부가 유산기가 있으면 시어머니나 주변 사람이 임부가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물에 삶아 삶은 물을 먹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제보자는 은가락지라고 하였는데 그냥 ‘가락지 삶은 물 먹는다’고 말한 제보자도 있었다. 이렇게 가락지 삶은 물을 먹는다는 예방책은 경북과 경남이 같았다.

- ⇒ 애. 애기 떨어졌는가잉. 떨어징게네. 애기 떨어질까 싶어서 옛날에는 은가락지 그거를 삶아가지고 먹었거든. 애기 저 떨어지지 말라고.
- ⇒ 어른들 그랬어. 그거 양밥이라면서. 가락지 삶아 맥였고.

#### 2) 깐대기 날 수대로 먹기(수제비 날 수대로 먹기)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속설에는 ‘깐대기 먹기, 수제비 먹기’가 있다. ‘깐대기’는 ‘수제비’의 경북방언으로 임부가 유산의 기미가 보이면 수제비를 끓여 먹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수제비를 자기 나이 수대로 건져먹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 ⇒ 깐대기를. 깐대기를 또 날 수 대로 해 여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맥이주데.
- ⇒ 아. 수제비 먹어가 아가 올라 붙는다고.
- ⇒ 수제비. 수제비 끓이 고걸 요래요래. 나 수 대로 수제비라.

### 4.2.2. 유산을 위한 속설

임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을 때는 유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처럼 산부인과에서 유산을 하는 것이 사정상 어려웠기 때문에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도 있었으며 이런 속설

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 잿물도 약간 묵고 이런 거 같은데.
- ⇒ 농약도 쪼개 묵고

유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위험한 방법을 썼다. 빨래 할 때 쓰는 양잿물<sup>9)</sup>을 약간 먹거나 농약을 조금 먹기도 하였는데 이는 독한 것을 먹어서 뱃속의 태아를 없애려고 찾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간장을 마시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거나 언덕에서 구르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이는 산모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 4.3. 기타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유산에 관한 속설 이 외에도 여러 속설이 조사되었는데 출산 과정에서 임부의 출산을 돕는 방법,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한 방법, 동생의 성별을 예측하는 방법, 기타 등이 있었다.

#### 4.3.1. 임부의 출산을 돕는 방법

임부가 출산을 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두려운 일이다. 순산을 하면 다행이지만 난산 일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에게 모두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부의 출산을 돕기 위한 방법에 관한 속설이 많이 있었다.

산모가 화장실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빨리 나온다고 한다. 이는 화장실에 가서 앉는 자세가 아기가 잘 나오는 자세이고, 그런 자세에서 힘을 주면 아기 낳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남편이 산모의 배를 타 넘거나 이웃에 아이를 잘 낳은 여성이 산모의 배를 타 넘으면 아기가 빨리 나온다고 한다. 남편이 배를 타넘거나 남편의 옷을 산모의 배에 덮어주거나 남편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산모 발에 붙여도 아기가 잘 나온다고 한다. 이는 출산 시 임부에게 심리적으로 남편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쥐구멍 같은 집 안의 구멍을 모두 트면 아이가 구멍으로 잘 나온다는 속설도 있었다.

9) 짚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 예전에 주로 빨래할 때 썼다.

- ⇒ 산파도 엄고 할 때는 거 간다 안카나. 화장. 화장실에 가서 나오면은 빨리 나온다 안카나.
- ⇒ 남편이 배로 넘으면은 빨리 나온다 소리대.
- ⇒ 그래 아 놓는데 힘이 들어가 아 잘 안 나오모 아 썩썩 잘 넘는 사람이 와가지고 허리를 이래 타 넘어준다. 배를 타 넘어 준다.

#### 4.3.2.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한 방법

임부가 임신을 하면 예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데 제보자들은 ‘잉어를 먹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고 하였다. 잉어를 먹으면 아이 눈이 크고 동그라며 피부도 뽀얗다고 해서 요즘도 임신한 여성에게는 잉어를 달여 먹인다. 크고 잘생긴 잉어를 참기름, 마늘 등을 넣고 푹 고아 먹이면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부의 보양식으로도 좋다고 한다.

- ⇒ 그냥 보신용으로 묵는 거는 잉어나 또 그다음에 그 저 가물치 있잖아. 요새는 모든 저게 할 때 잉어를 많이 먹어.잉어로. {잉어로 주로 먹으면 애기가 이쁘다꼬}. 그거 하나씩 먹는다. 가가 특이하게 어데가 봐도 살색 그래 깨끗한 게 이뻐. 아도 이쁘게 생겼고.

#### 4.3.3. 동생 임신을 예측하는 방법

동생이 생기려고 하면 형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를 ‘아시탄다’라고 한다. 형이 동생을 볼 때 아시타는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자기 성기 쪽, 자기 아래 쪽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에 따라 동생의 성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무엇을 자꾸 목에 걸고 다니면 남자 동생을 낳고, 무엇을 머리에 자꾸 이고 다니면 여자 동생을 낳는다고 한다.

- ⇒ 그거 . 그런 거는 목에 걸모 지 동생 아들 낳고. 아하. 이고 땡기면 딸놓는다.

#### 4.3.4. 기타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홉 달만에 태어난 아기를 ‘아홉달백이’라 하는데 이 아홉달백이는 여덟달백이보다 잘 살아남지 못 하고, 살아남더라도 잘 크지 않는다고 한다.

- ⇒ 아이래. 여덟달 되도 여덟달백이는 모래도. 아홉달백이는 몬 산다 그런말은 있더라.
- ⇒ 아홉달 백이는 안 크다.

이상의 임신, 출산에 관련된 속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조사 항목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아들은 울로 올릿뿌고 딸은 나직하이 붙는다 아들이면 디다 딸은 쪼개 낫다 바가지 얹어논 거는 딸이다 핑뽕하면 아들이다 치마가 쪼름하모 딸이고 축 처지모 르스마 치맛자락이 부풀모 딸, 처지모 아들 배가 툭 튀어나오면 딸 허리가 두리두리하면 아들 왼고개로 돌아보른 아들 가슴 밑에 맺해면 아들 밑에 알로 가면 딸 늙어 배꼽이 쭈 드가면 아들 이슬이 붉으면 아들 희면 딸	
유산에 관한 속설	유산을 막기 위한 속설	은가락지 물 삶아 먹다 가락지 삶아 먹다 깐대기(수제비)를 날 수대로 먹다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	잿물 약간 묵는다 농약 조개 묵는다 언덕에서 구분다 높은 데서 띠내린다
기타	남편이 배 넘으면 빨리 나온다 허리 타 넘다 화장실에 가서 나면 빨리 나온다 잉어 먹으면 애기 이쁘다 목에 걸모 지 동생 아들놓고 이고 땡기면 딸 놓는다 아홉 달백이는 몬 산다 아홉달백이는 안 크다	

## 5. 임신, 출산 과정

임신, 출산의 과정에 관련된 생활어는 임신과 관련된 과정에 관한 것과 출산 과정에 관련된 것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임신 관련 과정에 관한 어휘는 임신, 입덧, 태몽 등으로 하위 분류를 하였으며, 출산 관련 과정은 아기가 나올 기미를 보이는 단계에서 아기가 나오고, 탯줄 끊고, 태가 나오는 등 출산의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 5.1. 임신 관련 과정

산모가 임신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덧을 하고 태아에 관련된 꿈을 임부나 가족이 꾸기도 한다.

### 5.1.1. 임신

배 속에 아이를 가지는 것을 임신이라 한다. 임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 서다, 아 배다, 얼라 들다, 얼라 가지다, 애기 가지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아이를 ‘아, 얼라, 애기’ 등 경상도 방언형을 사용하였고 이는 ‘배다, 가지다, 서다’ 등의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붙여 사용하였다.

- ⇒ 저기 큰 {아 설} 때는 태몽 꾀봤지.
- ⇒ 그때는 아들인가 딸인가 알았나. 첫. {첫아 났는데}.
- ⇒ 뭐 {얼라 들 때} 되가지고 뭐 초상집 음식이나. 또 저거 상갓집에 만일에. 상갓집에.
- ⇒ 다른 음식 뭐 {얼라 가져도} 별로 가래는 게 없어. 뭐 주로 {얼라 가지면} 음식이 먹기 싫으이 간. 별로 함부로 먹지도 안하지.
- ⇒ 그것도 그게 참. 태중 교인이 무섭다 카거든. {애기가지고}. 그 참. 무섭다 카잖아.

### 5.1.2. 입덧뜸(입덧)

임신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덧을 하는데 ‘입덧’은 임신 초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를 말한다. 입덧하는 것을 경상도에서는 ‘입덧하다, 입덧뜸하다, 입맛 그친다, 입 놓다, 입 그친다’라고 말한다. ‘입덧뜸’은 ‘입덧’의 경상도 방언이며 입덧을 하면 입맛이 없어지므로 ‘그치다’라는 어휘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입덧’과 ‘그치다, 놓다, 하다’라는 어휘가 연어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덧’의 경남방언에는 ‘입써리, 입쓰리’ 등이 있다. (방언검색프로그램)

- ⇒ 임신해도. 임신을 할라카면 {입덧 할} 때 되면 묵고 지픈 것도 없이 나. 그때도. 시어마이 동새 무서버서 묵고싶다 소리도 문해봤고 그냥 그러고 넘갔지.
- ⇒ {입덧뜸. 입맛. 입맛 그친다} 칸 이도 있고 {입덧뜸} 하는 그게 그말이야. 멍 같은 말이야.
- ⇒ {입덧한다고}.
- ⇒ 입. {입 났다. {입그친다}. 그카지.

### 5.1.3. 태몽

태몽은 아이를 뱌 것이라고 알려 주는 꿈이다. 임신을 하면 산모가 직접 태몽을 꾸거

나 주변 가족이 꿈을 대신해 꾸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좋은 꿈을 꾸었을 때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그 꿈을 태몽으로 사기도 한다. 어떤 태몽을 꾸었는지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짐치기도 하는데 이는 아들 태몽과 딸 태몽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뱀꿈은 대부분 아들 태몽이 많은데 뱀꿈 중에서도 크고, 긴 것이 아들 태몽이고, 작은 뱀꿈은 딸 태몽이라고 한다. 용꿈, 호랑이 태몽은 대체로 아들 태몽이라고 하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붉은 색 열매를 보면 아들 태몽이고, 초록색이나 덜 익은 열매를 보면 딸 태몽이라 한다. 다슬기를 잡거나 작은 고기를 잡거나 머루 꿈은 딸 태몽이라 생각하였는데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크고 잘 익었으면 아들이라 생각했고, 작고 덜 익었으면 딸이라 생각했다.

- ⇒ {태몽, 태몽꿈 꾀다} 카지.
- ⇒ 아들 그래 낳았으니 {태몽꿈} 마카 꿰겠지만. 나는 {태몽꿈을} 다 꿰는데 첫째 태몽꿈은 그렇게 영글어.
- ⇒ 알곳이 희숙그리 하이 뭐. 뭐. 뭐. 고디도 잡고. 물에 가서. 미꾸라지 그런 것도 잡아샀고. 자란 고기 이런 것도 잡아 샀고. 딸 가질 때.
- ⇒ 그래 인지 이 편풍을 딱 쳐냈더라고. 편풍을 이래 쳐냈는데. 그 편풍을 치워봉게 마 산슴도 있고 마 가득차게 있는데 시퍼란 깔치가. 이찌름만한기 깔치가 딱 물에 노니깐. 저 깔치가 니 가 가라 이카더라고. 그래 가지가서. 집에 와서 그 해무도 되는가요.
- ⇒ 호. {호랑이 꿈꾸는} 사람도 있고
- ⇒ {밤 꿈을} 꾸면 딸이라
- ⇒ {홍초는 아들이고 청초는 딸이라고} 그카지
- ⇒ {멀그덤부리} 사각글이 고래 돼있거든. 고래 돼있는데다가 마마마 저기 포도송이 글은기 한껏 마 조롱조롱조롱 열었더라 카이끼네.
- ⇒ {멀구}. 그런데 어무이가 이러데. 야야 니는 오번에 딸이다 이래. 왜 그카이. 왜그래 왜오 이카이. 내가 야야 산에 가서 멀구를 한다래끼 따가왔다.
- ⇒ 그것도 가지각색이래. 나는 참. 아들 하나밖에 안 낳지만은 {고지를}. 고지가 한 개 이빠. 동글방한 거 요런 거를. 고지, 바가치 맹그는.
- ⇒ 자 애비는 또 {뱀이가} 하얀 뱀이가 신다리로 요 이래 물더레이.

#### 5.1.4. 기타

##### 1) 나는 아(움직임이 많은 아이)

‘나는 아’는 의령의 제보자가 한 말로 엄마 뱃속에서 움직임이 많은 아이를 말한다. 임신 5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는 태아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아이가 놀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기운 세계 놀면서 움직임이 많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많이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더라도 노는 힘이 약한 아이가 있다. 움직임이

많은 아이를 ‘나는 아’라고 한다. 아들인 경우에 힘 있게, 활발하게 노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간혹 잘 노는 아이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임이 약하면 산모는 아이 건강을 걱정하는데 아이가 노는 것을 보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도 한다.

- ⇒ {나는 아가} 있고 조금 조용한 아가 있제. 마이 움직이는 아가 있고 좀 덜 움직이는 아가 있고 그럴지.

## 2) 터울 늘어지다

한 어머니의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를 ‘터울’이라 한다.

이 터울이 큰 경우를 ‘터울이 늘어지다’라고 표현한다.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이다.

- ⇒ 두 살 {터울}. 시 살 터울.
- ⇒ 많이 아이. {터울이 좀 너무 늘어졌지}.

## 3) 아시보다, 아시타다

‘아시보다’는 동생이 생기다라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강원, 경남의 방언이라 하고 있으나 경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아시’는 ‘아우’의 방언(경남, 전남, 제주)이다. 동생이 생기거나 생길 것 같으면 형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 하는데 평소와 달리 엄마에게 많이 의지를 하거나 행동이 퇴화되거나 자기 음부 쪽, 자기 아래쪽을 들여다 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에 따라 동생의 성별도 짐작할 수 있는데 머리에 자꾸 무엇을 이고 다니면 딸이고, 목에 무엇을 걸고 다니면 아들이라고 한다.

- ⇒ {아새탄다} 그거. 어떤 아들은 이래 옆드려 가지고 이런데 보이끼네.
- ⇒ 맞아. 저거 {아시본다}. 어. 그래. 밑에 보이끼네 저거 지 {아시본다} 이래데. 아시볼라고 그러이. 저거 아시본다이카고.

## 5.2. 출산 관련 과정

임신 후 열 달이 지나면 일련의 출산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게 된다. 여기서는 출산하는 과정에 대해 분류해 보았다.

### 5.2.1. 이슬비치다

여자의 월경이나 해산 전에 조금 나오는 누르스름한 물을 ‘이슬’이라 하고 이것이 나오

는 것을 ‘이슬 비치다’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전에 이슬이 비치고 이를 보고 출산이 임박함을 알았다.

- ⇒ 근데 인제 맹 아가 나올하면 {이슬이 비치잖아}.
- ⇒ 한 삼일 전에 이슬 비춰가지고 그게 {이슬이가 붉은 아들이고 흰 건 딸이라} 한 이도 있고.
- ⇒ {이슬은 쪼끔 비채지}. 그렇게 마이 없어. 그거 아 나올 때 머리 받이 물이 물병에 따로 있잖아. 그거 터져야 인자 아 나오면 수운데. 그거 없이 나오는 아가 있어.

### 5.2.2. 아가 빠치다

출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다. 태아의 머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 산모 골반으로 들어오면 서서히 골반이 벌어지는 등 일련의 출산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태아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빠치다, 뺨치다’라고 한다. 그런데 태아가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것에 비해 골반이 늦게 열리는 등 출산 진행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면 아이가 빠치는 시간이 길어져 아이도 고생하게 되고 산모도 심하게 고생을 한다.

- ⇒ 내. 내가 하도 {아가 마이 빠쳤잖아}. 삼일을 아똥게 병임신 초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원에 갈 줄 아. 병원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무 어렵게 그래도 뭐 뒤로

### 5.2.3. 머리받이 터지다

아기가 나올 때는 먼저 ‘양수’가 터진다. 양수는 양막 안의 액체로 태아를 보호하며 출산할 때는 흘러나와 분만을 쉽게 한다. 이 양수를 경북에서는 ‘머리받잇물, 머리받이, 물병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양수가 터지면 미끌미끌한 물이 흘러 나와 아이가 나오기도 수월하다. 양수가 터지는 것을 경북에서는 ‘머리받이 터지다, 머리 터지다, 물병 터지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 그거 아 나올 때 {머리받잇물}이 물병에 따로 있잖아. 그거 터져야 인자 아 나오면 수운데. 그거 없이 나오는 아가 있어.
- ⇒ 그 요새. 요새말로 {양수터졌다} 카는.
- ⇒ 그래 터지. 참 {머리 받이} {머리 그래 터졌어}. 그래 터지고.
- ⇒ 그거 {머리받잇물이라} 카데.
- ⇒ 그래 터지. 참 머리 받이 {머리 그래 터졌어}. 그래 터지고.
- ⇒ 애기. 애기 나올 때 {머리받이}. {머리 터진다}.
- ⇒ 그거 {물병이 터져야} 애기가 나와.
- ⇒ 안 저기 양수 안 터지고 아를 논께 그 뭐 그래도 {양수터지면} 미끌아가 아 확 나오지만도.

#### 5.2.4. 앓들다, 틀다

‘트다, 틀다’라는 말은 출산 과정에서 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트다, 틀다’라는 어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의미가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보통 ‘애 트다/ 틀다, 허리 트다/ 틀다, 배 트다/ 틀다’ 등의 연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 ‘트다/ 틀다’라는 말은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내려올 때 머리 부분이 먼저 내려오면서 쉽게 내려오려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내려오는데 그 행동에서 기인된 말이라 볼 수 있다. 나사를 트는 것처럼 아이 머리가 산도를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가 산도를 내려올 때 산모의 배 부분이 특히 통증이 심한 것을 ‘배 트다/ 틀다’라고 하고 허리의 통증이 크면 ‘허리 트다/ 허리 틀다’라고 하고 산모 다리가 심하게 아프면 ‘다리 트다, 틀다’라고 말한다.

- ⇒ 그기. {애 트는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파.
- ⇒ {배를 텃다}. 배.
- ⇒ 그것도 허리 트는 택인 모양이래. 아 비치면 {아 트다} 카거든. 그래 배가 아프면 인제 {배로 트고 허리 아프면} 허리로 트는.
- ⇒ 배도 아프고 다리로. {다리로 트는} 것도 죽을 지경이데이. 인자 내가 자자 자 놓을 때 딴 아다 배로 했는데 이 다리가. 다리를 꿈쩍을 못해.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 5.2.5. 아 놓다, 아 받다, 아 나오다

출산 시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아 놓다, 아 나오다’라고 표현한다. ‘아 받다’는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가 배 밖으로 나온 아이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아이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나 가족이 아이를 많이 받았다.

아이를 낳을 때 산도를 부드럽게 하여 아이가 잘 나오게 하는 양수가 터지는데 양수가 다른 아이에 비해 많지 않은 아이를 ‘깡아, 마른아’라고 한다. 경남에서는 양수가 별로 없는 아이를 ‘마른아’라고 하는데 경북에서는 ‘깡아’라고 표현한다. 깡아, 마른아에 반대되는 말은 없었다.

- ⇒ 어떻게 낳을 때 그때는. 전베 준비를 하지. 가위하고 실하고. 이 텃줄 끊을라고. 딱 고 준비해놓고. 그래 인자 낳는다.
- ⇒ 씨를. 씨를 뭐 안 티웠는. {아를 못 놓는} 그 이름이 있잖아.
- ⇒ {나올라} 하면 뭐. 모. 배가 아프고 뭐. 그렇지.
- ⇒ 근데 인제 멍 {아가 나올하면} 이슬이 비치잖아.
- ⇒ {아를 받아서} 인자 인자 텃줄 끊어가지고 물로 뜨사냈다가
- ⇒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훗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훗배가. 이 훗배가 이 피멍티기가 배를 통해서로 엄청나게 아프다. 그기. 애 트는거보다 더 아

프다. 엄청시리 아파.

⇒ 그래 자네는 외숙이 날 때 {깡아를 낳어}. 생. 생수 안 터지고 {깡아 놓나라고}.

### 5.2.6. 태줄 끊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의 태줄을 끊는다. 태줄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태줄에 고인 피를 아이 쪽으로 훑어 넣은 다음 어른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를 남겨두고 잘랐다고 한다. 따라서 ‘태줄 끊기’는 산모와 아기를 연결한 줄인 태줄을 가위나 낫 등을 이용해 자르고 자른 부위에 피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로 묶는 행위를 말한다. 태줄은 일반적으로 끊인 물로 소독한 가위로 자르는데 ‘귀한 자식은 연장 대 안 끊는다’는 속설이 있듯이 가위나 낫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 아버지가 이로 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태줄을 제보자들은 ‘태’, ‘이승가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 ⇒ {태줄은 실로가 인자 딱 짜매서}. 그러고 가위 갖고. 그 태줄하는 그거는 이 산모는 모르지. 시오마이가 항끼네. 시오마이가 하고. 우리 막내이는. 우리 막내이 거는 우리 사촌동서가 오가지고 {태줄로 끊고}.
- ⇒ 인자 식으로. 주로 인자 참 가위. 실꾸리. 왜 그라노 카모 가위는 대충 {꿍을라} 그라고. 실꾸리는 대충 {꿍고나모} 그 피 안나오구로 {재맬라고} 그래 인제 준비하고
- ⇒ {실은 묶어야지}. 실은 그래야 피가 안 나오지. 아 쪽으로 {묶고} 또 태 쪽으로 {묶고} 그러이 이 복판을.
- ⇒ {태. 저 이승 가는 거}? 이승 가는 거는 가위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고 머스마들 낫 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고.
- ⇒ {태줄}. 옛날에 태줄 마마. {남자가 이로 마카 끊어준 이도 있다} 안카나.

### 5.2.7. 태 나오다

아이를 출산하고 조금 후 엄마 자궁 속에 있던 태가 나온다. ‘태’는 태반이나 태줄과 같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태가 깨끗하게 잘 나와야 산모의 자궁이 예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나온 태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였는데 이는 출산 후 행위와 의식 관련 내용에서 다루기로 한다.

- ⇒ {태는 인자 가있다가 태 그튼 거 나올 때 되면 나오지}. 바로 나오지.
- ⇒ 태. {태나오잖아}.

### 5.2.8. 목욕시키다

아기가 나오면 목욕을 시킨다. 목욕을 시키는 것도 일정한 순서가 있었는데 아이의 손

과 발에 물을 먼저 묻혀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한 후 코 부분을 씻기고 얼굴 전체를 씻긴다. 그런 다음 위에서 아래로 몸 전체를 씻긴다고 한다. 신생아의 목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킨다.

⇒ 아를 받아서 인자 인자 땃줄 끊어가지고 물로 뜨사놔다가 {목욕 시키고}

### 5.2.9. 훗배 아프다

훗배가 아픈 것은 산모가 해산을 한 뒤 배가 아픈 것을 말한다. 훗배가 아픈 것은 출산한 산모의 자궁이 원래의 크기,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자궁 수축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훗배앓이는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아기 낳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특히 양수가 많지 않은 아이인 깡아, 마른아를 낳은 산모는 훗배앓이가 심하다. 또 아이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심해진다고 한다.

⇒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훗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훗배가. 이 훗배가 이 피뭉티기가 배를 통해서로 엄청나게 아프다. 거기. 애 트는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퍼.

이상의 임신, 출산 과정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 항목			
임신 관련 과정	임신	얼라 들다, 아 배다, 아 서다		
	입덧	입덧하다, 입 그치다, 입 놓다, 입맛 그치다, 입덧틈하다		
	태몽	태몽 꾸다, 태몽꿈 꾸다	아들 태몽	홍초는 아들 청초는 딸, 하얀 뱀 꿈, 호랑이 꿈, 용 꿈 등
			딸 태몽	고디(다슬기) 잡다, 미꾸라지 잡다, 자잔한 고기 잡다, 밤, 멸구(머루) 등
	기타	나는 아, 터울 늘어지다, 아시보다, 아시타다		
출산 관련 과정	1) 아가 빠치다, 배 아프다 2) 이슬비치다, 이슬 비채다 3) 머리받이 터지다, 머리받인물 터지다, 머리 터지다, 물병 터지다, 양수 터지다 4) 애 틀다, 아 틀다, 배 틀다, 허리 틀다 5) 아 놓다, 아를 받다, 아 나오다, 마른아 놓다, 깡아 놓다 6) 땃줄 끊다, 실로 짜매다 7) 태 나오다 8) 목욕시키다 9) 훗배 아프다			

## 6.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임신과 출산 관련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도 산모나 태아에게 건강상 필요한 행위가 있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산 의식이 행해졌다. 산모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산후 조리가 필요했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신생아 관련 행위도 있었다.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산모 관련 행위(산후 조리, 젖 관리)와 신생아 관련 행위, 금줄 치기, 태 처리 하기, 배꼽 관리 하기, 출산 후 의식 등으로 하위 범주를 나누고 관련 어휘를 정리하였다.

### 6.1. 산모 관련 행위

출산 후 행위 중 산모 관련 행위로는 산후 조리와 젖 관리가 있다.

#### 6.1.1. 산후조리

산모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산후조리도 중요하였으며 산후조리는 음식을 먹는 것과 편히 쉬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사내아이를 낳는지 딸을 낳는 지에 차이가 있었으며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못 했을 경우는 이후에 큰 고생을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병은 다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여야 낫는다고 한다.

##### 1) 산후조리하다, 바라지하다

‘산후조리’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는 것을 말한다. 임신부는 산후조리를 잘 해야 예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출산 후 칠일 정도 산모는 임신, 출산을 하면서 피로한 몸을 푹 쉬었는데 바쁜 철에는 사나흘 정도가 지나면 간단한 집안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아를 출산하였는 지, 여아를 출산하였는 지에 따라 산후조리 기간도 조금 달랐다고 한다.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아들을 낳으면 산후조리 기간이 딸을 낳은 것보다 길어진다는 의미이다. 아들을 낳으면 일곱 칠 동안 산후조리를 하고 딸을 낳으면 삼칠일동안 산후조리를 하였다고 한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으면 산모가 편안히 산후조리를 하였으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아들 보다는 짧은 기간만 산후조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잘 못하여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생긴 경우에는 한 번 더 출산을 하고 다시 산후조리를 잘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산후조리’라는 말과 함께 ‘조리, 몸조리’라는 어휘도 산후조리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었다.

- ⇒ {조리가} 뭐고. 밥도 몬 얻어 무따.
- ⇒ 애들도 {몸조리를} 잘 해야 돼. 뭐 바쁘다고 뭐 그쪽 참 뭐 저 바라지 할 사람이 없으면 손수 나가가지고 해먹고 이카모 병 지고 난다카이끼네. 몸이 안 개운하지.
- ⇒ {산후조리는} 올케 되구록 했나. 어데. 한 사나흘 지내면 고마 노사 밥해무도 된다고 밥 해묵고 뭐.
- ⇒ 삼칠 안하고 일곱칠 했다고. {아들 놓면은 일곱칠 하고 딸은 놓면 삼칠일}.
- ⇒ 다음에 아를 낳아야 {조리를} 잘 해야 곤책제. 안 그러면 몬 고챠다.

## 2) 국밥, 미역국

산후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산모가 마음 편히 쉬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썼다. 산모는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어 쇠약해진 기력을 보충하는 일고 중요한 일이었다. 산모는 출산을 하자마자 미역국과 밥을 먹었다고 한다. 산모의 바라지를 도와주는 사람은 미역과 쌀을 준비해두었다가 출산을 하면 바로 국밥을 준비해 산모에게 주었다. 하지만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는 이마저도 얻어먹지 못 한 산모가 많았다고 한다. 산모가 먹는 미역국과 을 국밥이라 하기도 한다.

- ⇒ 쌀하고 미역하고는. 인자 고 낳기 전에 꼭 준비해 놔야 돼. 고래 준비해놨다가 애기를 낳으면 저 {국밥을} 미역을 끓이야 되거든. 미역을 준비.
- ⇒ 미역. 미역국 끓이고 바쁘지 뭐. {미역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 뭐 한 시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그거 끓이기 나름이지. 뭐. 끓이가 그래 들어오모 그래 먹잖아.
- ⇒ {미역국이} 뭐꼬. 죽도 몬 얻어묵지.

## 3) 몸에 끼가 있다, 삼칠 비치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일정 기간 조금씩 피가 비치다. 이를 ‘몸에 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은 삼칠(21일) 정도 있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삼칠 비치다’라는 말을 한다.

- ⇒ {몸에 끼가 있어도} 그냥 뭐 애기 놓고 나모 삼칠 거 비치거든. 이리 거 새도. 참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 4) 바람 불다, 바람에 좋다

‘바람’은 산후풍을 이르는 말로 아이를 낳은 뒤에 한기(寒氣)가 들어 떨고 식은땀을 흘리며 앓는 병을 말한다. 이를 사내바람, 산후바람, 산후발, 산후이슬이라 하기도 한다. 산후조리를 잘 못하면 산후풍에 걸리는데 이를 ‘바람 들다’라고 표현한다. 바람에 좋은 것은 뜨거운 음식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산후조리를 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낳고 {바람에 좋다}.
- ⇒ {바람 불어가 죽는데}. 뭐.

### 5) 연물 나오다

연물이 나오는 것은 아기를 낳고 자궁의 일부가 밖으로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연물이 빠지면 질 안에 있어야 할 부분이 음부 밖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도 산후조리를 잘못 하였을 경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

- ⇒ 그게 {연물이 나와가} 그래. 연물이 나와 그래. 그래 생길 일이 없어.

## 6.1.2. 젖 관리

### 1) 젖 돌다, 젖줄 열래다, 젖이 나오다, 젖이 나다

출산 후 3일 정도가 지나면 산모가 젖이 나기 시작한다. 출산 후 3일이 지나고 바로 나는 젖은 ‘초유’라고 하는데 이는 색이 노랗고 영양이 풍부해 아이에게 반드시 먹여서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산모가 젖이 나기 시작하면 ‘젖 돌다, 젖줄 열래다, 젖이 나오다, 젖이 나다’라고 표현한다.

- ⇒ 애기 놓고 나면 {젖 돌아}.
- ⇒ 미역국하고 밥 잘 먹으면 {젖이 젤 잘 나지}. 탄 거. 산모는 탄 거 없어.
- ⇒ 옛날에는 삼일 되야 이 {젖이 돌아} 나오니깐 그 {젖이 돌아} 나오면 그때 그 맬간 거는 고마 이래 짜내고 자꾸 비배가지고 그게 절이. {젖줄이 열래면은} 그러면은 모두. 뭐고.
- ⇒ 애기 놓고 나면 {젖 돌아}. 사흘 있다가.
- ⇒ {젖은 바로 안나}. 삼일 되야 {젖이 돌아}.

### 2) 젖이 많다, 젖이 흔하다, 젖이 적다, 젖이 모자라다, 젖이 없다, 젖 떨어지다

산모에 따라서 젖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젖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젖의 양이 많은 것을 ‘젖이 많다, 젖이 흔하다’라고 표현하고, 젖양이 아이에게 먹일 만큼, 아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젖이 적다, 젖이 모자라다’라고 표현한다.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면 젖은 계속 나오는데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면 젖이 줄어든다. 젖을 아이에게 빨리지 않으면 젖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를 ‘젖이 없다, 젖이 떨어지다’라고 한다.

- ⇒ 미역국하고 밥하고 이러면 {젖이 많아}. 근데 젖이 마이 나오는 거는 아무리 많이 묵어도 안 나온. 적은 사람은 적고.
- ⇒ 지동상이 떨어져. 드가. 들어서야 떨어지거든. 젖이. 그럼 지 애기가 생기면 {젖이 없다} 아이가. 안 난다 아이가. 그땐. 안 나도 젖 물라고.

- ⇒ 젖은 나는. {젖은 모지래} 보진 안했어. 다 젖이 좋아 아들 욱시 실했다.
- ⇒ 그래가 젖은 참젖인데. 잡젖이고 {젖도 흔헌데} 다 짜고 다. 다 흘러 내버리고. 아는 아 대로 굶고. 허허. 명지바지를 입었다.
- ⇒ {젖이 막 짜서 내버리고} 애기거 먹는 사람도 있고.

### 3) 젖이 좋다, 유젖이 좋다,

산모의 젖양도 충분하고 색깔도 우윳빛처럼 뽀얀 것을 ‘젖이 좋다, 유젖이 좋다’라는 말을 한다. 이는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젖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 ⇒ {젖 좋은. 유젖이 좋다} 이커지 뭐라카고.

### 4) 참젖, 무젖, 물젖, 우문젖

‘참젖’은 다른 동물의 젖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젖이라는 뜻이다. 이에 반대되는 말로 ‘무젖, 물젖’이 있다. 이는 농도가 묽어서 영양이 적은 젖을 말한다.

젖꼭지 모양에 따라 ‘우문젖’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젖의 한가운데가 도드라져 나오지 않고 쑥 들어간 젖이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면 젖꼭지가 밖으로 도드라져 나와 있어야 수월한데 젖꼭지가 안으로 들어간 우문젖의 경우는 젖 먹이기가 힘들어 산모는 젖고생이 심하다. 우문젖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아이의 아버지가 자주 젖을 빨아 젖꼭지를 밖으로 빼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젖을 경북에서는 ‘우문젖, 구실젖, 구술젖’이라 한다.

- ⇒ {물젖이라고}. 무. 물젖이라 카고. 젖이 보얗고 큰 거 그건 {참젖이라 카데}.
- ⇒ 아. {참젖}.
- ⇒ {무젖이라고}. 물젖.
- ⇒ 멀거는. 멀겡다고 그렇다고. 그거 묵는 기 좀 아기한테 살이 그 하는 갑데. 참젖 그거는 뽀야이 나온 그거는. 애기가 욱시 실했고. 우리 애들은 욱시 실했어.
- ⇒ 그래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래 낳는데 그래 낳고 젖이 그저 {젖꼭지가 올망져} 이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울케 누워 있지도 못하고. 사무 젖 찐다고 안 있나.
- ⇒ {우문젖이라}. 애기가 젖꼭지 있어야 빨지. 이래 움푹하이.
- ⇒ {젖고생. 젖고생}. 이 형님도 젖 가지고 고생 했는 사람.

### 5) 돼지 족발, 가물치

산모가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젖이 많이 나온다. 젖을 풍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돼지 족발’이 있는데 돼지족발을 물에 푹 고아서 곰국처럼 먹으면 젖이 많이 난다고 한다. 이 외에 가물치를 삶은 물을 먹기도 하고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고 한

다. 막걸리는 색깔이 젓처럼 뿌연 색이라 젓을 많이 나게 하는 음식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 ⇒ 그 뭐 안 나오면 {돼지 족발도} 꼬아서 먹고. 부연거 이런 거 있잖아요.
- ⇒ 아까 뭐 {가물치} 말하면서. 가물치도 먹고.

#### 6) 우유갈기(우유가루)

엄마의 젓이 모자라거나 엄마가 젓을 먹이기 힘든 상황이면 아이에게 ‘우유갈기’를 대신 먹였는데 이는 우유가루, 분유를 말한다.

- ⇒ 그걸 우유. {우유갈기라} 하든.
- ⇒ 분유나 이런 거. 옛날에 배급우유 누츰 한거. {우유가루} 안 줬나. 썬묵고 그래 그랬는데. 도 투락에 담아가지고 이래 밥득그리 둥둥거리 되가 묵고 그런 기 있었어.

## 6.2. 신생아 관련 행위

출산 후 신생아 관련 행위로는 삼일부정에 관한 행위와 태변을 누이는 것이 있다.

### 6.2.1. 삼일 부정

아이가 태어나면 3일 동안은 연약한 아이가 건강을 잃거나 죽는 따위의 부정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이르는 말이 ‘삼일 부정’이다. 이 기간 동안은 임부는 물론 가족들도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상갓집이나 제사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제사 음식이나 상갓집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서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3일 간 부정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 ⇒ 그래 고 삼일동안이 그기 중요한게네. 아가 나고는. 삼일. {삼일부정이} 그기 쥔 무서운 거야.
- ⇒ {삼일부정이 그게 쥔 무서운 기래}. 삼일. 삼일을 저게 뭐야. 어데 나쁜데 갔다 와도 안 되고 어데 초상집 그튼데 갔다오면은. 부정 타가지고. 애 먹는다.
- ⇒ 그래가 고 고마 아가 그래 그 병이 저가 아가 버버리아이가. 버버리 된. 그래가 어마이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 ⇒ 그냥 요래 두대개 싸서 놔뒀다가 삼일 만에 씻개 가지고 그래 이란저고리 했어. 요새는 뭐 그래도 옛날엔 꼭 삼일만이라야 그거 옷을 입혔어. 삼일만이라야.

아이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키는데 첫 목욕을 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목욕을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첫 목욕 후에는 포대기에만 싸두었다가 3일이 지난 후 아이에게 처음으로 배냇저고리를 입힌다고 한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서 3일 동안은 아이에게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해서 귀신이나 나쁜 기운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 6.2.2. 배속에 똥 누이기

출산 후 3일 간은 산모에게 젖이 나지 않는데 이 기간 동안은 아이에게 물을 조금씩만 먹였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시커먼 똥을 누게 되는데 이를 ‘태변’이라 하거나 ‘뱃속에 똥’이라 한다. 3일이 지나고 아이가 젖을 먹으면 노란 똥을 누다고 한다.

- ⇒ 똥, 죽 글은 그런 것도 조금 섞아 먹이고. {밥물도 따라가 조금씩 먹이고}. 그래 그래 키웠지 뭐.
- ⇒ {뱃속에 똥이라고} 놓습니다. 시커먼.
- ⇒ 아. 그 사이 아 울고 있지 뭐. 우째 울어서면 {물이나 조개 떠먹이고}. 다 있다.

## 6.3. 금줄 치기

아이가 태어나면 연약한 아이가 세상에 잘 적응을 하게 가족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줄 치기이다. 금줄을 치면 이웃에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리는 것과 함께 당분간 아이가 태어난 집에 방문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줄 치기에 관한 조사는 금줄의 명칭과 남녀에 따른 금줄의 종류와 금줄의 처리에 관해 정리하였다.

### 6.3.1. 금줄 명칭

금줄은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아이를 낳았을 때, 장 담글 때, 잡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금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렀는데 경북에서는 ‘금석, 금석줄, 금색’이라고도 하였고, 경남 함안에서는 ‘금구, 금구줄’이라 하였다.

- ⇒ {금구줄}. 응. 애기 낳음 금구줄이라 한다. 금구줄.
- ⇒ 그래 가다보면 그 집에 {금줄} 쳐놨으면 아유 저 집에 아들 났네. 저 집에 딸 났네. 이. 이래 알잖아. 대번 남이 알잖아.
- ⇒ 우리는 {금구} 그런 거 안쳤어.
- ⇒ {금석. 금석줄}.
- ⇒ {금색 천다} 그런다.

### 6.3.2. 금줄 종류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서 금줄에 끼우는 물건이 달랐다. 공통적인 것은 아들은 ‘고추’를 끼우고, 딸은 ‘숯’을 끼웠다는 점인데 그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아들 금줄에는 ‘숯, 꼬치(고추), 미역, 돌’ 등을 끼웠다고 하고 딸 금줄에는 ‘손깍, 솔잎’ 등을 끼웠다고 한다.

- ⇒ 우리 고향에서는 아들 놓으마 마카 꼬치 찌우고 수갱 찌우고 손깍을 안 찌우고. 딸 놓으면은 꼬치 안 찌우고 손깍 찌우고 수갱 찌우고 이래도 난 그거 백엔 몬 봤어.
- ⇒ 아들 낳았을 때는 저. 그 {숯하고 꼬치하고 미역하고}. 그래.
- ⇒ 돌돌 말아라고. 고거 찡가고. 안 그러믄 {실구리 찡가고. 그래 아들 그라고. 딸은 인제 고마 미역하고 꼬치하고}.
- ⇒ {돌도 찌우는데 솔잎하고 꼬추하고가 달라}.

### 6.3.3. 금줄 처리

아이의 출산과 함께 집 앞에 걸어둔 금줄은 일주일, 칠일이 지나면 걷는다.

- ⇒ 일주일 지나면 {칠일 지나면 걷어뺀다} 아이가.

## 6.4. 태 처리 하기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나오고 나면 자궁 속에 있던 나머지 태도 나오는데 이 태는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를 하였다. 태가 나오면 7일 동안 보관했다가 버리는데 보관은 덩기(등겨의 경상방언)나 짚에 묻어 두었다고 한다. 칠일이 지나면 물에 갖다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물에 갖다 버린 태는 주워서 약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다. 불에 태울 경우는 햇불을 놓고 태우거나 벽고래이(아궁이의 경북 방언)에 집어 넣어 태웠다고 한다. 제보자는 태를 ‘이승가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 ⇒ {일주일 지나면 칠일 지나면 걷어뺀다} 아이가.
- ⇒ 어데 {물에 그런데 갖다 여뺀다} 카데.
- ⇒ {불 안 때니께 뭐 강에 갖다 떠우는} 사람도 있고.
- ⇒ 동촌 {강에 마이 갖다 내비래고}.
- ⇒ 그때 {햇불놓는기래. 어떤 사람은 벽고래이 쥐 여뺀다}.
- ⇒ {아궁지에 낭그로 불 열잖아}.
- ⇒ 태. {저 이승 가는 거?}

## 6.5. 배꼽 관리 하기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탯줄을 자른 자리는 두 칠(14일)에서 삼 칠(21일)이 되면 배꼽이 여물어서 배꼽이 생기는데 제보자들은 ‘배꼽, 뱃총’이라 하였다. 배꼽을 잘못 처리하면 배꼽 부근에 염증이 생기거나 배꼽 모양이 이쁘지 않게 되므로 물이 안 들어 가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쓴다. 배꼽이 여물지 않았는데 배꼽을 잡아 당기면 배꼽이 특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배꼽을 ‘오지배꼽’이라 한다. 배꼽 처리를 잘못하면 미운 배꼽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배꼽을 당기거나 탯줄 처리한 부분이 뼈뚫하게 놓이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배꼽’의 경남방언에는 ‘배총, 배구녕, 배구명, 배꾸넉, 배꾸넉, 배꾸명, 배꾸락지, 배꾸떡, 배꾸명, 배꾸목, 배꾸몽, 배꾸미, 배꾸영, 배꾸붕, 배꾸, 배꾸’ 등의 어형이 있다.(방언검색프로그램)

- ⇒ 아들은 한 보름 여믄끼네 떨어지고. {뱃총이라} 그랬다. 뱃총.
- ⇒ 여는 {뱃총이라} 카데. 전부. 딱 실로 묶어놨는 그거 인제. 한. 한보름되야 떨어지고.
- ⇒ 병 묵는 매로 바삭하이 그렇데. 버릿뿌따.
- ⇒ 저저 못 안 아들은 한. 한 {보름 여믄끼네} 떨어지고.
- ⇒ {배꼽이} 삼칠 가야 완전히 나올 꼴. 삼칠 가야 완전히 나아. 배꼽이.
- ⇒ 그래 아들 저 {뱃총} 그래 이쁘게 하라 카잖아. 뱃총. 뱃총이라 하데. 뱃총. 배꼽이 고걸 갖다 똑 떨어지면 뱃총이라.
- ⇒ 보통 어렸을 {땡겨뿌니께 배꼽이 특 티나온}.
- ⇒ 배꼽을 여게 잘 얹어놔야 되지. 배꼽을 {뼈뚫하게 놓던가. 땡겨게 놓던가}. 배꼽이 이쁘게 안놔져.
- ⇒ 어데 뭐 {오지 배꼽이라} 하던가 뭐뭐 윈. 배꼽이라.

## 6.6. 출산 후 의식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탄생에 관한 여러 종류의 의식을 치른다. 이런 성장 단계별 의식을 치르는 것은 아이가 건강히 성장하는 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건강을 기원, 그리고 수고를 다해 기른 부모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도 있다.

### 6.6.1. 삼날, 초칠, 두칠, 삼칠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 의식 중 칠일에 해당되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출산 후 이래째 되는 첫 칠일인 ‘초칠’, 두 번째 칠일을 ‘두칠’이라 하였으며, 세 번째를 ‘삼칠’이라 하여 초칠, 두칠, 삼칠까지는 삼신판을 차려서 삼신께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삼칠 뿐 아니라 일곱칠까지 챙겨서 일정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산 후 칠일 째

마다 삼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아기의 건강을 기원한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삼일째 되는 날을 ‘삼날’이라 하는데 이 삼날에도 삼신을 위한 삼신판을 새벽에 차리고 삼신께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 ⇒ {삼일}. 삼일 째. {삼날이라} 그래.
- ⇒ {삼 지킨 사람은} 찬물 떠놓고.
- ⇒ 응. {초칠} {이칠} {삼칠} 다 해. 다 그래 물. 미역국 끓여놓고 밥해놓고 국 떠놓고/ 그래 짐 이 집에 만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 크. 아 초칠도 안 갔는데 세상에 금방 집에 어마이가 어데 저게 뭐로. 초상집이라던가. 어데 뭐 가. 어데 가. 그래고 세상에 들어왔더란다.
- ⇒ 미역은 옛날에는 큰 대각 있었거든. 지금은 대각 그기 없지만 큰 대각 점도록 한 번 사고. 사가지고 오면은 한 나무로 사오면은 칠. 칠. 다가도록 {일곱칠} 다가도록 그거로.
- ⇒ {삼신판에} 인제. 상 채려가 놓고. {삼칠 지내 삼칠날} 아침에.
- ⇒ 삼신할마님 우에든동 저 어린 걸 그저 보살펴 주시고 명주고 복주고 아무 허물없이 잘 보살펴 달라고 이래.

### 6.6.2. 백일

아이가 태어나서 백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는데 이날도 삼신께 삼신상을 차리는데 흰시루떡과 수수떡을 하였다. 아기의 백일에 흰시루떡을 백 명이상 나눠먹으면 아기에게 좋다고 하고, 수수떡을 해 먹으면 나쁜 기운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아이들의 백일, 돌에는 ‘바람떡’을 먹었는데 바람떡은 만두처럼 생겼으나 속에 소를 넣지 않은 떡으로 속이 빈 떡을 만들어 먹은 이유는 속이 비어있는 바람떡을 먹으면 아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믿어서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바람떡’은 ‘개피떡’의 강원방언이라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람떡과는 의미가 다르다. 바람떡은 만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망두떡(만두떡)이라 하기도 한다.

- ⇒ 백일. {백일}날도 {백일이라고} 그때도 인제 떡 해놓고/ 저거는 유치원에 가가 뺏겼고. 요요 포란 옷 입힌 요거는 인자 백일 때. 아이다. 백일 때 뻤겠나. 보이. 또 요짜은 돌 때.
- ⇒ {백일이라고} 백편.
- ⇒ 백일엔. 백일엔 {수수떡} 해가지고 백편하고 수구떡 하고 해가지고.
- ⇒ 그거 인제 돌. 백일에는 {망두떡}.
- ⇒ 그 이름이 {바람떡이래}. 속에는 소가 한 개도 없고 병그러이니깐 거 이름이 바람떡이라. 바람떡.

### 6.6.3. 돌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생일을 돌이라 한다. 돌이 되면 이전에 치뤘던 의식보다는 큰 잔치를 하는데 이를 돌잔치라 한다. 돌잔치는 아이가 일 년 동안 별 탈 없이 자

란 것에 대한 축하와 부모가 잘 키운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여러 친지들을 모셔 아이가 잘 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돌잔치에서는 돌잡이를 하였는데 아이 앞에 ‘연필, 붓, 책, 실타래’ 등을 올려 놓고 아이에게 잡게 한 뒤 아이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였다. 실을 잡으면 명이 길고 연필, 붓, 책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고 한다.

- ⇒ 책도 놓고 실. 실. 옛날에 실타래를 왜 그제. 실타래를 놔잖아. {돌 잔치} 할 때. 그제 실타래를 놓고. 그제 아로 가 집어라 카마 뭐 가가지고 연필이나 붓이나 지른 공부 잘한다.
- ⇒ 뭐 {연필도 놓고 뭐. 붓. 옛날에 도 붓도 놓고} 뭐.
- ⇒ 그제 아로 가 집어라 카마 뭐 가가지고 {연필이나 붓이나 지른 공부 잘한다 성공한다 카고 또 실글은 거 지면 명 지다 카고} 그랬다.

이상의 출산 후 행위 및 의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조사 항목	
산모 관련 행위	산후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 조리, 몸조리, 조리하다, 바라지하다</li> <li>아들 농면은 일곱칠, 딸 농면 삼칠일</li> <li>병지다, 바람들다, 바람분다</li> <li>• 국밥, 미역국</li> <li>• 몸에 끼가 있다, 삼칠 비치다</li> <li>• 바람 들다, 바람에 좋다, 연물 나오다</li> </ul>
	젖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젖 돌다, 젖줄이 열래다, 노라이 젖이 나오다, 젖 물리다, 젖 모자라다, 젖이 없다, 젖이 흔하다, 젖이 좋다, 유젖이 좋다, 젖 떨어지다, 젖 비배다</li> <li>• 참젖, 무젖, 물젖, 우문젖</li> <li>• 떨겅다, 보양다</li> <li>• 가물치, 족발, 잉어</li> <li>• 우유갈기</li> </ul>
신생아 관련 행위	삼일만에 옷 입히기, 삼일만에 씻개다 물 조개 떠 먹이다, 태변 누이기, 뱃속에 똥 누이기	
금줄 치기	명칭	금구줄, 금구, 금줄, 금석, 금석줄, 금색천다, 쟁구다, 썬우다
	종류	아들 금줄(숯, 꼬치, 미역, 돌), 딸 금줄(손깍, 솔잎)
	처리	칠일 지나면 걷어낸다,
태 처리 하기	명칭	태, 이승가는 거
	처리	덩기에 묻다, 물에 갖다 쫓다, 강에 띄우다, 강에 내비래다 삼일만에 햇볕 놓고 태우다, 벽고래이 쥐 쫓다
배꼽 관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꼽, 뱃총, 오지배꼽</li> <li>• 뱃총 여물다, 뱃총 떨어지다</li> <li>• 뱃총 당개면 안된다, 물 들어가면 안된다</li> </ul>	
출산 후 의식	명칭	삼일날, 초칠, 이칠, 삼칠, 삼칠일, 백일, 돌
	삼날,삼칠	삼신판, 삼신상
	백일	백편, 백짬, 망두, 망두떡, 바람떡, 수수떡, 수수떡
	돌	돌잔치, 연필, 붓, 책, 실타래, 지다, 실지몬 명 질다

## 7. 기타

기타 조사 어휘는 크게 신생아 관련 어휘와 임신부 관련 어휘로 나누었다. 신생아 관련 어휘는 다시 신생아의 호칭에 관련된 어휘와 신생아 신체 관련 어휘로 하위 범주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 7.1. 신생아 관련 어휘

신생아 관련 어휘에는 신생아의 호칭에 관한 어휘와 신생아의 신체에 관련된 어휘가 조사되었다. 신체에 관련된 어휘는 음부의 명칭과 음부의 형태에 관련된 어휘가 많이 조사되었다.

#### 7.1.1. 호칭

경상도에서는 ‘아이’를 ‘얼라, 아’라는 어휘로 많이 표현하였고, 여자 아이를 ‘가스나, 가시나’로, 남자 아이를 ‘머스마, 머시마, 머시매’ 등의 경상방언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쌍둥이’를 ‘쌍디이’라 하기도 하고 ‘삼쌍둥이, 세쌍둥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태아는 열 달 동안 엄마 배 속에 있다가 나와야 하지만 열 달을 채우지 못 한 아이들도 많았다. 칠삭둥이를 ‘일곱달백이 혹은 칠부’, 팔삭둥이를 ‘여덟달백이 혹은 팔부’, 구삭둥이를 ‘아홉달백이’라 불렀다.

- ⇒ 우리 {막내이는}. 우리 막내이 거는 우리 사촌동서가 오가지고 텃줄로 끊고.
- ⇒ 우리 또 {딸래미는}.
- ⇒ 우리 아들 저기 우째 저 {가스나가 안되고 머스마가 되갓고} 내 한을 다 풀어주노. 응? 그래 생각하는기라. 내 지금 그칸다.
- ⇒ 서른 여섯에 그래 참 고상. {므시매} 둘이만 보고 참 그냥 살고 있어.
- ⇒ {얼라} 엉덩이를 막 찾아. 그래 짜매는거야./ 그래 아. 고마. {얼라} 때 고마 배를 꿰어.
- ⇒ 두나 든 건 {쌍둥이고}. 시. 시나 놓는걸 {삼쌍둥이고. 세쌍둥이}.
- ⇒ 그거는 아홉달만 나온 거는. 아홉 저게 {아홉달백이라} 카고. 여덟달만 나온 거는 {여덟달백이라} 카고 이라대.
- ⇒ 그거 여덟달 노면 {팔부} 딸.
- ⇒ 그래도 {아홉달백이보다} 칠. {저거 일곱달백이}가 더 잘. 똑똑. 더 잘 살더라.
- ⇒ 일곱달만에 난 거는 {칠부라} 그러데.

### 7.1.2. 신체 관련 어휘

#### 1) 음부 명칭

아이의 음부는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서 많이 이야기 하였는데 아들일 경우에는 ‘고추, 꼬치’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딸인 경우에는 ‘잠지, 째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외에도 딸인 경우는 음부의 모양에 따라 ‘불알잠지, 말코잠지, 말코자지, 말코보지’라 불렀다. ‘불알잠지’는 남성의 음경이 튀어 나온 것처럼 조금 불룩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말한다. ‘불알+잠지’의 형태인 합성어로 여성의 음부인 잠지가 남성의 것처럼 조금 불룩하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불알잠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생은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말코잠지, 말코자지, 말코보지’는 같은 의미로 말의 꼬처럼 길쭉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자지’와 ‘잠지’모두를 남성의 성기를 비하해 혹은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이라고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보자들은 ‘잠지, 보지’ 여성의 음부를 ‘자지’는 남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코자지’에서는 ‘말코+자지’의 형태이지만 남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 꼬처럼 길쭉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말코잠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생을 낳아도 딸을 낳는다고 한다.

- ⇒ 아들 놓으면 고추 났다 카는 사람도 있고 아들 났다 카는 사람도 있고.
- ⇒ 꼬치가 없지. 꼬치 안차고 나왔으니 꼬치가 없지.
- ⇒ 불알잠지랬잖아. 요래 동그란 게. 끝이 동글개. 불알잠지라. 말코같이 지단한 건 말코. 말코자지라. 머 째지란 소리는 어데 하나. 옛날에 무식하면 말코보지라 하고.

#### 2) 음부 형태

음부의 형태는 주로 ‘불알잠지와 말코잠지’에 관련된 어휘이다. 불알잠지는 여성의 음부 중 살과 맞는 부분 끝이 동그랗게 생기고 잠지가 남성의 것처럼 조금 불룩하이(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다르게 말코잠지는 여성의 음부와 살과 맞는 부분의 선이 기다랗게 쪽 이어졌다. 이 선이 말코처럼 지단하게(길게) 생겼다는 것이다.

- ⇒ {불알잠지랬잖아}. 요래 동그란 게. 끝이 동글개. 불알잠지라. 말코같이 지단한 건 말코. {말코자지라}. 그래. 자. 자는 자는 동그랗게 딱 꺾였다.
- ⇒ {쪽 께졌는 거} 있고.
- ⇒ 여기 이래 {불룩하이. 이 풀둑 튀어나왔데}.
- ⇒ 아이래 사무 죽 {재쳐부고. 요래 동그롬 하이}. 자매로 이래 끝이 딱 이쁘게 사람도 있고. 그래.

## 7.2. 임신부 관련 어휘

임산부에 관련된 어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성과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명칭에 관한 것이다.

- ⇒ 애기 못한 사람 {들짜라} 카더라.
- ⇒ {초산도 못했다} 이래.
- ⇒ 애기 못 놓는 부른 말도 없고 저 사람들 애기도 못낳았다 {배태도 못해봤다} 카는가.
- ⇒ 그건 {단산했다고}. 단산.
- ⇒ 안 놓는 걸 인자 {애기 다 낳다} 카지. 하하.

경북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들짜’라 하였으나 경남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특정 어휘는 없었고 ‘초산도 못 한다’, ‘애기 못 가진다’, ‘배태도 못 해봤다’ 등의 형태로 풀어서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를 ‘단산했다, 애기 다 낳다’라고 한다.

이상으로 기타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조사 항목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얼라, 가스나, 머스마, 므시매, 팔래미 쌍둥이, 쌍디이, 삼쌍둥이 아홉달백이, 여덟달백이, 일곱달백이, 칠부, 팔부	
	신체 관련 명칭	성기 명칭	고추, 꼬치, 잠지, 불알잠지, 말코잠지, 말코자지, 말 코보지
		형태	지단하다, 찢끔하다, 쪽 께지다, 동그랗다, 동그롭하 다, 불дук하다, 풀дук 튀나오다
임산부 관련 어휘	들짜, 배태도 못하다, 초산도 못하다 애기 다 낳다, 단산하다, 죽은 아 놓다, 사산하다		



## 제 3 부

#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경상도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조사 어휘를 살펴 보았다. 임신, 출산에 관한 생활어 조사는 경상북도 영양, 봉화, 대구 제보자와 경상남도 의령, 함안 제보자 3명 씩 총 6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임신, 출산 준비물, 임신, 출산 관련 금기, 임신, 출산 관련 속설, 임신, 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등에 관해서이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에서 기자대상에는 삼신, 삼신할마이, 삼신할마님이 있었고, 기자 행위로는 백일기도 하다, 음식 차려 놓다, 물 떠놓고 빌다, 피옷 입고 진자리 앉아 미역국 먹다, 피옷 빌려입다 등의 어휘가 있었다.

2) 임신, 출산 준비물에는 아이를 위한 준비물에는 배냇저고리/ 이란저고리, 기저귀. 기주개/ 기저구, 두 대기/ 애기이불/ 포대기/ 띠/ 띠개/ 어울대가 있었다. 임부를 위한 준비물에는 ‘피옷’이 대표적이었고 국밥을 끓이기 위해 미역과 쌀도 따로 준비해 두었다.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로는 ‘가위, 실, 실꾸리, 소구리’ 등이 필요하다. 준비물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사용하는 말이 달랐다.

3)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에 관한 생활어에서 금기에 관한 말이 많았고 금기는 출산 전 금기, 출산 후 금기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음식 관련 금기와 행위 관련 금기로 나눌 수 있다. 출산 전 음식 금기로는 오리고기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왔다. 오리의 모습이 아기와 닮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고 상가나 제사의 음식을 잘 못 먹으로 부정을 타서 산모가 아프거나 아기가 아파서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아기가 태어나고 3일 동안은 특히 이 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다. 가족 중 누구라도 이 금기를 어기면 아기가 이유도 없이 계속 울거나 아프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고 믿고 있었다.

4) 임신, 출산에 관련된 속설도 많이 조사되었는데 임부를 보고 태아의 성별을 가늠하는 속설이 가장 많았으며, 유산에 관련된 속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산모의 배 모양을 보고 태아 성별을 구별하는 속설이 많았는데 딸은 배

모양이 바가지를 엮어놓은 것처럼 볼록 튀어 나왔고 아들은 배 모양이 평퍼짐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산에 관련된 속설은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끼고 있던 반지, 은가락지를 삶은 물을 마시거나 수제비를 임부 나이만큼 먹으면 괜찮았다고 한다. 기타 속설에는 임부가 잉어를 먹으면 아기 눈이 예쁘거나 피부가 뽀얗다고 한다. 그리고 동생이 생길 때 형이 목에다 무엇을 자꾸 두르면 남동생을 놓고, 머리에 자꾸 이고 다니는 행위를 하면 여동생을 놓는다고 한다.

5) 임신, 출산의 과정에 관련된 생활어는 임신과 관련된 과정에 관한 것과 출산 과정에 관련된 것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임신에 관련된 어휘 중에는 ‘입덧’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 있었고, 출산 과정에 관해서는 아기가 나올 기미를 보이는 단계에서 아기가 나오고, 탯줄 끊고, 태가 나오는 등 출산의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6) 출산 후에도 산모나 태아에게 건강상 필요한 행위가 있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산 의식이 행해졌다. 산모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산후조리도 중요하였으며 산후조리는 음식을 먹는 것과 편히 쉬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사내아이를 낳는지 딸을 낳는 지에 차이가 있었으며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못 했을 경우는 이후에 큰 고생을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산모는 아기의 생명과 직결된 젖 관리에 힘썼다. 신생아에게는 엄마의 젖이 돌기 시작하는 삼일 간은 약간씩 물만 먹여 뱃속에 똥인 태변을 누게 했으며, 삼일 부정이라 하여 삼일 간은 옷도 입히지 않고 씻기지도 않는 등 세상에 없는 듯 행동했다고 한다.

7) 기타 조사 어휘로는 신생아의 호칭에 관련된 어휘와 신생아 신체 관련 어휘, 산모에 관련된 호칭 등에 관한 어휘이다. 아기의 성기에 관련한 어휘는 다양하게 나왔는데 남자 아이는 대부분 ‘고추’로 통하였으며, 여자 아이는 이후에 남동생을 낳을 것인지, 여동생을 낳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자 아이의 성기 모양에 따라 불알잠지, 말코잠지 등의 이름이 붙었는데, 이는 동그랗고 통통하게 생긴 형태로 여자 아이가 이런 성기 모양이면 후에 남동생을 낳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경상도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조사를 통해, 본 조사는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임신, 출산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어를 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 2) 임신, 출산에 관해 분류체계를 나누고,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여 경상도 임신, 출산에 관련된 어휘에 대해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3) 제보자의 구술 발화를 통해 경상도 지역의 다양한 방언 어휘를 수집할 수 있었다.
- 4) 경북과 경남의 여러 지역 제보자를 조사하여 임신, 출산에 관한 생활어의 지역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 5) 수집한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비교 작업을 통해 수집 어휘의 등재여부와 사전과의 의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6) 수집한 어휘를 방언검색프로그램과 비교 작업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검증, 수정할 수 있었다.
- 7)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음성전사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의 임신, 출산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경상도 지역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많은 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지만 조사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더 많은 어휘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2) 제보자들의 어휘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차이가 있는 어휘가 나왔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들 지역의 어휘를 비교하지 못해 아쉬웠다. 실제로 조사된 어휘 중에는 지역 별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은 어휘도 있었다. 이는 앞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조사에 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 3) 제보자 중에는 민가와 반가의 제보자가 있었는데 사실상 조사 내용에서는 민가와 반가의 어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었다. 반가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어휘 내용의 차이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보자 뿐 아니라 해당 반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계화(1999), 『임신·출산·산후조리 OK』, 진리탐구.
- 김난희(2004), 『임신&태교』, 김영사.
- 김도향(1998), 『마음으로 만나는 태교 : 김도향의 태교에세이』, 프리미엄북스.
- 김열규(2006), 한국인의 자서전, 웅진씽크빅.
- 김용덕(1994), 한국의 풍속사1, 밀알.
- 김재일(1997), 우리 민속 아흔아홉 마당1, 한림미디어.
- 대한산부인과학회(1991), 『임신과 분만: 임신 시부터 산욕기』, 한동출판사.
- 박금자(2003), 『임신과 출산의 행복어사전』, 민미디어.
- 최래옥(1992), 우리민속의 멋과 얼, 동흥문화사.
- 최인학 외(2001),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부 부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분류정보	분류정보2	분류정보3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대상		상신할머니 표준어	상신할머니	올림말 상신할머니	명	상신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상신04'을 달리 이르는 말. 상신은 아기를 정지하고 산모와 신이(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상신할머니}한테 저 가 받았죠.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신에게서 임신을, 아들을 가지기를 받았다고 한다.	신에 받다	구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신에게서 임신을, 아들을 가지기를 받았다고 한다. 신부 중이들이라고	받기도 하. 받. 받아도 그. 옛날에 많이 안 했더니, {신에 접매가 빌어거]} 놓은 자식.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접매기서 임신을, 아들을 가지기를 받았다고 한다.	접매 받다	구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접매기서 임신을, 아들을 가지기를 받았다고 한다. 신부 중이들이라고	받기도 하. 받. 받아도 그. 옛날에 많이 안 했더니, {신에 접매가 빌어거]} 놓은 자식.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복락을 가지고 백 일 동안 기도를 드림, 또 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	백일기도	명	복락을 가지고 백 일 동안 기도를 드림, 또 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	절에 기도하러 많이 갔어. 백일, {백일 기도}라고.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상신을 위해 음식을 차려 놓고 임신을, 아들이 가지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음속 차려놓다	구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상신을 위해 음식을 차려 놓고 임신을, 아들이 가지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음속 차려놓고} 해요.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상신을 위해 새벽에 몸을 뜨고 임신을, 아들이 가지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몸 뜨는 날	구	아기를 갖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상신을 위해 새벽에 몸을 뜨고 임신을, 아들이 가지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저게 그릇처럼 {몸 뜨}는 때 놓고 그래 받았잖아.}{몸 뜨는 날}이래.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신모가 출산할 때 임는 옷.	피옷	명	신모가 출산할 때 임는 옷.	{피옷을}, 그거를, 자기가 임는데, 자기가 임어보는 때로. 자기가 그거 입고, 그 {진지}라, 양아가자고 미역국을 먹고, 그, 그러라, 카데, 그레고 하는 자기도. 아들을, 인자, 아를 낳는다.		피옷은 신모가 출산할 때 임는 옷으로 출산 시 아기가 나올 때 그리고 태반이 나올 때 피도 같이 나오는데 이 때 신모가 임는 옷에는 피가 묻는 데 양아가자고 미역국을 먹고, 그, 그러라, 카데, 그레고 하는 자기도. 아들을, 인자, 아를 낳는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아이들 갖 놓은 그 자리.	진자리	명	아이들 갖 놓은 그 자리.	피옷을, 그거를, 자기가 임는데, 자기가 임어보는 때로. 자기가 그거 입고, 그 {진지}라, 양아가자고 미역국을 먹고, 그, 그러라, 카데, 그레고 하는 자기도. 아들을, 인자, 아를 낳는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자의식	행위			출산하면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아기를 낳았 나은 자리에서 출산 후 바로 미역국을 먹는다.	피옷 먹다	명	출산하면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아기를 낳았 나은 자리에서 출산 후 바로 미역국을 먹는다.	{피옷을, 그거를, 자기가 임는데, 자기가 임어보는 때로. 자기가 그거 입고, 그 {진지}라, 양아가자고 미역국을 먹고, 그, 그러라, 카데, 그레고 하는 자기도. 아들을, 인자, 아를 낳는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본문	본문	본문	본문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산모를 위한 준비물			미역	칼조루 미역과의 한해설이 버터말, 육은 넓고 편평하며, 날개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기둥 모양의 자루로 되어 바위에 붙어 있다.		명	{미역은} 옛날에는 큰 대각 있었거든. 지금은 대각 그기 없지만 큰 대각 정도를 한 번 사고, 사가지고 오면은 한 나무로 사오면은 칠, 칠, 다가도록 일곱칠 다가도록 그기루 짚이가 뚫는다./ {미역은} 애기 놓아 인지 사라 가지.			한정순(의령) 이점(황안)	김용덕(1994)	*	0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산모를 위한 준비물			대각	미역을 판매 당위로 어른의 팔각이만큼 되는데 미역의 큰 꾸러미를 이르른 말.		명		{대각} 그기 없지만 큰 대각 정도를 한 번 사고, 사가지고 오면은 한 나무로 사오면은 칠, 칠, 다가도록 일곱칠 다가도록 그기루 짚이가 뚫는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산모를 위한 준비물			뽕	버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		명		{뽕하고} 미역하고는, 인지 고 날기 전에 꼭 준비해 보야 돼. 그래 준비해뒀다가 애기를 놓으면 자 국밥을 미역을 짚어야 되거든. 미역을 준비.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김용덕(1994)	*	0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배냇저고리	깃과 쇠를 달지 않은, 갓난아이의 옷. 누갓저고리, 배내옷.		명		애기 옷은, 옷은 그전에 와 담았으나, 담, 담배라고 부를뚱뚱하여 복신하이, 그기를 인지 사가지고 {배냇저고리}, 무슨 배냇저고리로. 그래 만들어가 입혔지.		한정순(의령)	김용덕(1994)	*	0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뽕' 다르게 이르는 말. 깃과 쇠를 달지 않은, 갓난아이의 옷. 누갓저고리, 배내옷.		명		애기 옷은, 옷은 그전에 와 담았으나, 담, 담배라고 부를뚱뚱하여 복신하이, 그기를 인지 사가지고 {배냇저고리}, 무슨 배냇저고리로. 그래 만들어가 입혔지.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저고리	깃과 쇠를 달지 않은, 갓난아이의 옷. 배냇저고리의 강남방언.		명		{저고리}, 만들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이랑저고리	깃과 쇠를 달지 않은, 갓난아이의 옷. '배냇저고리'의 강남방언.		명		그냥 요래 두태개 써서 놔뒀다가 상일 만에 싹개 기지고 그래 {이랑저고리} 했어.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기저귀	어린이의 풍오줌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린 사이에 채우는 물건. 전이나 종이로 만든다.		명		준비 해놓는 게, 아 {기저귀}, 뭐 저저저, 저저저도 영국은 현 옷 뜯어조개 그런 거기 {기저귀} 했지. 저가 저, 아네 가재 그런 거기 딱 해야. 참 그거라. 딱이된다.		최인학 외 (2001)	*	0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기저귀	어린이의 풍오줌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린 사이에 채우는 물건. 전이나 종이로 만든다. '기저귀'의 강남방언.		명		그런 흔히 뭐 {기저귀} 같은 거 준비하고, 애기 나온 일했. 뭐.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어휘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기저귀	어린이의 풍오줌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린 사이에 채우는 물건. 전이나 종이로 만든다. '기저귀'의 강남방언.		명		옛날에서 뭐 {기저귀} 있나 뭐. 우리 애들 키울 땐 {기저귀} 없으니까, 그제 뒤야기지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빈도 정보 사교	빈도 정보 어휘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부)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기저귀	올림말	기저귀	명	어린이의 똥오줌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린 자리에 채우는 물건. 천이나 종이로 만든다. 기저귀의 방음(경상).	그것도 똥 싸고 하모 또 우레 {기저귀도} 하. 모. 알꽃이 맡아쫓고. 그 말라가지고 맘하고.	기저귀의 경남방언에는 '계주개, 기저기, 기질기, 기조개, 기주개, 기지개, 기저리, 사배, 사파, 사두디기, 설팔, 지저기' 등의 어휘가 있다. <방언감각프로그람>	이정이(함안)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참기저귀	올림말	참기저귀	명	현으로 만든 기저귀.	{참기저귀는} 옛날에 알 고무줄. 매가지고 그렇게 지게 지웠다.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삼배기저귀	올림말	삼배기저귀	명	삼배로 만든 기저귀.	그래가 이 차는 기나 있으나, 차는 것도 영이 {삼배 기저귀}. 삼배 안했다. 삼배 그하. 하고 했는데.	조선회(함안)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행위			저다	올림말	저다	동	물건을 옮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닌다.	그래가 이 {차는} 기나 있다. {차는} 것도 영이 삼배 기저귀. 삼배 안했다. 삼배 그하. 하고 했는데.	조선회(함안)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채우다	올림말	채우다	동	물건을 옮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닌다.	참기저귀는 옛날에 알 고무줄. 매가지고 그렇게 지게 {지웠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찌매다	올림말	찌매다	동	천진감에서 매다. '삼아매다', '저매다'의 경남방언. 여기서 '삼아매다'는 저매다의 경남방언으로 사용되었다.	아래 배서 아 등드리 데일만지 곤드라 문드 리거든. 문지르거든 여것하고 요것하고 {찌매고} 요것하고 요것하고 {찌매고}, 도통하 이. 고래, 거다 {찌매가}. 고래는 고기해가 아올다고.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고우줄 매다	올림말	고우줄 매다	구	참기저귀를 묶에 고정하기 위해 노란 고무줄을 묶어 아기 배부분에 감다.	참기저귀는 영넝에 알 {고우줄 매가지고} 그렇게 지게 지웠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포대기	올림말	포대기	명	어린이의 작은 이불. 덮고 깔거나 어린이 이불을 입을 때 쓴다.	응. 영는 전부 애기이불이라. 그래. {포대기라} 안 그러고 애기이불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북된 이불과는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말인데, 영의 제모자는 포대기 중에서 기를, 겨울에 사용하는 두꺼운 포대기를 이불이라 하였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포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깔고 덮는 이불을 주문 개질에는 바로 포대기로 이용해 아기를 입혔다고 한다.	최인학 외 (2001)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포대기 꺼리다	올림말	포대기 꺼리다	구	포대기를 이용해 아기를 엮다. 여기서 '꺼리다'는 포대기와 연어 형식으로 나오는 말인데 경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포대기를 이용해 아기를 엮다'를 '포대기 꺼리다'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꺼리다'는 포대기와 연어 형식으로 나오는 말인데 경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포대기를 이용해 아기를 엮다'를 '포대기 꺼리다'라고 표현하였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이불	올림말	이불	명	'포대기'를 다르게 이르는 말.	아. {이불}?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북된 이불과는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말인데, 영의 제모자는 포대기 중에서 기를, 겨울에 사용하는 두꺼운 포대기를 이불이라 하였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포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깔고 덮는 이불을 주문 개질에는 바로 포대기로 이용해 아기를 입혔다고 한다.	한정순(의령)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첨정보	표준국어대사전 의용사(해부)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포대기	포대기	올림말: 에기이불	명	명	포대기'를 다르게 이르는 말.	으응, 여는 전부 {에기이불이라} 그래, 포대기라 인 그리고 {에기이불}	한장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올림말: 어올대	명	명	포대기를 다르게 이르는 말. 포대기의 다른 형태로 어름에 쓴 어올대는 전이 아기 몸매에 쓰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입을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기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귀퉁이에 긴 끈을 붙여 아기를 엮고 아래, 위로 묶어 아기를 엮었다.	에기 이불. 또 저저 어 {어올대라고}. {어올대}.	경남 의령에서는 거울에 쓰는 포대기를 이불이라 하였고, 어름에 쓰는 것은 어올대라고 하였다. 제모자는, 입을 때는 쓰는 것이라서 '어올대, 어올대'라고 하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어올대'는 '얇구/수-을/수/대/구조의 합성어'도 될 수 있다.	한장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포대기	포대기	올림말: 두대개	명	명	아틴아이의 작은 이불.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 입을 엮을 때 쓴다. 포대기의 경남방언.	그냥 요래 {두대개} 써서 놔뒀다가 삼일 만에 씻개 가지고 그래 이랑저고리 했어.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올림말: 두대기	명	명	거울에 아기를 엮는 띠.	미라 옷 놔놓기 전에 {두대기}, 여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경북에서는 아기를 엮는 포대기를 '두대개, 두대기, 띠, 에기띠, 띠개'로 부르고 있었는데 거울에는 '두대개, 두대기'를 여름에는 '띠, 띠개, 에기띠'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띠	띠	올림말: 띠	명	명	어름에 아기를 엮는 끈.	그기 액닐에는 띠라, 띠, / 액닐에는 남의 하개 해놓는 거 {띠라} 했잖아.	경북에서는 아기를 엮는 포대기를 '두대개, 두대기, 띠, 에기띠, 띠개'로 부르고 있었는데 거울에는 '두대개, 두대기'를 여름에는 '띠, 띠개, 에기띠'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에기띠	에기띠	올림말: 에기띠	명	명	아기를 엮는 띠. '띠'를 다르게 이르는 말.	그개 {에기띠라}.	에기띠는 포대기와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직사각형의 전매 각 귀퉁이에 에긴 끈을 달아 위쪽에도 묶고, 아래 쪽에도 묶는 형태이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띠개	띠개	올림말: 띠개	명	명	아기를 엮는 띠. '띠'를 다르게 이르는 말.	애기 {띠개}.	경북에서는 아기를 엮는 포대기를 '두대개, 두대기, 띠, 에기띠, 띠개'로 부르고 있었는데 거울에는 '두대개, 두대기'를 여름에는 '띠, 띠개, 에기띠'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끈			올림말: 끈네개	명	명	몸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노, 줄, 실, 항줄, 오리, 가족, 오리 따위가 있다. 풀간에 붙어서 잡아매거나 손잡이로 쓰는 물건.	그건 입자 안매, 안매다. 속을 놔가지고 그래, 인제 이거 매는 매는 {끈네개} 동리 따위가 있다. 풀간에 붙어서 잡아매거나 손잡이로 쓰는 물건.	한장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올림말: 한웃	명	명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남은 웃.	얇고 {한웃} 뜯어가지고, 그래 뽕글까지 한웃을 뜯어가지고 아기 빼너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장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강육	강육	올림말: 강육	명	명	면의 한 종류.	헛날에 있는 데로지, 위, {강육이면} {강육}.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표준어 제외)	별칭(표준어 제외)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반복하고 많으면서 꽤 높다. '높적하다'의 변형(경상, 전남).	동	동	옛날에 {남덕허개} 해놓는 거 따라 했잖아.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남덕허다'가 '높적하다'의 전음지역 방언이라 되어 있지만 경북의 화지들도 사용하고 있었다.	금강,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짜매다	틀어지지 않게 한데 매다. '잡어매다'의 방언.	동	동	이쪽에 두 개, 그레 네 개면은 밑에 {짜매고} 매기 얹고. 그러이 또 우에 {짜매고}.	금강,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재료		배	아기를 위한 준비물	명	명	옛날에는 {배를} 인제 놓잡는가. {배} {배} 보가지고 인제 짜면은 그거 인제, 그거.	금강, 금강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재료		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명	명	{툼이} 나와. {툼이러} 카는 게.	금강,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부분 명칭		관트리	아기를 위한 준비물	명	명	그는 인자 배를 낳다가 배 아래 한 개가, 배 아래 안 있올제, 오만지 여다가 아래 이레 되면 인자 움직를다. 아래 배서 아 들리 데일만치 {관트리} 문드리카는 움직르 카는 여섯하고 요섯하고 짜매고 요섯하고 짜매고. 고거는 고거해가 어울더고.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누르다	아기를 위한 준비물	동	동	툼의 진제 면이나 부분에 대하여 함어니 무개를 가한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놓하다	아기를 위한 준비물	동	동	놓게 하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다니다	아기를 위한 준비물	동	동	이리저리 오고 가고 하다. '다니다'의 경상 방언.	다니다의 경상방언은 '망기다'인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망기다'와는 다른 의미이다. 경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휘이다.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만들다	아기를 위한 준비물	동	동	누르거나 기술 따위를 들어 목작하는 시물을 이룬다.	만들다의 경남방언은 '망글다, 맨글다, 맨덜다, 맨들다, 망구는 맨글다, 맨글다'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검색포토그램>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만들다	아기를 위한 준비물	동	동	만들거나 기술 따위를 들어 목작하는 시물을 이룬다.	만들다의 경남방언은 '망글다, 맨글다, 맨덜다, 맨들다, 망구는 맨글다, 맨글다'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검색포토그램>	한정순(의령)	*			0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표기	별도 표기(예)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행위	없다	없다	동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이거나 무릎으로 뒹어매어 붙여 있게 하다. '임대'의 경복방언.		근경량, 근경자, 이용순(경복)	*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행위	임해다	임해다	동	한곳 두대개에다가 인제 짜누패고, 이란 자 고리는 상원만에, 사를 상날, 그레 인제 요 가 싹 싹깨가지고 고거 {임해고}, 이레.		근경량, 근경자, 이용순(경복)	*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행위	상태		도록하다	행	그거는 인자 배를 갖다가 배 아래 한 개가, 배 아래 안 있을제, 요만치 여다가, 이레 이 레 되면 인자 문지른다, 이레 베서 아 {들드 린} 태원만치 끈트리 문지리거든, 문지르거든 여섯하고 요것하고 꿰매고 요것하고 요것하고 꿰매고, 고거가 고거가, 고거는 고거해가 어울다고.		한정순(의령)	*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등			등드리	명	그거는 인자 배를 갖다가 배 아래 한 개가, 배 아래 안 있을제, 요만치 여다가, 이레 이 레 되면 인자 문지른다, 이레 베서 아 {들드 린} 태원만치 끈트리 문지리거든, 문지르거든 여섯하고 요것하고 꿰매고 요것하고 요것하고 꿰매고, 고거가 고거가, 고거는 고거해가 어울다고.		한정순(의령)	*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재료			배	명	그거는 인자 {배를} 갖다가 {배} 아래 한 개가, {배} 아래 안 있을제, 요만치 여다가, 이레 되면 인자 문지른다, 이레 베서 아 {들드 린} 태원만치 끈트리 문지리거든, 문지르거든 여섯하고 요것하고 꿰매고 요것하고 꿰매고, 고거가 고거가, 고거는 고거해가 어울다고.		한정순(의령)	*		0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출신과 정을 위한 준비물	재료		배	간배	명	아떻게 낳을 때 그때는, {진배} 준비를 하 지, 가우해하고 싹하고, 이 엿을 만들라고, 뚝 고 준비해놓고, 그레 인자 낳는다.		한정순(의령)	*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재료		배	명배	명	{명배}, 요즘에 치면 {명배지}, {명배를} 가지고.		이정미(함안)	*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재료			담	명	표준어대사전에 수록된 '담'은 '잠'의 뜻을 풀이하여 잘못 쓰여져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담'과 '잠'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담'을 '잠'으로 표기한다. '담'은 '잠'의 뜻을 풀이하여 잘못 쓰여져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담'과 '잠'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담'을 '잠'으로 표기한다.		한정순(의령)	*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재료			명배	명	예기 웃은, 웃은 그전에 와, 담안이나, 담 {담배라고} 보풀보풀이 폭신하이, 그거를 인자 사가지고 애기고리, 무슨 배우지 고리로, 그레 만들어가 임했지.		한정순(의령)	*		



05 임신출산 조사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병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병단 정보3	발음표어 표준어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출신과 정을 위 한 준비 물			니똥당기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출신과 정을 위 한 준비 물	거	거	관찰당기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출신과 정을 위 한 준비 물	치마폭	치마폭	치마폭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출신과 정을 위 한 준비 물	가제대	가제대	가제대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출신과 정을 위 한 준비 물	약솜	약솜	약솜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출신과 정을 위 한 준비 물	삼베지마	삼베지마	삼베지마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병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음식금 기			음식금 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음식금 기			음식금 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금기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종국어 시진 (출처:해부)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음식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너무 제사 잘 안 하고 제사 지내는 육이다	금기	임신 중 음식 금기 중 하나. 남의 집 제사 음식은 먹지 않고 집안 제사 음식은 먹는다 (이야기이다). 남의 집 제사 음식은 아기가 나 신모가 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남의 집 제사 음식은 먹지마라는 금기이다.	제사, 제사도 (너무 제사는 잘 안 육고 먹 지가 제사는 육고.)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음식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제사 음식 안 먹는다	금기	임신 중 음식 금기 중 하나. 남의 집 제사 음식은 먹지 않고 집안 제사 음식은 먹는다 (이야기이다). 남의 집 제사 음식은 아기가 나 임부가 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남의 집 제사 음식은 먹지마라는 금기이다.	{제사음식은 가져 왔는 것도 먹지. 안 먹 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데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음식금기	출산전		원표제어 표준어	오리고기 먹으면 손발이 오디져뎡 된다	금기	임신 중 음식 금기 중 하나. 임신 중에 오리 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오리처럼 손가락 사이가 벌으므로 임부는 오리고기 를 먹지마라는 금기이다.	오리. {오리고기 먹으면 매 손발이 아래에 래 오리 뻗지.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음식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범오 해 먹으면 안 된다	금기	임신 중 음식 금기 중 하나. 임부가 임신 중 에 범오의 것을 훔쳐 먹으면 태어나는 아기가 나쁜살을 타고 난다고 해서 금하였다.	{범오 해도 별로 먹고 싶지}. 범오. 범오께 가 별로 먹고 싶더라 나는.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행이 잠으로 백장동 나온다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임신 중에 임부 가 기침이 잦거나 뺨장을 낚는다. 그 근거는 모르나 임신 중에 임부가 기침을 집으면 자식 이 백장과 같은 전한 사람이 되므로 기침을 만지지마라는 금기이다.	오리알로 무덤은 아 손 붙는다 카고. 아래 아래 한테 붙어버라. 아래 붙더라고오. 이 래 문 사람이 붙더라. 그래. 붙기도 하고 {행이 지런 거로 잠으로. 옛날에는 지 지금 사육정 하는 거로 그 전에는 백장 놓아라 쟈가든.}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말 임가리 놀 노면 영두 열 면에 나온다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임부가 말이 먹 는 것을 행하거나 마구간에 짚을 놓아주면 아기가 매러는 금기이다.	{말 임가리 놀 노면 영두 열면에 나온다} 그 래고.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상기에 안간다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임신 중에 임부 가 부정을 할 수 있으므로 상기에 가지마라 는 금기이다.	상가진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참 가지 도 안 했고.}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출산전		원표제어 표준어	진주 잠으면 발발는다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임신 중에 상이 있는 짐승을 잡아 생명을 해치면 아기가 영 부가 부정을 할 수 있으므로 생명을 죽이 지마라는 금기이다.	임신하기 전에 죽[짐승 같은 거 잠오마 거 인자 발 받아가지고] 자식이 나는 게 나 람 게 난다고 그래 못하게 했지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초상전에 가지 마라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임신 중에 임부 나 가족이 상거나 제사에 가면 아기가 영부 가 부정을 할 수 있으므로 상기에 가지마라 는 금기이다.	{초상난 데 그런 데 가지마라고} 부평하디 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5 임신 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병진 정보	병진 정보	발음규약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출산전			임의 지름에 사물이어 된다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임신 중에 임부가 담을 띄어넘거나 복은 꾸에서 뛰어내리면 임부가 아기를 유산할 수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기이다.	{담도 뛰넘지 마라} 같다.	담을 띄어 넘지마라는 금기는 임부의 유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임신 중 담을 띄어 넘거나 울타리 구멍으로 다니면 자식을 낳아도 도복을 낳는다고 생각하여 금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출산전			출타리 구멍에 빠지마라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임신 중에 임부가 울타리 구멍에 빠지면 임부가 아기를 유산할 수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기이다.	출타리 구멍에 빠지마라. {출타리 구멍에도 빠지지 말고} 빠지나가지 말고 담도 뛰넘지 마라.	담을 띄어 넘지마라는 금기는 임부의 유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임신 중 담을 띄어 넘거나 울타리 구멍으로 다니면 자식을 낳아도 도복을 낳는다고 생각하여 금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출산전			미역은 지름에 사물이어 된다	금기	임신 중 행위 금기 중 하나. 출산을 위한 준비미역은 미역은 미리 사두지 말고 아기가 태어나는 달에 사 놓는다.	{미역하고는, 인지고, 남기 전에 꼭 준비해 보아 돼}. 고래 준비해줬다가 애기를 낳으면 저 죽발을 미역을 깔아야 되거든. 미역을 준비.	미역을 미리 사두면 귀신이 시샘해 서 아기가 부정 할 수 있으니 아기가 태어나는 달에 사야 된다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금기	행위금기	출산후			귀한 지손 얻장대 경자	금기	출산 후 행위 금기 중 하나. 아기가 태어나면 옷줄을 끊어 하는데 귀한 지손을 잃을 경우에는 죄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귀한 지손 얻장대 경자. {귀한 지손 얻장대 경자} 그 옛날에 그랬다. {귀한 지손 얻장대 경자} 그랬잖아.	귀한 지손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죄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옷줄을 끊지 않고 아기 아버지가 이빨로 끊었다 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정별권전속설				이들이면 디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가 아들을 낳기 지만 딸인 경우도 다 몸이 흔들리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인지 못하고서 씩 이거로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아들인게 좀 더더라}. 딸은 쪼개 낳더라.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는 태어났을 경우에는 죄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옷줄을 끊지 않고 아기 아버지가 이빨로 끊었다 고 한다.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전속설				이들은 울은 열라 뛰고 딸은 낳지아 버는 디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가 위쪽으로 열라 뛰고 딸은 낳지아 버는 말이다.	{아들은 조금 더기 이래 요. 더기 오 더지만 울로 돌리뵈고. 이 딸은 조금 낳지아 버는}. {아들은 조금 더기 이래 요. 더기 오 더지만 울로 돌리뵈고. 이 딸은 조금 낳지아 버는}.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는 배가 위쪽으로 열라 뛰고, 딸은 낳지아 버는 말이다. {아들은 조금 더기 이래 요. 더기 오 더지만 울로 돌리뵈고. 이 딸은 조금 낳지아 버는}.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전속설				딸은 쪼개 낳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가 위쪽으로 열라 뛰고 딸은 낳지아 버는 말이다.	우리가 인지 못하고서 씩 이거로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아들인게 좀 더더라}. {딸은 쪼개 낳더라}. {아들은 조금 더기 이래 요. 더기 오 더지만 울로 돌리뵈고. 이 딸은 조금 낳지아 버는}.	태아가 딸일 경우는 아래 쪽으로 배가 내려오고, 볼록한 경우가 많고 아들일 경우에는 배가 가슴 비로 아래 까지 올라와 있고 배 모양이 평평한 모양이었다고 한다.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전속설				바가지 얹어는 가는 딸이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가 바가지 모양이 되어서 바가지 얹어 놓으면 딸이 태어난다는 말이다.	{바가지 얹어는 가는 딸이고}. 좀 평평하면 아들이고 그렇지. 아람.	태아가 딸일 경우는 아래 쪽으로 배가 내려오고, 볼록한 경우가 많고 아들일 경우에는 배가 가슴 비로 아래 까지 올라와 있고 배 모양이 평평한 모양이었다고 한다.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전속설				평평하면 아들이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 모양이 평평하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이다.	바가지 얹어는 가는 딸이고. 좀( 평평하면 아들이고 그렇다). 아람.	태아가 딸일 경우는 아래 쪽으로 배가 내려오고, 볼록한 경우가 많고 아들일 경우에는 배가 가슴 비로 아래 까지 올라와 있고 배 모양이 평평한 모양이었다고 한다.	한정순(의령)							

05 임신 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명단 정보3	명단 정보4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원표제어 표준어	지마가 쪼름하오 딸이고 축 처지오 드스마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지마가 볼 쪽 뒤에 나왔으면 태아가 딸이고 지마 모양이 볼쪽하지 않고 넓게 퍼진 풍파진한 모양이면 아들이다라는 말이다.	뒤에 {치마가 쪼름 하오 딸이고 축 처지오 드스마}.	이는 배모양때문에 차이를 얻은 모습의 차이로 나타난다.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지마자락이 부풀오 딸, 치지오 아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가 바가지를 쏘아놓은 것처럼 볼쪽 뒤에 나왔으면 태아가 딸이고 배모양이 볼쪽하지 않고 넓게 퍼진 풍파진한 모양이다라는 말이다.	지마자락이, {치마자락을 보고 뒤에 뒤에 인제, 커디난게 부풀오 딸이고 축 처지고 뒤 배 막, 아들}.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배가 툭 튀어 나오면 딸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가 바가지 쏘아놓은 것처럼 볼쪽 뒤에 나왔으면 태아가 딸이고 배모양이 볼쪽하지 않고 넓게 퍼진 풍파진한 모양이다라는 말이다.	자, 옛날 어른들은 딸이은 {배만 툭 튀어 나오고}.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허리가 두리두리 하리하면 아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허리가 둥글고 커서 시원하고 보기 좋다.	아들이면 {허리가 두리두리 하고}.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두리두리 하리		속설	둥글고 커서 시원하고 보기 좋다.	{아들은 모양이 사람도 막 두리두리 하리} 아래위가 없는 글은 기, 그래.								0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안고개로 돌이 보든 아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를 볼것을 때 왼쪽 방향으로 돌아보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임신도가 걸어가는 걸 뒤에서 누가 부르잖아, 부모모 {원고개를 아래 돌다 부모 그게 아들이라데}.	임부를 볼것을 때 임부가 왼쪽 방향으로도 돌아보면 태아가 아들이고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보면 딸이라는 속설이 있다.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기슴 밑에 멧 해면 아들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가 가슴 밑에 멧 해면 아들이다	{가슴 밑에 멧 멧채면 아들이고}, 여 밑에 여기 알로 아래카모.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뺨에 알로 가면 딸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로 임부의 배가 아래 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딸이다라는 말이다.	가슴 밑에 멧 멧채면 아들이고, {여 밑에 여 기 알로 아래카모}.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배꼽		명	뺨쪽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란.	아들은 이거 {배꼽이} 붙어 있어도 {배꼽이} 속 드기고 여기 배가 여기 잘, 딸은 꼭 여기 머리가 여 받친다.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부딪히다		동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때다, 또는 닿거나 대게 하다.	아들은 이거 배꼽이 붙어 있어도 배꼽이 속 드기고 여기 배가 여기 잘, 딸은 꼭 여기 머리가 여 받친다.								
풍속	임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성별권점속설				들어가다		동	뒤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다, '들어가다'의 경성형.	아들은 이거 배꼽이 붙어 있어도 배꼽이 속 {드기고} 여기 배가 여기 잘, 딸은 꼭 여기 머리가 여 받친다.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어휘정보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유산	유산방지		수제비를 나눠 먹는다.	수제비를 나눠 먹는다.	속설	임부의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속설로 임부가 임부의 나이만큼 수제비 덩이를 먹으면 면 유산을 맞는다고 한다.	수제비 {수제비 굵이 고걸 요래요래. 나눠 대로 수제비라}.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별칭/어휘정보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유산	방법		젓물	젓물	명	젓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 예전 배 주로 빨래할 때 썼다.	{젓물도} 약간 묵고 이런 거 같은데.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유산	방법		농약	농약	명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 병균, 잡초 따위를 없애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약함. 살균제, 살충제, 발아제, 성장 촉진제 따위가 있다.	이 젓물이 아니고 {농약}.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유산	방법		젓물 묵다	젓물 묵다	구	임부가 워치 않은 임신을 하얗을 겪은 아기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젓물을 약간 묵었다.	{젓물도} 약간 묵고} 이런 거 같은데.	임부가 유산을 하기 위해 젓물이나 농약을 조금 먹거나 혹은 곳에서 뛰어나라거나 언덕에서 구르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화장실에 가서 하면 빨리 나 온다	화장실에 가서 하면 빨리 나 온다	속설	임신출산에 관한 속설 중 아기가 잘 안 나오면 산모가 화장실에 가서 아기를 볼으면 빨리 나온다고 한다. 이는 화장실에 가서 있으면 빨리 나온다는 것인데, 그런 자세에서 힘을 주면 아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것이다.	산피도 영고 할 때는 거 간다 안키나. 화장, {화장실에 가서 나오면은 빨리 나온다 안키나}.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남편이 배 뺨 으면 빨리 나 온다	남편이 배 뺨 으면 빨리 나 온다	속설	임신출산에 관한 속설 중 아기가 힘들면 남편이 산모의 배를 타 뺨 으면 아기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다.	{남편이 배로 뺨 으면은 빨리 나온다} 소리 다.	신리적인 위안으로 출신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위이다. 남편이 배를 타 뺨 으거나 남편의 이빨을 뺨바닥에 적거나 엉관 의 옷을 배 위에 올려 놓기도 하였 다.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영어	영어	명	임의과의 민물고기.	그냥 무신용으로 묵는 거는 {영어니} 또 그 다음에 그 저 가물치 있잖아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영어	영어	명	임의과의 민물고기. 영어의 경복방언.	요새는 모든 저게 할 때 {영어들} 많이 먹 아.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영어 먹으면 애기 이쁘다	영어 먹으면 애기 이쁘다	속설	임신출산에 관한 속설로 임부가 임신 중에 영어를 먹으면 이쁜 애기가 태어난다고 한다.	영어로. {영어로 주로 먹으면 애기가 이쁘 다고}, 그거 하나씩 먹는다.	임신 중 임부가 영어를 먹으면 눈이 크고 예뻐고, 피부색도白白한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살이 보았다	살이 보았다	구	살갓이나 얼골 따위가 하얗고 말갱다.	가가 진짜 {살이 보안 게} 이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살색이 깨끗하다	살색이 깨끗하다	구	살갓이나 얼골 따위가 하얗고 말갱다.	가 서랄 특이하게 어태가 봐도 {살색 그래 깨끗한 게} 이빠. 아도 이쁘게 생겼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국어) 별칭(영어)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허리 타낸다		속설	출산 시 아기가 잘 안 나올 때 남편이 임부의 걱정을 타 넘으면 아기가 잘 나온다고 한다.	그래야 낳는데 힘이 들어가야 잘 안 나오 모야 낱죽 잘 낳는 사람이 되가지고 허리를 아래 타 넘어준다. 배를 타 넘어준다.	신리적인 위안으로 출산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위이다. 남편이 배를 타 넘거나 남편의 이름을 팔바닥에 적거나 양편의 옷을 배 위에 올려 놓기도 하였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배 타낸다			속설	출산 시 아기가 잘 안 나올 때 남편이 임부의 배를 타 넘으면 아기가 잘 나온다고 한다.	그래야 낳는데 힘이 들어가야 잘 안 나오 모야 낱죽 잘 낳는 사람이 되가지고 허리를 아래 타 넘어준다. {배를 타 넘어 준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뱃속에 결고지 동생아들놓고 이고 땡기면 딸 놓는다			속설	동생이 생기려고 하면 형이 뽕수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무엇을 자꾸 몸에 걸고 다니면 남자 동생을 낳고, 무엇을 머리 베자꾸 이고 다니면 여자 동생을 낳는다고 한다.	그거, 그런 거는 {뽕에 걸고 지 동생 아들을 내놓고, 아하, 이고 땡기면 딸놓는다.}	뽕수가 생기려고 하면 형이 뽕수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를 '아시틴다'라고 한다. 형이 아시틴는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 지에 따라 동생의 성을 매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형이 동생을 낳을 때 아시틴는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자기 성기 쪽, 자기 아래 쪽을 들여다 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아름달뻐이는 온산다			속설	아름달만엔 태어난 아기는 잘 살아 남지 못한다 속설이다.	아래래, 여름달 되도 여름달 뻐이는 모래 더래, {아름달 뻐이는 온 산다} 그런말은 있더라.	아름달만엔 태어난 아기를 여름달 뻐이라 하는데 이 여름달뻐이는 잘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남더라도 잘 크지 않는다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속설	기타			아름달뻐이는 안큰다			속설	아름달만엔 태어난 아기는 잘 살아 남지 못한다 속설이다.	{아름달 뻐이는 안 큰다.}	아름달만엔 태어난 아기를 여름달 뻐이라 하는데 이 여름달뻐이는 잘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남더라도 잘 크지 않는다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출산 과정			가지다			동	아이이나 새끼, 일을 배 속에 지니다.	{가질라고} 어떤 기로 할고, 그런 것도.	한장순(의령)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출산 과정			아 서다			구	아기가 생기다, 연어의 형식으로 사용한다.	자기가 {아 살 때는} 태움 꿰뻐지.	아장이(함안)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출산 과정			아 배다			구	배 속에 아이를 가지다.	그때는 아들이나 딸인가 알인가 알었나, 첫, {첫아 뻐는대.}	조설좌(함안)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출산 과정			얼라 들다			구	아기가 배 속에 들어 서다. 아기를 가지다.	뒤 {얼라 들 때} 되가지고 뒤 초상집 음식이나, 또 저거 삼것집에 만일에, 삼것집에,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출산 과정			얼라 가지다			구	배 속에 아이를 지니다.	다른 음식 뒤 {얼라 가지도} 별은 거래는 게 없어, 뒤 주로 얼라 가지면 음식이 막기 싫으면, 뽕주로 얼라도 먹지도 안하지.	금경랑, 금경자, 이용순(경복)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어 표준어	올림말	반응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종국어 시진 (특제(해부))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갈치	무시치	갈치과외의 배다른고구기, 몸의 길이는 1.50미터 정도이며, 띠처럼 길고 얇았다. 비늘이 전혀 없고 은빛을 띤 흰색의 기류 같은 것이 모여 있으며, 지느러미는 등지느러미와 맞지느러미뿐이다. 갈치의 경낭방안.		명	갈치과외의 배다른고구기, 몸의 길이는 1.50미터 정도이며, 띠처럼 길고 얇았다. 비늘이 전혀 없고 은빛을 띤 흰색의 기류 같은 것이 모여 있으며, 지느러미는 등지느러미와 맞지느러미뿐이다. 갈치의 경낭방안.	{무시치} 뒤, 요즘에는 이 생선, 생선 갈치.	갈치의 경낭방안에는 '갈챙이, 깔치, 군더어, 까르치, 깔치, 낚새까나리, 모치, 우지, 번쟁이, 카치, 켈티' 등의 어휘가 있다. <양안감각포도그림>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후랑이 꿈	구 후랑이를 보는 꿈.		구	후랑이를 보는 꿈.	호. {후랑이 꿈꾸는} 사람도 있고	후랑이 태몽은 대체로 아들 태몽이라고 하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범 꿈	구 범을 보는 꿈.		구	범을 보는 꿈.	{범 꿈꾸면} 꾸면 딸이라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홍초는 아들 홍초는 딸	붉은 고추 꿈은 아들 태몽이고, 초록 고추 꿈은 딸 태몽이다.		속	붉은 고추 꿈은 아들 태몽이고, 초록 고추 꿈은 딸 태몽이다.	{홍초는 아들이고 초록은 딸이라고} 그거지	붉은 색 색깔을 보면 아들 태몽이고, 초록색이나 달걀은 딸 태몽이라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생생하다	영글다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영백하고 또렷하다.		동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영백하고 또렷하다.	나는 나 명숙이 태몽꿈이 그렇게 {영글어}, 마마마 이래 자게 산애 거 기이까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마루	맹그	구 마루의 경복방안.		구	마루의 경복방안.	{맹그(맹부리)} 사각근이 고래 돼있거든, 고래 돼있는데다가 마마마 자기 포도송이 글은기 한껏 마 조롱조롱조롱 열었다란 카이 캐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마루	맹구	구 마루의 경복방안.		명	마루의 경복방안.	{맹구기}, 그런데 어우이가 이리데, 아야 나는 이번에 딸이다 이래, 왜 그카이, 왜그래 왜요 이카이, 내가 아야 신애 가서 말구를 한드래께 따라왔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맹굴	맹부리	구 맹굴에 있는 것처럼 영백하고 또렷하다.		구	맹굴에 있는 것처럼 영백하고 또렷하다.	{맹구(맹부리)} 사각근이 고래 돼있거든, 고래 돼있는데다가 마마마 자기 포도송이 글은기 한껏 마 조롱조롱조롱 열었다란 카이 캐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몽그랑다	몽글몽글하다	구 몽글몽글하게 몽글다.		형	몽글몽글하게 몽글다.	그저고 가지각색이래, 나는 잠, 아들 하나 밖에 안 낳지만은 고지를, 고지가 한 개 이빠, {몽글몽글한 거} 요런 거를.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고지	구 바가지의 경복방안.		명	바가지의 경복방안.	{고지}, 바가지 맹그는.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권련과정	태몽	바가지	바가지	구 바가지의 경복방안.		명	바가지의 경복방안.	고지, {바가지} 맹그는.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복)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병단 정보3 병단 정보4	발음국어 시진 표제어부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태몽	뱀	뱀	뱀	뱀	미출간 뱀과의 동몽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음은 원형으로 가늘고 길며, 다리와 눈개울이 뚜렷하다.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고 오래되면 물피한다. 현재 2,700여 종이 알려져 있고, 열대 지방에 많은 종류가 분포한다.	뱀은 대부분 아들 태몽이 많은데 뱀꿈 중에서도 크고, 긴 것이 아들 태몽이고, 작은 뱀꿈은 딸 태몽이라 고 한다.	뱀꿈,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태몽	하박지	하박지	하박지	뱀	자 애비는 또 뱀이 하안 뱀이 {신다리}로 요 아래 돌리레이.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시어머니와 동생이 무서워 임신하고도 임덧이 나오지 않거나, 임신한 것이 대해 이야기도 못 한다.	임덧	구	임신해도, 임신을 할라카면 임덧 할 때 되면 육고 지른 것도 없이나, 그때도 시어머니가 동생 무서워서 육고싶다 소리도 못해 봤고 그냥 그러고 넘겼지.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신 초기에 임덧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	임덧	뱀	임신해도, 임신을 할라카면 {임덧} 할 때 되면 육고 지른 것도 없이나, 그때도 시어머니가 동생 무서워서 육고싶다 소리도 못해 봤고 그냥 그러고 넘겼지.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뱀	임덧을, 임덧, 임덧 그친다 칸 이도 있고 {임덧들} 하는 그게 그림이야, 뱀 같은 말 이야.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뱀	임신 초기에 임덧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를 보이다.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구	임덧하다'를 다르게 이르는 말.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구	임덧하다'를 다르게 이르는 말.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구	임덧하다'를 다르게 이르는 말.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구	임덧하다'를 다르게 이르는 말.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구	임덧하다'를 다르게 이르는 말.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임덧	임덧	임덧	임덧	뱀	음식을 먹을 때 임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	임덧들, {임덧}, {임덧} 그친다 칸 이도 있고 임덧을 하는 그게 그림이야, 뱀 같은 말 이야.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태교	태교	태교	태교	뱀	아이를 뱀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인행을 삼가 는 일	{태교기} 위꼬.	한정순(의령)	김용덕(1994)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태교	태교	태교	태교	구	임신 중 태교의 하나, 산모가 임신을 하며 태교를 위해서 이쁘고 큰 것을 골라 먹으면 아기도 예쁜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	임신되면 {과일을 먹어도 이쁜 걸 가려 먹으라 하고 }이러잖아.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 과정	태교	태교	태교	태교	구	임신 중 태교의 하나, 산모가 임신을 하면 태교를 위하여 이쁘고 큰 것을 골라 먹으면 아기도 예쁜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	그래 애대 뭐 저거 한데 {가래기 마 임으리 하고} 이런데 우리사 뭐 옛날에 뭐 뭐 뭐 샅기 바쁜데 그래 애대 해먹었다.	금경자, 금경자, 이용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종국어	별종국어	별종국어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나는 아	나는 아	명	엄마 뱃속에서 많이 움직이는 태아.	{나는 아가} 있고 조금 조용한 아가 있제. 마이 움직이는 아가 있고 좀 덜 움직이는 아가 있고 그렇지	한정순(의령)			*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태울	태울	명	한 어머니의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	두 살 {태울}. 시 살 {태울}.	한정순(의령)			*			0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태울이 늘어지다	태울이 늘어지다	구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크다.	많이 아이. {태울이 좀 너무 늘어졌지}.	이정미(함안)			*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동생	동생	명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손아랫사촌을 이르는 말. 동생이'의 범언	{지동생이} 떨어져. 드가. 들어서야 떨어져 거든. 쫓이. 그림 지 매기가 생기면 쫓이 없다. 아이가. 안 난다 아이가. 그림. 안 난도 쫓 몰라고.	한정순(의령)			*			0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동생 틀어서다	동생 틀어서다	구	동생이 뱃 속에 생기다.	{지동생이} 떨어져. 드가. 들어서야 떨어져 거든. 쫓이. 그림 지 매기가 생기면 쫓이 없다. 아이가. 안 난다 아이가. 그림. 안 난도 쫓 몰라고.				*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피뿌거리다	피뿌거리다	동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인다	그래 {피뿌 거릴 뻔} 할지만은 안 피뿌 거러도 그래 뭐 유산인줄 안 피뿌 거리는 동그래 모르잖아. 그래 거리고. 그래 아팠지. 그래 인제 아팠지. 그래. 참 그래 양밤이라 카마 그래. 그래 하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아세터다	아세터다	구	동생이 생기다. 혹은 동생이 생기거나 생길 것에서 황의 황동이 평소와 다르다라는 의미이다. 평소와 달리 엄마에게 많이 의지하거나 황동이 퇴화되거나 목에 무언을 걸기도 하고 머리에 무언을 이기도 한다.	동생이 생기는 것을 '아세터다. 아시' 든다'라고 한다. 황은 동생이 생기기 나 생길 것이면 아세터다는 황동을 허는데 어떤 황동을 하는 지에 따라 동생의 성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황이 동생을 볼 때 아세터다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자기 생길 쪽, 자기 아래 쪽을 들여다 보는 행동 한다'는 것이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아시보다	아시보다	구	동생이 생기다(강원, 경남).	맞아. 저거 {아시보다}. 아. 그래. 밑에 보 아기네 저거 지 아시보다 아래데. 아시불라고 그러어. 저거 아시불라이라고.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낳다	낳다	동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는다.	우리가 인지 {낳고나서} 쫓 이거로 해보면 낳다의 경남방언에는 '낳는다. 보는 쫓이'라고 하고. 이 {낳을} 낳고. 낳고 준비해놓고. 그래 인지 낳는다.	한정순(의령)			*			0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낳을	낳을	명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 이를 통하여 신수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물질대사를 한다.	아떻게 낳을 때 그때는. 전배 준비를 하지. 가꾸려고 생각하고. 이 {낳을} 낳고. 낳고 준비해놓고. 그래 인지 낳는다.	한정순(의령)			*			0
종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신관련과정	기타	기타	마른 아이 낳는다	마른 아이 낳는다	구	임수가 터져서 양수가 나오는 것임이 아이를 출산하다. 양수가 많지 않는 아이를 낳는다.	아기를 그러지면 말하지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훑배가. 쫓정히 낳는데 비해 경북에서는 갠아 낳다'라 낳다. 낳다. 이 훑배가 이 피용디가 가 배를 훑어서도 양정나게 아드다. 그래. 그래 마른것보다 더 아프다. 양정시라 아제.	한정순(의령)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병진 정보	병진 정보2	병진 정보3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부)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명	어른 아이		영수가 터져서 영수가 나오는 것없이 출산 한 아이, 영마 영수가 많지 않는 아이.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후배가 굉장하게 아프다고, 후배가, 이 피동티기가 배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아프다. 그 애 트는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프.	경남에서는 영수가 별로 없는 아이를 '마른 아이'라고 하는데 '경복에'서는 '경아'라고 표현한다.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구	어른 아이 낳는 것없이 아이를 낳는다.	경아 낳다		영수가 터져서 영수가 나오는 것없이 아이를 낳는다.	그래, 지네는 외숙이 낳 때 {경아}를 낳아, 생, 생수 안 터지고 경아 낳나리라고.	경남에서는 '마른 아이 낳다'라고 하는데 '비해'경복에서는 '경아 낳다'라고 표현한다.	김경량, 김경자, 이영순(경북)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명	영수가 터져서 영수가 나오는 것없이 출산 한 아이, 영마 영수가 많지 않는 아이.	경아		영수가 터져서 영수가 나오는 것없이 출산 한 아이, 영마 영수가 많지 않는 아이.	그래, 지네는 외숙이 낳 때 {경아}를 낳아, 생, 생수 안 터지고 {경아} 낳나리라고.	경남에서는 영수가 별로 없는 아이를 '마른 아이'라고 하는데 '경복에'서는 '경아'라고 표현한다.	김경량, 김경자, 이영순(경북)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명	몸을 낳은 뒤에 이른 배.	후배		몸을 낳은 뒤에 이른 배.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후배}가 굉장하게 아프다고, {후배}가, 이 피동티기가 배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아프다. 그 애 트는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프.		한정순(의령)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구	언어의 형식으로 몸을 낳은 뒤에 배가 아프다는 말이다. 후배가 아닌 것은 출산한 산모의 자궁이 원래의 크기,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지능 수축작용이다.	후배 아프다		언어의 형식으로 몸을 낳은 뒤에 배가 아프다는 말이다. 후배가 아닌 것은 출산한 산모의 자궁이 원래의 크기,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지능 수축작용이다.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후배가 굉장하게 아프다고, 후배가, 이 피동티기가 배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아프다. 그 애 트는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프.	후배말이는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것만큼 평은 말인데 임신 중에 늘어남 영마의 자궁이 원래 크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수축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명	피동이 크게 동쳐서 이루어진 것.	피동티기		피동이 크게 동쳐서 이루어진 것.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후배가 굉장하게 아프다고, 후배가, 이 {피동티기}가 배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아프다. 그 애 트는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프.	중티기는 '영아'의 경남방언이다. 그리고 '꾸러미'를 경남에서는 '중티기, 동티'라고 하기도 한다.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이는 '애 트다, 아 트다'와 같은 언어 형식으로 사용된다.	애 트다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이는 '애 트다, 아 트다'와 같은 언어 형식으로 사용된다.	아기를 그러자면 말하자면 디기 마른 아이 낳는다 이기제, 그러니깐 후배가 굉장하게 아프다고, 후배가, 이 피동티기가 배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아프다. {애 트는거보다} 더 아프다. 엄청시리 아프.	트다, 트다라는 말은 출산 과정에서 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트다, 트다'라는 어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의미가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보통 '애 트다, 허리 트다, 배 트다' 등의 언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한정순(의령)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산모의 배 부분이 특히 팽창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배의 팽창이 크면 '허리 트다, 배 트다, 허리의 팽창이 크면' '허리 트다'라고 한다.	배 트다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산모의 배 부분이 특히 팽창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배의 팽창이 크면 '허리 트다, 배 트다, 허리의 팽창이 크면' '허리 트다'라고 한다.	트다, 트다라는 말은 출산 과정에서 출산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트다, 트다'라는 어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의미가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보통 '애 트다, 허리 트다, 배 트다' 등의 언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한정순(의령)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발음규약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산모의 배 부분이 특히 볼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허리 트는 턱인 모양이라, 아 비지 배의 볼록이 크면 '배 트다, 배 틀다, 허리 트다, 허리 틀다'라고 한다. 어떤 산모는 다 리 아르면 허리로 트는.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발음규약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배 틀다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는데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산모의 허리 부분이 특히 볼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허리 트는} 턱인 모양이라, 아 비지 배의 볼록이 크면 '배 트다, 배 틀다, 허리 트다, 허리 틀다'라고 한다. 어떤 산모는 다 리 아르면 허리로 트는.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발음규약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다리 틀다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려고 움직이는데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산모의 다리 부분이 특히 볼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배도 아프고 다리로, {다리로 트는} 것도 배의 볼록이 크면 '배 트다, 배 틀다, 허리 트다, 허리 틀다'라고 한다. 어떤 산모는 다 리 아르면 허리로 트는.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발음규약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아기 빠치다		구	태아가 음배 속에서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태아의 머리가 정상 밑으로 내려와 산모 골반으로 들어오면 서서히 골반이 벌어지는 등 일련의 출산 과정을 진행한다.	그런데 태아가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것에 비해 골반이 늦게 열리는 등 출산 진행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면 아 이도 고생하게 되고 산모도 고생이 심하다.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발음규약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국밥		명	산모가 아이를 낳고 먹는 미역국과 밥을 이 르는 말.	밥도 울기 지대로 본뚝고, 이래 {국밥이} 이래 잘 들어오면 더 아프고, 배 아프고, 지 금은 꼭 병원에서 싹 훑어 내뱉니 {국밥이} 가나 없다	한정순(의령)	김용덕(1994)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신파		명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 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여자.	{신파가} 어딴.	한정순(의령)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시아머니	시아머니		명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시아머니'의 방언.	{시아머니}, 첫째는 시오마이.	한정순(의령)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시아머니	시오마이		명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시아머니'의 방언.	시아마이; 첫째는 {시오마이}.	한정순(의령)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뱃줄시키다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면 뱃줄을 맺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킨다.	아를 받아서 인자 인자 뱃줄 끊어가지고 물로 드사팠다가 {목욕 시키고}	한정순(의령)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아 받다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을 모조하는 사람이 아기를 받는 행위 이다.	{아를 받아서} 인자 인자 뱃줄 끊어가지고 물로 드사팠다가 목욕 시키고	한정순(의령)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관 전과정				뱃줄 끊다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기를 연결한 줄인 뱃줄을 기워나 뱃 등을 이용해 자르는 것을 의미한다.	아를 받아서 인자 인자 {뱃줄 끊어가지고} 물로 드사팠다가 목욕 시키고	한정순(의령)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종국어	별종국어 시진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이슬 비재다	이슬 비재다	구	여자의 월경이나 해산 전에 조금 나오는 누르스름한 물인 이슬이 나오다.	{이슬은 조금 비재지}. 그렇게 마이 없어. 그게 아 나올 때 머리 받이 물이 돌병에 떠 온 위젯야. 그게 타지야 있지 아 나오면 수 온데. 그게 없애 나오는 아기가 있어.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양수	양수	병	양막 안의 액체. 태아를 보호하며 출산할 때는 흘러나와 분만을 쉽게 한다	그 요새. 요셋말로 {양수타지다} 카는.	양수를 경복에서는 '머리반인물, 머리반이'라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머리받이	머리받이	병	양수를 다르게 이르는 말.	그래 타지. 참 {머리 받이} 머리 그래 타지야. 그래 타지고.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머리받인물	머리받인물	병	양수를 다르게 이르는 말.	그가 {머리반인물이라리} 카데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양수 타지다	머리받이 타지다	머리받이 타지다	구	임신 중 태아를 보호하는 액체가 타지다.	그래 타지. 참 {머리 받이 머리 그래 타지야}. 그래 타지고.	양수 타지다'를 경복에서는 '머리받이 타지다. 머리 타지다, 돌병 타지다' 등으로 표현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머리 타지다	머리 타지다	구	임신 중 태아를 보호하는 액체가 타지다. '양수 타지다'를 다르게 이르는 말.	이슬이고. 애기. 애기 나올 때 머리받이. {머리 타지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돌병이 타지다	돌병이 타지다	구	임신 중 태아를 보호하는 액체가 타지다. '양수 타지다'를 다르게 이르는 말.	그게 {돌병이 타지야} 애기가 나와.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미끄럽다	미끄럽다	미끄럽다	형	거칠없이 자절로 밀려 나갈 정도로 번드럽다.	안 저기 양수 안 타지고 아를 논개 그 뭐 그 래도 양수타지면 {미끄럽어기} 아 학 나오지 만드.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이슬가는 거	이슬가는 거	구	태반이나 뱃줄과 같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을 일성적으로 이르는 말. '태'를 다르게 이르는 말.	태. 저 {이슬 가는 거}?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뱃줄	뱃줄	병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 이를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물질대사를 한다.	{뱃줄}. 옛날에 {뱃줄} 머머. 남자가 아로 마카 곁어준 이도 있다 인커나.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태	태	병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 이를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물질대사를 한다.	{태}. 저 이슬 가는 거? 이슬 가는 거는 기워 가지고 곁는 시람도 있고 머스마를 낫기 지고 곁는 시람도 있고.	태반이나 뱃줄과 같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을 일성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뱃줄'을 의미하는 경우로도 사용된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접근과정			곁다	곁다	동	심, 줄, 끈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뿔어지게 하다.	이슬 가는 거는 가워 가지고 {곁는} 시람도 있고 머스마를 낫 가지고 {곁는} 시람도 있 고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병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발음규약 시정 특자치(해부)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남자가 이로 겹다	올림말	구	구	뱃줄을 자를 때 다른 연결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로 자른다.	뱃줄, 뱃줄에 뱃줄 마마, {남자}가 이로 마케 겹어준} 이도 있다 인커나.	귀한 자손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쇠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뱃줄을 끊지 않고 아기 아버지가 이빨로 끊었다고 한다.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넛	올림말	병	병	곡식, 나무,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 시우쇠로 '구' 자 모양으로 만들어 인척으로 널을 내고, 뒤 끝 손베에 나무 지루를 박아 만든다	아름 가는 가는 기우가지고 겹는 사람도 있고 머스마를 {넛}가지고 겹는 사람도 있고 뿔도 겹는 경우도 있었다.	아들의 경우에는 뱃줄을 넣으로 끊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기 이베기 이 뿔도 겹는 경우도 있었다.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실	올림말	병	병	고지, 털, 송, 삼 따위나 화학 원료를 써서 가볍고 길게 뽑아 만든 것. 옷감을 짜고 바느질할 때는 실을 사용한다. 단위로 타래, 툽구리, 꾸리, 토리, 올, 남, 데, 가락, 오리, 바람 따위를 쓴다.	{실은} 묶어지지, {실은} 그레야 피가 안 나오지, 아 쪽으로 묶고 또 태 쪽으로 묶고 그레야 이 복판을.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실로 묶다	올림말	구	구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뱃줄을 끊고 아기 배꼽 주위 부분을 실로 묶는다. 이를 출혈을 막기 위해서이다.	{실은} 묶어지지, 실은 그레야 피가 안 나오지, 아 쪽으로 묶고 또 태 쪽으로 묶고 그레야 이 복판을.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복판	올림말	병	병	일정한 공간이나 사물의 한가운데.	실은 묶어지지, 실은 그레야 피가 안 나오지, 아 쪽으로 묶고 또 태 쪽으로 묶고 그레야 이 복판을.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버드떡	올림말	병	병	떡이나 빵 따위의 둘레를 막은 수직 간조.	생각해봐라, 허리는 아른 가는 누브은 꼭꼭을 묶어지만 이 배 아프오, {버드떡을} 지고 서서 저 문고랭이라도 주고.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문고랭이	올림말	병	병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여닫는 손잡이로 쓰기 위하여 문에 다는 고리, 쇠고리, 가죽 고리 따위가 있다. '문고리'의 경복명안.	생각해봐라, 허리는 아른 가는 누브은 꼭꼭을 묶어지만 이 배 아프오, 버드떡을 지고 서서 저 문고랭이라도 주고.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금구줄	올림말	병	병	부정한 것의 징벌이나 짐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넌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어이를 넣었을 때, 장 담글 때, 장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금줄의 경남방언에는 '경구줄, 경구지, 금구줄'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연구사전>은 '금구줄' 아기를 넣으면 금구줄을 지는데 남아인지 여아 인지에 따라 어린 활간을 금줄에 끼웠다. 금줄은 7월간 걸어두었다고 한다.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술	올림말	병	병	나무를 솟기마에 넣어 구워 낸 검은 덩어리의 연도.	아들 넣았을 때는 저, 그 {술하고} 꼬져해고 마약하고, 그레.	술의 경남방언에는 '진정, 개시랑, 깨엄정, 쟁장, 수쟁, 수쟁거리, 수미, 수미이, 수쟁, 수쟁, 수쟁'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연구사전>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출산권 건강권	출산권	출산권	꼬져	올림말	병	병	가죽과외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60~90cm이며, 잎은 동글고 끝이 뾰족하다. 여름에 흰 꽃이 앙거드랑이에서 하나씩 피고 열매는 종괴(漿果)이다. 외과 열매를 식용한다. '꼬져'의 경남명안.	아들 넣았을 때는 저, 그 술하고 {꼬져해고} 마약하고, 그레.	고추의 경남방언에는 '고초, 고지, 꼬져'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연구사전>	금경장, 금경자, 이몽순(경복)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분류정보	분류정보2	분류정보3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준비물	금줄치기	미역	올림말	명	갈조류 미역과의 한해살이 버섯말. 잎은 넓고 편평하며, 넓게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이삭부분은 기둥 모양의 자루로 되어 매우 예뻐 들어 있다.	아를 낳았을 때는 저. 그 속하고 꼬치하고 {미역하고}, 그래.	미역의 경남방언은 '매역, 매악, 매아, 매이, 매이, 매이, 매이, 매이, 매이, 매이'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검색프로그램>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준비물	금줄치기	실 쉼구리	올림말	명	고지, 털, 솜, 삼 따위나 화한 원료를 써서 거칠고 길게 뽑아 만든 것. 옷감을 짜고 바느질 하는 데 쓴다. 단위로 타래, 쉼구리, 쉼구리, 토라, 올, 남, 태, 가람, 오라, 바람 따위를 쓴다. '실'의 경남방언.	돌돌 말아라고. 고거 쟁기고. 안. 그러은 실 쉼구리 쟁가고. 그래 아를 그라고. 말은 언제 고마 미역하고 꼬치하고.	방언검색프로그램에는 '실꾸리'가 '실'의 전남방언으로 나와 있지만 경남의 제주도들도 '실꾸리, 실꾸리' 어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치기	깨우다	올림말	동	'깨우다'의 방언(강원, 경기, 경상, 전남).	돌돌 말아라고. 고거 쟁기고. 안. 그러은 인제 고마 미역하고 꼬치하고.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치기	간어빠다	올림말	동	늘어진 것을 말아 올리거나 가라진 것을 치우다.	일주일 지나면 칠일 지나면 {간어빠다} 아이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치기	금줄	올림말	명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아이를 낳았을 때, 장음을 때, 잠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그래 가다보면 그 집에 {금줄} 차보으면 아유 저 집에 아를 보네. 저 집에 볼 쟁네. 아. 아래 앞잡아. 대번 남이 앞잡아.		금경량, 금경자, 이음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	금구	올림말	명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아이를 낳았을 때, 장음을 때, 잠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금줄'의 경남방언.	우리는 {금구} 그런 거 안졌어	이점이(함안)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	금석	올림말	명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아이를 낳았을 때, 장음을 때, 잠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금줄'의 경북방언.	금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렀는데 경북에서는 '금석, 금석줄, 금석'이라 하였고, 경남 함안에서는 '금구, 금구줄'이라 하였다.	금경량, 금경자, 이음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	금석줄	올림말	명	금석을 다르거나 이르는 말.			금경량, 금경자, 이음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	금줄 친다	올림말	구	금줄 앞에 금줄을 친다.	{금석 친다} 그러다.	금줄은 '친다'와 연어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경량, 금경자, 이음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금줄치기	행위	금줄	깨우다	올림말	동	늘어진 사이에 무엇을 넣고 꼬아서 빼지 않게 하다.	{깨우다}		금경량, 금경자, 이음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표기	별도 표기(예)	별도 표기(비표)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배꼽 권 리			동	배수하다		반단하고 부스리찌기 쉬운 물건을 깨무는 소리가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내다	병 옥은 매편 {바삭하이} 그릇데. 버락뿌따	한정순(의령)				*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배꼽 권 리			명	배꼽		뱃풀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배꼽이} 삼칠 가아. 완전하 니을 꺾. 삼칠 가아. 완전하 니아. {배꼽이}.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배꼽 권 리	배꼽		명	뱃총		뱃풀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그래 아들 저 {뱃총} 그래 이뻐개. 하라 카 집아. {뱃총}. {뱃총이리} 허대. {뱃총}. 배 꼽이. 고갈 갖다 툄 떨어지면 뱃총이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배꼽 권 리	당기다		동	뱃거부다		물건 따위를 찰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뱃총 아렸을 {뱃거부니개} 배꼽이 툄 티니 온.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배꼽 권 리	배막하다		명	배막하다		물체가 한쪽으로 배스듯하게 기울어져 있 다. 배막하다	배꼽을 여개 잘 엉어놔야 되지. 배꼽을 {배 막하개} 놓던가. 뱃거개 놓던가. 배꼽이 이 뻐개 안놔져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배꼽 권 리			명	오지배꼽		뱃풀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어대 워 {오지 배꼽이리} 허당가 워워 현 배꼽이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 권 행위 권 리			명	뽀뽀		신모가 아이를 낳고 먹는 미역국과 밥을 이 르는 말.	뽀뽀하고 미역하고는. 인자 고 낳기 전에 쥘 준비해 놔야 돼. 고래 준비해놔다가 애기를 낳으면 저 {국밥을 }미역을 쥘어야 되거든. 미역을 준비.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 권 행위 권 리			명	미역국		미역, {미역국} 끓이고 바쁘지 워. {미역 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 워 한 시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그거 끓이기 나 를이지. 워. 쥘이기 그래 들어오모 그래 막 쥘야.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김용덕(1994)	*		0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 권 행위 권 리			명	뽀		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쥘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남양이 풀 어지지 않고 물기가 젖어들게 끓여 익힌 음식.	미역, {미역국} 끓이고 바쁘지 워. {미역 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 워 한 시 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그거 끓이기 나 를이지. 워. 쥘이기 그래 들어오모 그래 막 쥘야.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 권 행위 권 리			명	쥘		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쥘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남양이 풀 어지지 않고 물기가 젖어들게 끓여 익힌 음식.	미역, {미역국} 끓이고 바쁘지 워. {미역 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 워 한 시 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그거 끓이기 나 를이지. 워. 쥘이기 그래 들어오모 그래 막 쥘야.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 권 행위 권 리			명	쥘		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쥘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남양이 풀 어지지 않고 물기가 젖어들게 끓여 익힌 음식.	미역, {미역국} 끓이고 바쁘지 워. {미역 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 워 한 시 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그거 끓이기 나 를이지. 워. 쥘이기 그래 들어오모 그래 막 쥘야.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인생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 권 행위 권 리			명	쥘		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쥘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남양이 풀 어지지 않고 물기가 젖어들게 끓여 익힌 음식.	미역, {미역국} 끓이고 바쁘지 워. {미역 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 워 한 시 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 그거 끓이기 나 를이지. 워. 쥘이기 그래 들어오모 그래 막 쥘야.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발음규약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출산 후 신모가 젓이 나기 시작했다.	젓	젓	젓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		표음규약 시정 표음(예문)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명	유면(乳麩) 속에 있는, 젓이 나오는 성분. 유산(乳酸)·젓	젓	젓	젓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출산 후 신모가 젓이 나기 시작하거나, 아기에 젓을 물리 즙음이 되면 젓이 나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젓	젓	젓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출산 후 신모가 젓이 나기 시작하거나, 아기에 젓을 물리 즙음이 되면 젓이 나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젓	젓	젓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신모의 젓이 아기가 먹을 만큼 나오지 않고 양이 부족하다.	젓이 적다	젓	젓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신모의 젓이 아기가 먹을 만큼 나오지 않고 양이 부족하다.	젓이 없다	젓	젓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신모의 젓이 아기가 먹을 만큼 나오지 않고 양이 부족하다.	젓 모지라다	젓	젓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신모의 젓이 아기가 먹고 남을 만큼 양이 많다.	젓이 많다	젓	젓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신모의 젓이 아기가 먹고 남을 만큼 양이 많다.	젓이 흔하다	젓	젓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신모의 젓이 아기가 먹을 만큼 양도 많고, 젓 색깔도 포알다.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젓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젓이 좋다	젓	젓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신모 관견행위	젓	젓	젓	젓	구	신모의 젓이 아기가 먹을 만큼 양도 많고, 젓 색깔도 푸알다.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젓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젓이 좋다	젓	젓	한정순(의령)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첨표어	표준국어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젓	젓	구	젓이 더 이상 나오지 않다.	지동상이 떨어져, 드가, 떨어서야( 떨어지거든, 쪼이). 그렇지 애기가 생기면 쪼이 없다. 애기가, 안 난다 애기가, 그뻐, 안 나도 쪼이 몰라고.	한장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젓	젓	구	애기가 젓을 쪼이니 아랫니 또는 양 입술 사이에 개운 상태도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쪼이 없도록 다소 세게 누른다.	지동상이 떨어져, 드가, 떨어서야 떨어지거든, 쪼이. 그렇지 애기가 생기면 쪼이 없다. 애기가, 안 난다 애기가, 그뻐, 안 나도 쪼이 몰라고.	한장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비비다	비비다	동	동	두 물체를 맞대어 운지르다.	옛날에는 상임 되어 이 젓이 돌아 나오니깐 그 젓이 돌아 나오면 그때 그 젓만 가는 고 마 아래 짜내고 짜구 (비배가지고) 그게 잘 아. 쪼음이 열래면은 그러면은 모두, 위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짜다	동	동	누르거나 비틀어서 물이나 기름 따위를 빼 내다	젓이 막 {짜서} 내버리고 애기가 먹는 사람도 있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젓지	명	명	각을 뜯 돼지의 발, 또는 그것을 조린 음식.	그 뉘 안 나오면 {돼지 족발도} 꼬아서 먹고, 부런거 이런 거 있잖아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부엌다	형	형	실각이나 얼골 따위가 허영고 일종다.	그 뉘 안 나오면 돼지 족발도 꼬아서 먹고, {부런거} 이런 거 있잖아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9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기물치	명	명	가물치과의 민물고기. 송어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60cm 정도이며, 등 쪽은 어두운 갈색, 배는 적갈색이다. 영구리에 걸은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으며 입은 크고 눈은 작다	아개 뉘 {기물치} 말하면서, {가물치도} 먹고.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물젓	명	명	농도가 묽어서 영상이 작은 젓.	{물젓이라고}, 무, 물젓이라 카고, 젓이 보얇고 큰 거 그런 찰젓이라 카데/ 무젓이라 고, {물젓}.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한장순(의령)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무젓	명	명	농도가 묽어서 영상이 작은 젓. 물젓을 다르게 이르는 말.	{무젓이라고}, 물젓.	한장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찰젓	명	명	'인유(인유)'를 다른 동물들의 젓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영양분이 많고 좋은 젓이라 는 뜻이다.	찰젓이라고, 무, 물젓이라 카고, 젓이 보얇고 큰 거 그런 {찰젓이라} 카데/ 아, {찰젓}.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한장순(의령)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젓짜지	명	명	젓의 한가운데에 도드라져 내민 부분.	그래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래 낳는데 그래 낳고 쪼이 그저 {젓짜지} 몰라서 아레게 낳고, 그거 때문에 몰게 누워 있지도 못하고, 사무 젓 짜다고 안 잇나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 견행의식	젓	젓	원표제어 표준어	물아가다	형	형	젓에 상임되다.	그래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래 낳는데 그래 낳고 쪼이 그저 찰젓지(찰젓지) 아레게 낳고, 그거 때문에 몰게 누워 있지도 못하고, 사무 젓 짜다고 안 잇나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표어 별도시정 표제(해부)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젖의 한가운데가 도드라져 나오지 않고 솟아올라 있는 부분	우문젖		명	젖의 한가운데가 도드라져 나오지 않고 솟아올라 있는 부분	{우문젖이라.}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면 젖고지가 밖으로 도드라져 나오어야 수월한데 젖꼭지가 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다. 이런 젖을 경우에는 '우문젖' 구실적, 구출젖이라 한다.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물건 따위를 줌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뺨기다		동	뺨기다	속에서 풀이 {뺨기이} 아무리 그거 {뺨기} 뺨라이 되나. 속에서 풀이 뺨기이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가운데가 우뚝하게 솟아올라 있는 모양이다.	우뚝하다		형	가운데가 우뚝하게 솟아올라 있는 모양이다.	뺨기다	뺨기다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더 이상 쓰지 아니하는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 따위를 아주 버리다. '내버리다'의 경상방언.	내버리다		동	더 이상 쓰지 아니하는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 따위를 아주 버리다. '내버리다'의 경상방언.	그래가 젖은 잠깐인데, 잠깐이고 젖도 흔한데 다 싸고 다. 다 흘려 {내빼고}. 어느 아대로 굵고, 허허, 영지버지를 입었다.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우유 속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농축하여 가루로 만든 것. '우유유유·기루젖. '기루유유'의 경상방언	우유기루		명	우유 속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농축하여 가루로 만든 것. '우유유유·기루젖. '기루유유'의 경상방언	그걸 우유. {우유기루} 하.	기루의 경상방언에는 길기, 깔기 등의 어휘가 있다.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우유 속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농축하여 가루로 만든 것. '우유유유·기루젖.	우유기루		명	우유 속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농축하여 가루로 만든 것. '우유유유·기루젖.	분유나 이런 거. 옛날에 배급우유 누조를 만든 거. {우유기루} 안 젖나. 싸둑고 그래그 했는데. 도두락에 담아가고 이래 빈두리 동동거리 되가 묵고 그런 기 있었어.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먹는 것이 적어서 배가 차지 아니하다. 또는 배가 고파 고통을 받다.	배 굵다		동	먹는 것이 적어서 배가 차지 아니하다. 또는 배가 고파 고통을 받다.	그래 아. 고마. 올림때 고마. {배를 굵아}.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는 고생.	젖고생		명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는 고생.	{젖고생}. {젖고생}. 이 형님도 젖 가지고 젖고생 했는 서양.	젖고생은 산모의 젖이 너무 많아서 넘치거나 젖이 모자라서 계속 빨러 아기에게 빨리기 힘들거나 아기가 젖을 안먹으려고 해서 젖고생을 하는 등의 모든 경우를 말한다.	금강랑,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엄마의 젖이 졸으면 먹어도 튼튼하고 건강하다.	아들 살하다		구	엄마의 젖이 졸으면 먹어도 튼튼하고 건강하다.	젖은 나는. 젖은 모지래 보진 안했어. 다 젖이 풀어 {아들} 득시 살했다.}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깨끗하게 양지 아니하고 약간 흐린 듯하다	뺨물다		형	깨끗하게 양지 아니하고 약간 흐린 듯하다	{뺨기}. {뺨물다} 그렇고, 그거 뺨기 좀 아기한테 실이 그 하는 건데, 찰찰그 가는 뺨이 나온 그거는, 얘기가 득세 살하고. 우리 얘들은 득세 살했어.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모관련행위	젖	젖	뺨물이 모기 쫓게 하였다.	뺨물다		형	뺨물이 모기 쫓게 하였다.	뺨기는. 뺨물다 그 그렇고, 그거 뺨기 좀 아기한테 실이 그 하는 건데, 찰찰그 가는 뺨이 나온 그거는, 얘기가 득세 살하고. 우리 얘들은 득세 살했어.	한정순(의령)	*	0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종국어	별종국어	별종국어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조리	가량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	명	명	{조리} 뛰고. 밥도 못 얻어 무따.			조선좌(환안)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산후조리	해당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보살피는 일.	명	명	애들도 {몸조리를} 잘 해야 돼. 뭐 배반다고 뭐 그쪽 참 뭐 저 {바라지} 할 사람이 없으면 손수 나가가지고 해먹고 이카모 병 지고 난다카이까네. 몸이 안 개운하지.			극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산후조리	산모가 출산 후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핌.	명	명	{산후조리는} 좋게 되구록 했나. 아데, 한 시나를 지내면 고마 노사 밥해무도 된다고 밥 해먹고 뭐.		애전에는 시나를 정도가 지나면 간단단한 집안일을 시작하엿다고 한다. 그리고 남야를 출산하엿는 지, 여야를 출산하엿는 지에 따라 산후조리 기간도 조금 달랐다고 한다.	최인학 외 (2001)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조리하다	산모가 출산 후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다.	동	동	다음에 어를 분야야 {조리를 잘 해야} 곤책 채. 안 그러면 문 고책다.			극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아이를 돌보는 일, 임종침, 명복, 면상질일	산모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데 에 전에는 아들을 낳으면 임종침동안 산후조리를 하고 딸을 낳으면 삼칠일동안 산후조리를 하였다고 한다. 보아선호사상으로도 장인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으면 산모가 편이 해 산후조리를 하였으나 딸을 낳았을 경우 에는 아들보다는 짧은 기간동안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	구		산할 안하고 임종침 했다고. {아들 낳으면 임종침 하고 딸은 삼칠일 상질일}.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아들을 낳으면 산후조리 기간이 딸을 낳은 것 보다 길어진다 는 의미이다.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바라지	음식이나 옷을 대어 주거나 온갖 일을 돌보아 준다.	명	명	애들도 몸조리를 잘 해야 돼. 뭐 배반다고 뭐 그쪽 참 뭐 저 {바라지} 할 사람이 없으면 손수 나가가지고 해먹고 이카모 병 지고 난다카이까네. 몸이 안 개운하지.			극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바라지 하다	음식이나 옷을 대어 주거나 온갖 일을 돌보아 준다.	구	구	애들도 몸조리를 잘 해야 돼. 뭐 배반다고 뭐 그쪽 참 뭐 저 {바라지} 할 사람이 없으면 손수 나가가지고 해먹고 이카모 병 지고 난다카이까네. 몸이 안 개운하지.			극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몸에 개가 있다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면 지군이 수축을 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조금씩 피가 바치다.	구	구	{몸에 개가 있어도} 그냥 뭐 매기 놓고 나모 상질 거 바치거든. 이런 거 세도. 참 무슨 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장이(환안)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삼칠 바치다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면 지군이 수축을 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조금씩 하혈을 하는데 산모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3일 정도 피가 바치다.	구	구	몸에 개가 있어도 그냥 뭐 매기 놓고 나모 상질 거 바치거든. 이런 거 세도. 참 무슨 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장이(환안)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미역국	미역을 넣어 끓인 국.	명	명	{미역국}이 뭐고. 죽도 못 얻어먹지			조선좌(환안)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산모관전행위	산후조리	산후조리	바람	아이를 낳은 뒤에 한기(寒氣)가 들어 델고 식은몸을 돌리며 않는 병. 누사내방 · 산후바람 · 산후말 · 산후이슬 · 산후풍.	명	명	남고 {바람에} 좋다.			극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반응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명단 정보3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모관행 관련	산후조리	산후조리	바람 불다	바람 불다	구	구	신후생이 걸린다	{바람 불어}. 죽는데, 뒤.	여기서 바람은 아이를 낳은 뒤에 한기(寒氣)가 들어 있고 식은땀을 흘리며 있는 병을 말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모관행 관련	산후조리	산후조리		바람에 좋다	구	구	신후생 걸린 데에 좋다.	낳고 {바람에 좋다}.	여기서 바람은 아이를 낳은 뒤에 한기(寒氣)가 들어 있고 식은땀을 흘리며 있는 병을 말한다. 이런 산후에는 뜨거운 음식을 먹고 뜨거운 차리에 누워있으면 몸에 있는 한기가 나간다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모관행 관련	산후조리	산후조리		병 지다	구	구	병이 생긴다.	애들도 몸조리를 잘 해야 돼. 워 바쁘다고 워 그닥 잠워 자 버리지 말. 사람이 있으면 손수 나가가지고 해먹고 이카모 {병 지고} 난다카이까네. 몸이 안 개운하지.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모관행 관련	산후조리	산후조리	고치다	관계다	동	동	병 따위를 늦게 하다.	다음에 이를 낳아야 조리를 잘 해야 {고쳐} 재}. 안 그러면 안 {고쳐} 재}.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모관행 관련	산후조리	산후조리		팔랑거리다	동	동	아주 가볍고도 재빠르고 크게 행동하다. '팔랑거리다'	그거 오리바이하고, 큰 시늬는 오리바이 돼지마이. 둘이 똑같이, 장세는 가는 짐(말) 엉가리고}. 그거는 아 내가 마 음, 놀리고 저가 하도 저래, 그래 갠이부고 내가 싫었다. 아이가, 죽은번 했는데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0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모관행 관련	산후조리	산후조리		안물 나오다	구	구	아기를 낳고 자궁의 일부가 밖으로 빠지다.	그게 {안물이 나오기}. 그래, 안물이 나와 그래, 그래 생길 일이 없어.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모관행 관련	산후조리	산후조리	끓이다	끓이다	동	동	'끓이다'의 경성방언으로 '끓다'의 사동형.	미역은 옛날에는 큰 대각 있었거든, 지금은 대각 크기 없지만 큰 대각 정도를 한 번 시고, 사가지고 오면은 한 나무로 사오면은 쥬, 쥬, 다기도록 말끔할 다기도록 그기도 {끓이기} 뜻는다.	한정순(의령)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생아 관련				생일만에 씻게	구	구	아이의 태어나면 처음에 아이에게 묻은 핏물만 닦아내고 3일째 되는 날 깨끗하게 씻겠다고 한다.	그날 요래 두대개 써서 뇌웠다. {생일 만에 씻게} 가지고 그래 이런지그리 했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생아 관련				생일만에 옷만	구	구	아이의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두었다가 3일째 되는 날 아기 배서저고리를 앉혔다고 한다.	오선은 뒤 그래도 옛날엔 꼭 {생일만에 아이} 그거 옷을 입혔어}, 생일만에래야.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복)							
공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산생아 관련				물 조개 떠막	구	구	출산 후 산모가 췌이 나오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3일 동안 신생아의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조금씩 떠먹인다.	아, 그 사이 아 울고 있지 워, 우째 울어서 {물이나 조개 떠막이}고}, 다 있다.	한정순(의령)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첨표제어 표준어(예)	별첨표제어 표준어(예)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노라이 젓 나 오는 거 먹어 면 아를한테 준다		구	신모가 젓이 나오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양을 후 지음 나오는 것을 조유라고 해서 진한 노란색을 띠는데 이 젓은 신생아의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가 많은 것이다. 이 조유는 꼭 아기에게 먹여 면역력을 높였다.	그래, 젓에, 첫째 {노라이 젓 나오는 거}를 먹어야만 아를한테 준다 안 카나.	노라이 젓을 나오는 것을 '조유'라고 하였다.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간병치레		명	간병을 자주 양을 또는 그런 일.	그래 {진병치레}.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경기		명	놀라서 일어남; 또는 놀라게 하여 일으킴.	아 아를 때 한번씩 {경기도} 한번씩 하고.	매잔에는 아기가 아프면 영사를 조금 젓에 섞어 먹었다고 한다.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영사		명	수은과 유황을 섞어 가열하여 결정체로 만든 약; 정신을 안정시키고 불을 잘 듣게 하는 머슴을 섞어는 데 쓴다.	{영사니} 주사니 이런 거로 먹었다 아니까; 몸이 뜨시면, 머리가 아래 뜨시고 허면은 {영사} 그거를 쪼개, 젓을 썰어놔 갖고.	매잔에는 아기가 아프면 영사를 조금 젓에 섞어 먹었다고 한다.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주사		명	수은과 유황을 섞어 가열하여 결정체로 만든 약; 정신을 안정시키고 불을 잘 듣게 하는 머슴을 섞어는 데 쓴다. '영사'를 다르게 이르는 말.	엔남에는 영사, 영사니 {주사니} 이런 거로 먹었다 아니까; 몸이 뜨시면, 머리가 아래 뜨시고 허면은 영사 그거를 쪼개, 젓을 썰어놔 갖고.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죽		명	죽을 오래 끓여 끓여 알갱이가 흩날 무르거나 끈 음식.	{죽} 같은 그런 것도 조금 섞어 먹이고, 밥물도 따라가 조금씩 먹이고, 그래 그래 키웠지 뭐.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밥물		명	밥을 삶은 열건물.	뭐, 죽 같은 그런 것도 조금 섞어 먹이고 {밥물도} 따라가 조금씩 먹이고, 그래 그래 키웠지 뭐.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삼일부정		명	아이가 태어나면 3일 동안은 연약한 아이가 건강을 잃거나 죽는 따위의 부정할 일이 없게 생기는 데 이를 이르는 말. 아기가 태어나서 마할 제상에 적응하기 위한 3일간 부정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 고 삼일동안이 그기 중요하게네, 아기가 나고, 삼일, {삼일부정}이 그기 켈 무서운 거야.	표준어대사전에는 '밥물'이 '범'이 '범'을 때 남겨놓는 걸쭉한 풀'이라 수북되어 있지만 여기서 '밥물'은 '밥'을 삶은 풀'이라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삼일부정이 깨		구	아이를 낳고 나서 삼일 동안이 가장 무정할 때가 타는 시기므로 조심장과 같은 경사를 다뤄오면 무정을 탄다고 한다.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할이 나든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 고 삼일동안이 그기 중요하게네, 아기가 나고, 삼일, {삼일부정}이 그기 켈 무서운 거야.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부정 타다		구	사람이 죽는 따위의 불길한 일이 생김.	삼일부정이 그기 켈 무서운 거래, 삼일, 삼일을 지게 뭐야, 어데 나쁜데 갔다, 외도 안 당고, 어데 초상집, 그틀데 갔다오면은, {부정 타가지고}, 에 먹는다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신생아 관련 행위	원표제어 표준어	범이 지다		동	범이 생김.	그래고 고, 아가, 아가, 그래 그 {범이 지기} 아가, 버버리어기가, 버버리 된, 그래고, 아미이, 그래 아미이를 하면서.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반응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분류	분류2	분류3	분류4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번어리	버버리		명	번어리 「기」의 방언(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북, 평안, 양강, 황해).	그래고 고마 아가 그래 그 병이 저가 아가 (버버리아이가). {버버리} 된, 그래가 아마이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장 금강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 관련 행위			태번	벉속에 동		구	갓난아이가 먹은 것 없이 처음으로 싸는 똥(糞)의 정액, 출개짐 성분, 콜레스테롤, 콜린 및 양식(羊水)의 혼합물은, 분만 후 2-3일에 배설하는데 빛이 검고 유난히 반드럽다.	{벉속에 동이라고} 놀심니다. 시커먼.	아기에게 젖이 돌지 않은 심일동안 풀만 약간씩 먹이는데 그후에 허번이라고 하거나 벉속에 동이라고 한다. 시커먼 똥은 젖을 먹으면 노란똥을 논다고 한다.	금강장,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의식			칠일	칠		명	출산 후 이레째 되는 날.	미역은 옛날에는 큰 대각 있었거든, 지금은 대각 그기 없지만 큰 대각 정도씩 한 번씩 사가지고 오면은 한 나무로 사오면은 {칠}, {칠}, 다기도록 일곱칠 다가도록 그가로 꿩아가 된다.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의식			초칠	초칠		명	아이가 태어난 후 첫번째 되는 칠,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응, {초칠} 이칠 삼칠 다 해, 다 그래 물, 미역국 끓여놓고 밥해놓고 국 따놓고/ 그래 짐 이 집에 만인데 이들을 놓았는데 그그 아, {초칠도} 안 있는데 세상에 금방잡 배 아머가 어데 자게 뭐로, 초성임이라던가, 어데 뭐가, 어데가, 그래고 세상에 올 아왔다란.	금강장,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의식			이칠	이칠		명	아이가 태어난 후 두번째 되는 칠, 태어난 지 14일째 되는 날.	응, 초칠 {이칠} 삼칠 다 해, 다 그래 물, 미역국 끓여놓고 밥해놓고 국 따놓고.	금강장,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의식			삼칠	삼칠		명	출산 후 21째 되는 날, 칠일을 단위로 세번째 되는 칠일.	응, 초칠 이칠 {삼칠} 다 해, 다 그래 물, 미역국 끓여놓고 밥해놓고 국 따놓고/ {삼칠} 안하고 일곱칠 었다고. 아들 놓으면 칠일 칠하고 딸은 놓면 {삼칠일}.	금강장, 금강자, 이몽순(경북),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의식			삼주일	삼주일		명	출산 후 21째 되는 날, 칠일을 단위로 세번째 되는 칠일.	삼칠이 맨 {삼 주일} 아이가.	금강장 금강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의식			일곱칠	일곱칠		명	출산 후 49일째 되는 날, 칠일을 단위로 일곱번째 되는 칠일.	미역은 옛날에는 큰 대각 있었거든, 지금은 대각 그기 없지만 큰 대각 정도씩 한 번씩 사가지고 오면은 한 나무로 사오면은 일곱칠다가도록 {일곱칠} 다가도록 그가로 꿩아가 된다.	한정순(의령)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병단 정보1	병단 정보2	병단 정보3	발음규약 시전 유제(예부)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백일	백일		명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백 번째 되는 날.	{백일}, 백일날도 {백일이라고} 그때도 인과 맺 해놓고 / 자가는 응치원에 가가 백이고. 요요 포린 옷 입힌 요가는 인자 {백일} 때. 아이다. {백일} 때 왔었나. 보아. 또 오 쪽은 돌 때.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조원희(영안)	김용덕(1994)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돌	돌		명	어린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	자가는 유치원에 가가 백하고. 요요 포린 옷 입힌 요가는 인자 백일 때. 아이다. 백일 때 왔었나. 보아. 또 요쪽은 {돌} 때.	조선회(환인)	김용덕(1994)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상신판	상신판		명	상신을 위해 차리는 상. 일반적으로 미역국과 밥, 떡을 올린다고 한다.	{상신판에} 인제. 상 채러가 놓고. 상칠 지내 상칠날 아침에.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상일날	상일날		명	태어나고 상일 때 되는 날.	상칠 말고 {상일날}.	아이가 태어나서 상일때 되는 상날에 상신을 위한 상신판을 세벽에 차리고 상신판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상날	상날		명	태어나고 상일 때 되는 날.	상일, 상일 때, {상날이라} 그래.	아이가 태어나서 상일때 되는 상날에 상신을 위한 상신판을 세벽에 차리고 상신판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찬물	찬물		명	차가운 물.	삼 지킨 사람은 {찬물} 떠놓고.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상신	상신		명	아기를 잡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상신}, 상신훈마이라 커면. 그래.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상신훈마니	상신훈마니		명	상신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상신'이'을 달리 이르는 말.	{상신훈마니} 우메든동 저 어린 걸 그저 보 싹때 주시고 명주고 복주고 아무 허물없이 잘 보살펴 달라고 이래.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고쁠	고쁠		명	감기(感冒)를 일성적으로 이르는 말.	{고쁠도} 감기도 하지 말고 하하하하, 잘 크라고.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백일	백일		명	시복떡의 하나. 멧살가루를 케를 얹게 잡아 커마다 고를 대신 흰 중이를 깔고, 물 또는 쌀알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찌 낸다. 어린이의 상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때위에 쓴다.	백일이라고 {백일}.	아기가 백일에 흰시루떡을 백 명이 상 나뉘먹으면 아기에 좋다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백편	백편		명	시복떡의 하나. 멧살가루를 케를 얹게 잡아 커마다 고를 대신 흰 중이를 깔고, 물 또는 쌀알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찌 낸다. 어린이의 상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때위에 쓴다.	{백편}, 보인 {백편}.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만두	만두		명	만두떡을 다르게 이르는 말.	돌. 돌때는 {만두도} 하고	금경량, 금경자, 이영순(경복)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첨정보	별첨정보2	별첨정보3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만두떡		명	만두 모양처럼 생긴 떡.	그거 인제 돌. 백일에는 {만두떡}.	아이들의 백일, 돌에는 백일떡을 먹었는데 아이들의 소견이 낫으라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백일떡을 디를 양로 만두를 넣었다고 해서 만두떡 이라고도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바람떡		명	만두처럼 생겼으나 속에 소를 넣지 않은 떡.	그 이름이 {바람떡이래}. 속에는 소가, 허개도 없고 방긋이니깐 거 이름이 바람떡 이라. 바람떡.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바람떡'이 '개떡'의 강원변언어라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람떡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아이들의 백일, 돌에는 바람떡을 먹었는데 아이들의 소견이 낫으라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수수떡		명	찰수수 가루로 만든 떡.	{수수떡이래}. {수수떡}.	백일, 돌에는 수수떡을 먹었는데 수수떡을 하면 나쁜 기운이 모두 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수수떡		명	찰수수 가루로 만든 떡. '수수떡'의 경성방언.	백일, 돌에는 수수떡을 먹었는데 수수떡을 하면 나쁜 기운이 모두 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방긋떡		명	속이 비었다.	그 이름이 바람떡이래. 속에는 소가 한 개도 없고 {방긋이니깐} 거 이름이 바람떡 이라. 바람떡.	백일, 돌에 속이 비어있는 바람떡을 하면 아기가 독성을 부리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믿는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구멍		명	구멍 「」의 방언(강원, 경상, 함경).	어떤 이는 뒤 또 이름이 있어버렸지만, 저 때 {구멍도} 포매 다 안 맞고. 또 그러하고 이라.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불간지		명	춧돌이 되는 날에 배우는 잔치.	{불간지} 할 때, 그래 실타래를 놓고 그래 아오 가 집어라. 커마 뭐 거기지고 연필이 나 뜻이나 지른 공부 잘한다 그라고.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연필		명	별기도구의 하나. 흑연과 점도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실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다. 156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뒤 {연필도} 놓고 뒤. {뿔. 옛날에 도 푸도} 놓고 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뿔		명	글씨를 쓰기나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쓰는 도구인 하나. 주로 가는 대나무나 무로 된 자루 끝에 짐승의 털을 꽂아서 먹이나 물감을 찍어 쓴다.	뒤 연필도 놓고 뒤. {뿔}. 옛날에 도 푸도 놓고 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뿔		명	춧돌을 여러 장 모아 맨 물건.	{뿔도} 놓고. 실. 옛날에 실타래를 왜 그래. 실타래를 벗잠아. 돌 잔지 할 때, 그래 실타래를 놓고. 그래 아오 가 집어라. 커마 뭐 거기지고 연필이 나 뜻이나 지른 공부 잘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음식			실		명	고치, 털, 솜, 삼 따위나 화학 원료를 써서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것	{뿔도} 놓고. 실. 옛날에 실타래를 왜 그래. 실타래를 벗잠아. 돌 잔지 할 때, 그래 실타래를 놓고. 그래 아오 가 집어라. 커마 뭐 거기지고 연필이 나 뜻이나 지른 공부 잘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영순(경북)	*	0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표기 여부	별도 표기 이유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준비물				실태래		명	심을 쉽게 풀어 줄 수 있도록 한데 움직이기 나감에 놓는 것	헛도 놓고, 실, 엷날에 실태래를 왜 그제, 실태래를 벗겨, 돌 잔치 할 때, 그제 실태래를 놓고, 그제 아로가 집어라니 카마 뒤 가가지고 연필이나 붓이나 지은 공부 잘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집다		동	늘거락이나 별거락으로 물건을 잡아서 들다.	헛도 놓고, 실, 엷날에 실태래를 왜 그제, 실태래를 벗겨, 돌 잔치 할 때, 그제 실태래를 놓고, 그제 아로가 {진여라} 카마 뒤 가가지고 연필이나 붓이나 지은 공부 잘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의식				실치면 명지다		구	돌침이의 여러 물건 중에서 아기가 실을 잡으면 아기가 장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제 아로가 집어라 카마 뒤 가가지고 연필이나 붓이나 지은 공부 잘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준비물				유모차		명	어린이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셋짐에 지크 {유모차} 있어 끌고 영기만 밟았지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태처리하기				당기에 툴다		구	출산 과정에 관련된 말로 아기가 태어나면 가워나 낚 등으로 자를 먹줄과 태반을 거머 붙여 툴다. 아기가 태어났고 나면 산모가 당에서 태반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태반을 그냥 버리지 않고 거머 붙여서 피뎀을 빼거나 냄새 나는 것을 먹었다고 한다.	늘은 태는 인자 소구리에다가 당기, 내뽀당 당기에 놓아 두었다가 물에 갖다 넣었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태처리하기				물에 갖다 엿다		구	출산 후 행위와 의식에 관련된 말로 태 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태반은 그냥 버리지 않고 3일 동안 보관했다가 물에 갖다 버렸다고 한다. 3일 동안 보관은 거머 붙여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애전에는 상일이 지난 후에 태를 물에 갖다 버렸는데 일반적으로 강에 많이 갖다 버렸다고 한다.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태처리하기				강에 띠우다		구	출산 후 행위와 의식에 관련된 말로 태 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태반은 그냥 버리지 않고 3일 동안 보관했다가 강에 갖다 버렸다고 한다.	애전에는 상일이 지난 후에 태를 물에 갖다 버렸는데 일반적으로 강에 많이 갖다 버렸다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태처리하기				강에 내버레다		구	태의 처리 방법 중 하나로 태를 양간 보관했다가 강에 갖다 버렸다고 한다.	애전에는 강에 버린 태를 간지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태처리하기				내버리다		동	더 이상 쓰지 아니하는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 따위를 아주 버리다.	동촌 {강에 마이 갖다 내버레고}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태처리하기				상원만에 햇불 놓고 태우다		구	출산 후 행위와 의식에 관련된 말로 태 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태반은 그냥 버리지 않고 3일 동안 보관했다가 햇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불인 때니께} 뒤 강에 갖다 띠우는 사람이 태를 강에 갖다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행위 및 의식	태처리하기				바고래이		명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이궁이'의 경복방면.	그때 햇불놓는기레. 어떤 사람은 {바고래이} 쥐여쁘다.	금경량, 금경자, 이용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표기 여부	표준국어대사전 여부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후 행위 및 의식	태 자리 하기	호칭	아이	태 자리	태 자리	명	구	출산 후 행위와 의식에 관련된 말로 태 자리를 하는 방법에서 태반은 그날 버리지 않고 당일 동안 보관했다가 이궁지에 태워버려 버린다.	그때 뒤통놀는기래. 어떤 사람은 {백고래}이 뭐 아따.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준비 행위 및 의식	태 자리 하기	호칭	이궁지	이궁지	이궁지	명	명	임이나 돌 바위에 돌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이궁지'의 경복방언.	{이궁지예} 남그로 불 열잖아.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출산준비 행위 및 의식	태 자리 하기	호칭	넝그	넝그	넝그	명	명	나무의 경상방언.	{이궁지예} 남그로 불 열잖아.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애기	애기	애기	명	명	어린 짐작이 아이. 아기.	남편은 하는거 내뉘부고. 가지. {애기} 가진 지만. {애기} 가진 뿐인만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막내이	막내이	막내이	명	명	어린 형제, 지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막내'의 방언(강원, 경남).	뉘들은 실로가 인지 막 제에서. 그리고 가워 갖고. 그 뉘중하는 그거는 이 산모는 두르지. 시오마이가. 황개네. 시오마이가. 황고. 우리 {막내이는}. 우리 {막내이} 가는 우리 서생동서가 오가지고 뉘뉘도 많고	막내'의 경남방언에는 '막내이, 막내이, 막내이'가 황개네, 시오마이가, 황고. 우리 {막내이는}. 우리 {막내이} 가는 우리 서생동서가 오가지고 뉘뉘도 많고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말래이	말래이	말래이	명	명	'말이'를 귀하게 이르는 말.	올라. 올라. 그래갖고 인지 우리 손자 되가. 도저하. 뉘째 손자는 풍류타 회사 그 되고. 우리 또 {말래이는} 서를 본사. 뭐 뉘 한다. 쟤노. 못 파는데. 거 있는라는데.	조설좌(황안)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아이	아이	아이	명	명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막 태어난 아기.	피웃을. 그거를 지기가 임는데. 지기가 임아보는 예문. 지기가 그거 임고. 그 지자리 앉아가지고 미역국을 먹고. 그. 그래라. 쟤. 그래고 하는 자기도. 아들을. 인지 {아들} 놀는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알라	알라	알라	명	명	'어린이'의 방언(강원, 경상, 함경).	{얼라} 영영이를 막 찾아. 그래 제매는거 아. {그래 아. 고마. {얼라} 때 고마-배를뉘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명	명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	두나 든 건 {쌍둥이고}. 시. 시나. 놀는걸 삼쌍둥이고. 세 쌍둥이.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쌍쌍둥이	쌍쌍둥이	쌍쌍둥이	명	명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세 아이. 쌍쌍둥이.	두나 든 건 쌍둥이고. 시. 시나. 놀는걸 삼쌍둥이고. 세 쌍둥이.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이름덜뻐이	이름덜뻐이	이름덜뻐이	명	명	엄마 배 속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름덜뻐이 태어난 아기.	그거는 이름덜만 나온 거는. 이름 자게 {이름덜뻐이}라. 쟤고. 여덜덜만 나온 거는 여덜덜뻐이라 쟤고 이리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어덜덜뻐이	어덜덜뻐이	어덜덜뻐이	명	명	엄마 배 속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어덜덜만 태어난 아기.	그거는 이름덜만 나온 거는. 이름 자게 {어덜덜뻐이}라 쟤고. 여덜덜만 나온 거는 {어덜덜뻐이}라 쟤고 이리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뉘부	뉘부	뉘부	명	명	엄마 배 속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어덜덜만 태어난 아기.	그거 이름덜만 나온 {뉘부} 말.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려 어휘	호칭	뉘사둥이	뉘사둥이	뉘사둥이	명	명	엄마 배 속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름덜만 태어난 아기.	그래도 이름덜 뻐이보다. 쟤. 쟤거 {열달뻐이}가 더 잘. 똑똑. 더 잘 살더라.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복)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상세 분류3	상세 분류4	상세 분류5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호칭	철삭동어	철부		명	엄마 배 속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곱 달만에 태어난 아기.	임금달만에 난 가는 {철부러} 그러대.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호칭	남자아이	머스마		명	'사나이'의 방언(경원, 경남, 전북, 충청).	그래 내 가만 생각 때는 우리 아들 자기 우째 저 가스나가 안되고 {머스마} 되겠나. 내 한을 다 풀어주소. 응? 그래 생각하는가라. 내 지음 그란다.		조선회(함안)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호칭	남자아이	므시매		명	남자아이의 방언(경원, 경남, 전북, 충청).	남자아이의 경남방언에는 '내매, 매서, 머머, 으머, 으스머, 으스머, 으시머, 으시머'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검색프로그램>		이잠이(함안)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호칭		장남		명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맏이가 되는 아들의 한아들	아들 낳으면 고추 낳다 카는 사람도 있고 아들 낳다 카는 사람도 있고 뭐 찾아들 놓으면 {장남이교} 맏이는 {장남이교}.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호칭		장녀		명	둘 이상의 딸 가운데 맏이가 되는 딸을 이르는 말. 큰딸	여자는 {장녀라}. 미리 노면 장. 또 첫째 노면 {장녀라}. 그냥 딸. 말하기는 첫째 노면. 그 잡 짓말 낫단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호칭		첫딸 노면 살림		명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첫딸 노면 살림 밀전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호칭	호칭	계집아이	가스나		명	계집아이의 방언(경상, 전남).	그래 내 가만 생각 때는 우리 아들 자기 우째 저 {가스나가} 안되고 머스마가 되겠나. 내 한을 다 풀어주소. 응? 그래 생각하는가라. 내 지음 그란다.		조선회(함안)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고추		명	남자아이의 음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아들 낳으면 고추 낳다 카는 사람도 있고 아들 낳다 카는 사람도 있고 뭐 찾아들 놓으면 장남이교 맏이는 장남이교.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고추 낳다		명	아들을 낳다. '고추'는 남자의 음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아들 낳으면 {고추 낳다} 카는 사람도 있고 아들 낳다 카는 사람도 있고 뭐 찾아들 놓으면 장남이교 맏이는 장남이교.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고추치다	꼬치 치다		명	음에 음경을 가지고 있다. 고추는 남자의 음경을 비유적으로 함. 맏이고 '치다'는 몸통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라는 의미이다.	꼬치가 없지. {꼬지 안치고} 나왔으니 꼬지가 없지.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일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헛지		명	여성의 음부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헛지}라는 소리는 어데 하나. 옛날에는 무식하면 말꼬치라고. 헛허.		금경량, 금경자, 이몽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종국어 시전 (특제(예))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발음장지	발음장지	명	명	남성의 음경이 튀어 나온 것처럼 조금 볼록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 '발음장지'의 형태인 환성어는 여성의 음부인 장지가 남성의 것처럼 조금 볼록하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발음장지(정맥)}: 요래 동그란 게. 끝이 안돌개. {발음장지(정맥)}: 발음장이 지단한 건 말코. 말코지지만, 그래, 자, 자는 자는 동그렇게 딱 짝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장지'를 '어린 아이의 자지'를 원곡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실생물학에 의미 지이가 있다. 경성도 이 제보자들은 여자 아이(성인 포함)의 음부를 일반적으로 '장지'라고 하였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말코지지	말코지지	명	명	말의 코처럼 길쭉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빗대어 이르는 말.	불알지(정맥): 요래 동그란 게. 끝이 안돌개. 불알장지(정맥): 말코같이 지단한 건 말코. {말코지지(정맥)}: 그래, 자, 자는 자는 동그렇게 딱 짝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자지'와 '장지' 모두를 남성의 성기를 비하어 혹은 원곡하게 이르는 표현이라고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보자들은 '장지, 부부'는 여성의 음부를 '자지'는 남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코지지'에서는 '말코+자지'의 형태이지만 남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 코처럼 길쭉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말코부지	말코부지	명	명	말의 코처럼 길쭉하게 생긴 여성의 음부를 빗대어 이르는 말.	어떤 이들은 지단한 게 이래, 말코, {말코부지(정맥)}: 지단한 것이다.	말코+부지의 형태로 말코처럼 길쭉하게 생긴 장지라는 말이다. 이는 여성의 음부를 유사하게 생긴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끝이 동그랄다	끝이 동그랄다	구	구	여성의 음부 끝이 동그렇게 생겼다.	불알지(정맥): 요래 동그란 게. 끝이 안돌개. 불알장지(정맥): 말코같이 지단한 건 말코. 말코지지만, 그래, 자, 자는 자는 동그렇게 딱 짝였다.	말코+부지의 형태로 말코처럼 길쭉하게 생긴 부지라는 말이다. 이는 여성의 음부를 유사하게 생긴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지단하다	지단하다	형	형	여성의 음부와 실과 맞닿는 부분의 선이 기다랗게 생겼다.	어떤 이들은 {지단한} 게, 이래, 말코, 말코부지(정맥) 뒤, 찡지단, 소리는 여데 하나, 옛날에 무식하면 말코부지라고, 하하하.	말코+부지의 형태로 말코처럼 길쭉하게 생긴 부지라는 말이다. 이는 여성의 음부를 유사하게 생긴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쪽 께지다	쪽 께지다	구	구	여성의 음부와 실과 맞닿는 부분의 선이 기다랗게 생겼다.	{쪽 께지는} 거 있고.	말코+부지의 형태로 말코처럼 길쭉하게 생긴 부지라는 말이다. 이는 여성의 음부를 유사하게 생긴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볼록하다	볼록하다	형	형	물체의 가족이 크게 두드러지거나 속 내밀러 있다.	내 아는 여자, 여기 이래 {볼록하이}. 이 볼록 튀어나왔다.	여성의 음부인 장지가 남성의 것처럼 조금 볼록하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볼록 튀어나오다	볼록 튀어나오다	구	구	볼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다.	내 아는 여자, 여기 이래 볼록하이, 이 볼록 튀어나왔다.	여성의 음부인 장지가 남성의 것처럼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신생아 관련 어휘	신체 관련	성기 성기	동그스름하다	동그스름하다	형	형	약간 동글다.	아 이래 사무 죽 재져부고, 요래 {동그스름하이}. 지메로 이래 끝이 딱 이쁘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금경랑, 금경자, 이몽순(경북)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통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1	명단 정보2	명단 정보3	발음규약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신모		명	여기를 갖 놓는 여자.	뱃줄은 실로가 인자 딱 짜여서. 그리고 기워 갖고. 그 뱃줄하는 그거는 이 {신모는} 모르지. 시오마이가 황개네. 시오마이가 하고. 우리 막내이. 우리 막내이. 거는 우리 사촌동서가 오가지고 뱃줄로 곱고	한정순(의령)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임신부	임신부		명	임부(妊婦).	{임신부는} 그걸 원래 안먹는거라. 그런 거는.	극경량, 극경자, 이용순(경북)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사산하다		사산하다	죽은 아 낳다	죽은 아: 놓다	구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뜻한다.	아. 가. 애도 {죽은 아 낳아서} 크게 혼이 없지 뭐	이정미(함안)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명이 질다	명이 질다	구	수염이 길다.	그래 내 우리 이들은 좀 {명이 질까라고} 내가 보지.	조설좌(함안)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여가 떨어지다	여가 떨어지다	구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거나 죽어서 나오다.	그래 나와 갖고 담장을 띠 놓고 나오고 그 뱃거든.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아. 안 났어지더라고. 내 전기 문 앞. 우리 옛날에 전기문 앞에 내 양 마갈았제. 또 거 마물렸제. 그래 애도 {아가 안 떨어지더라고}.	조설좌(함안)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여가 떨어지다	여가 떨어지다	구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거나 죽어서 나오다.	애. 애기 떨어졌는거양. 떨어장게네. {애기 떨어질까} 싶어서 옛날에는 은기락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먹었거든. 애기 저 떨어지지 말라고.	조설좌(함안)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누태	누태	명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	그 {누태}.				*				0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들짜	들짜	구	여기를 못 놓는 여자를 이르는 말.	애기 못한 사람 {들짜라} 카더라	경북에서는 아기를 못 놓는 여자를 '들짜' 하었으니 경남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특징 어휘는 없었고 '초신'도 못 한다. '아가 못 가진다.' '배태'도 못 해됐다' 등의 형태로 풀어서 이야기 하였다.	극경량, 극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초신도 못해다	초신도 못해다	구	여기를 한 번도 놓지 못 했다.	{초신도 못해다} 아래.	경북에서는 아기를 못 놓는 여자를 '초신' 하였고 경남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특징 어휘는 없었고 '초신'도 못 한다. '아가 못 가진다.' '배태'도 못 해됐다' 등의 형태로 풀어서 이야기 하였다.	극경량, 극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임신출산 과정	임신출산 관련 과정			아기를 못 낳다	배태도 못해다	배태도 못해다	구	아기를 놓는 여자를 사술형으로 풀어 이르는 말.	애기 못 놓는 부는 말도 없고. 저 사람들이 애기도 못 놓았다. {배태도 못해됐다} 카는가. 이야기 하였다.	한정순(의령)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단산하다	단산하다	동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런 {단산했다고}. 단산.	극경량, 극경자, 이용순(경북)			*				
풍속	임상의례	임신출산	기타	임신부 관련 어휘	단산하다		단산하다	애기 다 낳다	애기 다 낳다	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안 놓는 걸 인지 {애기 다 낳다} 카지. 하하.	한정순(의령)			*				

05 임신출산 조사어휘 (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대표어 표준어	올림말	반응정보	특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단 정보 상호	명단 정보 유무	표준국어대사전 기재여부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타				관찮다	개었다		형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관찮다의 방언	그런 거는 뭐 {개인어.}		한정순(의령)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타					없다		동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이거나 무었으로 동어매어 붙여 있게 하다	또 할매가 {엄고} 더러 나오기도 하고. 저가끼리.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타				없다	받치다		동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이거나 무었으로 동어매어 붙여 있게 하다. '받다'의 경남방언.	그래 덩기마 올랑가. {엄치며} 올랑가. 그래서 나 그때 되든 참 올까라고 생각했지.		조설좌(함안)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타					다그리하여 붙다		구	어떤 정도가 심한 상태로 올다.	그래 인해. 우 사누 영아노니 {다그리하이} 유는기. 저기다가. 이 때본게 내 손에 서 피가 나는기라.		조설좌(함안)			*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타				할머니	할매		명	'할머니'의 방언(강원, 경남, 전남, 충남).	또 {할매가} 엄고 더러 나오기도 하고. 저가끼리.	할머니의 경남방언에는 '조모, 올머미, 하얼매, 할머미, 할매, 할무니, 할무이, 할무니, 할므이, 할망구, 할매, 할매, 할몽이' 등의 어형이 있다. <방언집석석프로그램>	한정순(의령)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타				아버지	아버이		명	'아버지'의 방언(경북, 평안)	그래도 보놓고 난 뒤. 참 먹통 어니가. 뭐 올. 차. 올차. 내가 붙들고 인제 가. 기는데. 그래 {아버이가} 인제 아 내드로 붙게카네.		조설좌(함안)			*	0
풍속	일생의례	임신출산	기타				어머니	어무이		명	'어머니'의 방언.	얼구가. 그런데 {어무이} 이런데. 아야 나는 오번에 똥이다. 이래. 왜 그카이. 왜그래 왜오 이카이. 내가 야야 신에 가서 얼구를 란다래까 따가왔다.		규정량, 금경자, 이응순(경북)			*	

# 찾아보기

## ㄱ

가물치 .....94  
 가스나 .....101  
 가시나 .....101  
 가위 .....70  
 고추 .....102  
 구슬짓 .....94  
 구실적 .....94  
 국밥 .....70, 92  
 귀한 자손 연장 대 끊지 마라 .....76  
 귀한 자식은 연장 안 댈다 .....71  
 금구 .....96  
 금구줄 .....96  
 금색 .....96  
 금석 .....96  
 금석줄 .....96  
 금줄 .....96  
 금줄 치기 .....96  
 기자 대상 .....65  
 기자의례 .....65  
 기저구 .....68  
 기저귀 .....68  
 기저귀 치우다 .....68  
 기저기 .....68  
 기주개 .....68  
 깐대기 날 수대로 먹기 .....80  
 깡아 .....88  
 꼬치 .....102

## ㄴ

나는 아 .....85  
 낫 .....71

## ㄷ

다리 트다 .....88  
 단산했다 .....103  
 담 뛰 넘지 마라 .....74  
 돌 .....99  
 돌잔치 .....99  
 돌잡이 .....100  
 돼지 족발 .....94  
 두대개 .....69  
 두대기 끼린다 .....69  
 두디기 .....69  
 두칠 .....98  
 등겨 .....71  
 덩기 .....71  
 딸 금줄 .....97  
 딸 태몽 .....85  
 띠 .....69  
 띠개 .....69

## ㄹ

마른아 .....88  
 말 잇가리 넣노면 열두 달만에 나온다 .....74  
 말코보지 .....102  
 말코자지 .....102  
 말코잠지 .....102  
 말코잠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생을 낳아도 딸을  
 낳는다 .....102  
 머리 터지다 .....87  
 머리받이 .....87  
 머리받이 터지다 .....87  
 머리받잇물 .....87  
 머스마 .....101  
 머시마 .....101  
 머시매 .....101  
 목에 걸고 다니면 남자 동생을 낳고, 무엇을 머리에

자꾸 이고 다니면 여자 동생을 낳는다 .....82  
 목욕시키다 .....89  
 몸에 끼가 있다 .....92  
 무젓 .....94  
 물병 .....87  
 물병 터지다 .....87  
 물젓 .....94  
 미역 .....70  
 미역국과 .....92  
 미역은 지달에 사놓아야 된다 .....75

**ㅂ**

바라지하다 .....91  
 바람 .....92  
 바람 들다 .....92  
 바람떡 .....99  
 배 트다 .....88  
 배꼽 .....98  
 배꼽을 눌러도 단단해서 잘 들어가지 않으면 딸 ..79  
 배꼽이 쑥 들어가고 배꼽 아래에 만져지는 것이  
 없으면 아들 .....79  
 배냇저고리 .....67  
 배태도 못 해봤다 .....103  
 백일 .....99  
 뱀꿈 .....85  
 뱃속에 똥 .....96  
 뱃총 .....98  
 부정 타는 음식 .....73  
 불알잡지 .....102  
 불알잡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생은 아들을 낳는다 102  
 뺨치다 .....87  
 빠치다 .....87

**ㅅ**

사내바람 .....92  
 산후바람 .....92  
 산후발, .....92  
 산후이슬 .....92  
 산후조리 .....91  
 산후조리하다, .....91  
 산후풍 .....92  
 삼날 .....99

삼신 .....65  
 삼신상 .....70  
 삼신관 .....98  
 삼신할마님 .....66  
 삼신할마이 .....66  
 삼신할매 .....66  
 삼쌍둥이 .....101  
 삼일 부정 .....75, 76, 95  
 삼칠 .....98  
 삼칠 비치다 .....92  
 상갓집 음식 .....73  
 세쌍둥이 .....101  
 소구리 .....71  
 소쿠리 .....71  
 실 .....70  
 실꾸리 .....71  
 실꾸리로 채매다 .....71  
 쌀 .....70  
 쌍디이 .....101

**ㅇ**

아 .....101  
 아 나오다 .....88  
 아 놓다 .....88  
 아 받다 .....88  
 아 배다 .....84  
 아 서다 .....84  
 아가 빠치다 .....87  
 아기 못 가진다 .....103  
 아기를 위한 준비물 .....67  
 아들 금줄 .....97  
 아들 태몽 .....85  
 아들을 낳으면 일곱 칠 동안 산후조리를 하고  
 딸을 낳으면 삼칠일동안 산후조리 .....91  
 아들을 잘 낳는 여성의 기운 빌기 .....66  
 아시 .....86  
 아시보다 .....86  
 아시탄다 .....82  
 아이의 위치 .....78  
 이흠달백이 .....82, 101  
 애 트다 .....88  
 애기 가지다 .....84  
 애기 다 낳다 .....103

애기띠 .....69  
 애기이불 .....69  
 애기저고리 .....67  
 어울대 .....69  
 언해태산집요 .....78  
 얼라 .....101  
 얼라 가지다 .....84  
 얼라 들다 .....84  
 여덟달백이 .....101  
 연물 나오다 .....93  
 오리에 관련된 금기 .....73  
 오지배꼽 .....98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딸 .....79  
 용꿈 .....85  
 우문젓 .....94  
 우유갈기 .....95  
 울타리 구멍에 빠지지 마라 .....74  
 유산에 관련된 속설 .....77  
 유산에 관한 속설 .....80  
 유산을 막기 위한 속설 .....80  
 유산을 위한 속설 .....80  
 유젓이 좋다 .....94  
 은가락지 삶은 물 먹기 .....80  
 음부 명칭 .....102  
 음식 금기 .....72, 75  
 이란저고리 .....67  
 이불 .....69  
 이슬 .....86  
 이슬 비치다 .....87  
 이슬이 붉은 색이면 아들이고, 흰 색이면 딸 .....79  
 이승가는 거 .....89  
 일곱달백이 .....101  
 일곱칠 .....98  
 임부 배 모양 .....78  
 임부의 행동 .....79  
 임신부를 위한 준비물 .....67  
 임신 .....84  
 임신선이 진하고 일자 모양으로 쪽 이어지면 아들 80  
 입 그친다 .....84  
 입 놓다 .....84  
 입덧 .....84  
 입덧틈 .....84  
 입덧틈하다 .....84

입덧하다 .....84  
 입맛 그친다 .....84  
 입씨리 .....84  
 입쓰리 .....84  
 잉어를 먹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 .....82

ㄱ

작고 덜 익었으면 딸 .....85  
 잠지 .....102  
 저고리 .....67  
 절줄 열래다 .....93  
 젓 들다 .....93  
 젓 떨어지다 .....93  
 젓고생 .....94  
 젓이 나다 .....93  
 젓이 나오다 .....93  
 젓이 많다 .....93  
 젓이 모지라다 .....93  
 젓이 없다 .....93  
 젓이 적다 .....93  
 젓이 좋다 .....94  
 젓이 혼하다 .....93  
 제삿집 음식 .....73  
 주술기자 .....65  
 진자리 .....66  
 짐승 잡으면 벌 받는다 .....74  
 째지 .....102

ㄴ

참젓 .....94  
 쟁이 집으로 백정놈 나온다 .....74  
 초산도 못 한다 .....103  
 초상집, 상갓집에 가지 마라 .....74  
 초유 .....93  
 초칠 .....98  
 출산 .....86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 .....67  
 출산 의식 .....91  
 출산 전 금기 .....72  
 출산 후 금기 .....72, 75  
 치성기자 .....65  
 칠부 .....101

ㅋ

크고 잘 익었으면 아들 .....85

ㅌ

태 .....89  
 태 나오다 .....89  
 태 처리 하기 .....97  
 태몽 .....84  
 태변 .....96  
 태아 성별을 구별하는 속설 .....77  
 태줄 끊기 .....89  
 태울 .....86  
 태울이 늘어지다 .....86  
 트다 .....88

틀다 .....88

ㅍ

팔부 .....101  
 포대기 .....69  
 피웃 .....66, 70  
 피웃 입고 진자리 앉아 미역국 먹다 .....66

ㅎ

행위 금기 .....73, 76  
 허리 트다 .....88  
 훗배 .....90  
 훗배 아프다 .....90  
 훗배얹이는 .....90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홍기옥(경북대학교)

---

##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1월 27일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